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과학적이고 설명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육아정책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육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06년에는 향후 다년간 추진될 장기종단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한국아동패널’의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에는 모형에서 계획된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2008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인 2009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조사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주제별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2009 보고서의 발간은 한국아동패널2008의 1차년도 자료와 종단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심도 깊은 정책적·학술적인 연구들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주신 패널 가족과 조사원분들, 그리고 패널 연구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아동 발달과 육아지원에 관한 종단연구의 모범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실질적으로 육아정책 수립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요 약

1. 2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에 실시한 한국아동패널2009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한 결과임.
-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짐.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 특성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아버지특성, 어머니 특성,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위탁가구 특성으로 구성됨.
 - 아동발달 특성은 발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 Denver-II, K-ASQ, 기질, 기초생활습관으로 구성됨.
 -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1차년도 조사의 주요 변수였던 임신 출산 관련 특성 변인의 항목들이 삭제되어 부모됨의 특성으로 분석주제명을 변경함. 부모됨의 특성은 부모됨, 어머니 특성, 부부관계, 양육특성으로 구성됨.
 - 육아지원관련 특성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특성, 육아지원 정책 특성으로 구성됨.

2. 2차년도 기초분석

- 일반적 특성
 - 아동특성
 - 아동 성별은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출생순위는 첫째아가 47.6%, 둘째아가 41.2%이고,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14개월 36.3%, 13개월 24.4%, 15개월 23.4%임.

- 아동의 체중은 평균 10.12kg이며, 키는 77.23cm, 두위는 46.02cm임.
-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결핵 99.4%, B형 간염 95.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94.5%(4차 완료 0.7% 포함), 소아마비 94.6%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중 16.4%가 사고/중독으로 입원치료 경험이 있으며, 사고/중독 횟수는 평균 1.41건임.
- 아동 중 21.8%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 경험이 있으며, 횟수는 평균 1.33회, 기간은 9.23일로 조사됨.
- 출생 후 조사 시까지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42.8%임.
- 부모특성
 - 부모 평균 연령은 어머니 32.91세, 아버지 35.56세이고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 어머니 69.7%, 아버지 72.2%이며, 고졸 미만은 1%미만임.
 -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98.9%가 초혼이며, 평균 결혼기간은 4.92년임.
 - 어머니 53.0%, 아버지 43.6%가 종교가 있으며,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순임.
 - 타지역 근무 등의 이유로 비동거 하는 경우는 어머니 2.5%, 아버지 4.1%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는 2.7%임.
 - 어머니의 0.2%, 아버지의 0.5%가 1,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의 0.1%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어머니의 35.2%, 아버지의 78.6%가 음주를 하고 어머니의 1.0%, 아버지의 2.8%가 흡연을 함.
 - 아버지 98.1%, 어머니 31.3%가 취업 중이며, 취업모의 72.4%가 출산 전 일 하던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15.3%가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으며, 12.3%가 휴직중임.
 - 휴직 중인 어머니의 83.8%가 복귀할 예정이며, 7.1%는 복귀계획이 없음.
 - 조사 당시 취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 중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 이직할 예정은 1.5%이며,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응답이 70%이고 직장 내 분위기(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도 3.1%임.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남편이 자녀양육에 협조를 더 잘한다고 응답하였

고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첫째아인 경우 양육에 보다 더 협조적이라고 응답함.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원 구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경우가 88.2%, 3세대 가족이 7.8%임.
- 평균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9.08만원이며, 지출에서 소비성 지출은 187.43만원, 비소비성 지출은 88.93만원으로 나타남.
- 전체 11%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3.9%는 차상위계층임.
- 가족생활사건 중 규범적 사건은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첫째아 집단보다 둘째 이상의 아동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함. 비규범적 사건은 취업모 집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첫째아 집단보다 둘째 이상의 아동 집단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지원은 12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과 하위척도 중 도구적, 여가적, 정보적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함. 도구적 지원은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함.
-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아파트가 71.0%, 연립주택(빌라 포함) 12.2%, 단독주택 7.4 %이며, 소유 형태는 자가 42.5%, 전세 40.8%로 비슷하게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일반아파트지역이 66.4%, 일반주택지역이 25.9%임.

○ 지역사회 특성

-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원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 각각 16.3%, 30.3%, 30.9%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공공여가 공간·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29.3%, 53.4%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사고에 대해 각각 14.3%, 21.4%가 위험하다고 인식함.
- 전반적인 육아적절성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이 17.3%임.

○ 위탁가구 특성

- 전체의 2.5%가 아동을 다른 가구에 위탁 중이라고 응답함.
- 위탁가구는 대부분 취업모 가구로 외조부/외조모 위탁이 52.4%, 친조부/친

조모 위탁이 41.8%로 비슷하게 이용함.

- 1차년도 조사 이후 위탁을 새롭게 시작한 위탁가구는 57.9%이며, 지속적으로 이용한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가구를 이용하는 경우 37.3%, 변경된 경우 4.8%로 나타남.

□ 아동발달 특성

- K-ASQ 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대근육 운동영역 5.4%, 문제해결영역 2.6%, 소근육 운동영역 2.1%, 개인-사회성영역 2%, 의사소통영역 1.2%로 나타남.
- K-ASQ 검사 결과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경우는 소근육 운동영역 15.1%, 문제해결 영역 12.4%, 대근육 운동영역 10.7%, 개인-사회성 영역 7.8%임.
- Denver II 검사 결과 전체 아동의 74.2%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5.8%가 의심스런 발달임.
-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과 활동성을 각각 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자녀가, 둘째 이상보다 첫째아의 활동성 점수가 높음.
- 수면, 식습관, 배변 및 씻기 습관은 기초생활습관별로 어머니의 취업상태, 출생순위, 및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옴.

□ 부모됨의 특성

- 부모됨
 - 전체 35.7%가 추가 출산계획이 있으며, 53.6%는 추가 출산계획 없음.
 -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의 이유는 교육비용 27.4%, 계획한 수의 자녀 출산 24.7%임.
 -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의 계획 자녀수는 1명이 85.6%이며, 출산 시기는 1~2년 이내 출산할 계획이 39.8%, 1년 이내가 23.9%임.
 -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본인이 70.8%, 남편이 21.4%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 어머니 57.0%, 아버지 61.7%가 2명을 선택함.

- 어머니의 56.6%, 아버지의 58.7%가 성별의 구분 없이 이상 자녀수를 응답함.
- 성별을 구분할 경우 아버지의 55.8%, 어머니의 40.7%가 아들 1명, 딸 1명을 선호함.
- 부모가 갖는 자녀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로 구성되며, 부모 모두 정서적 가치에 더 의미를 부여함.
- 어머니 특성
 - 자기효능감은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취업모에 비해 취업모들이,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
 -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가,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어머니의 22.1%는 경도/중등도, 5.4%는 중도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함.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부부갈등은 8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양육특성
 - 부모의 자녀기대에 대한 항목별 응답에서는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 이타심, 금전적 성공 순으로 나타남.
 - 부모의 책임에 대해 어머니의 48.2%, 아버지의 53.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응답함.
 -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순으로 나타남.
 -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6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온정성과 반응성 요인으로 분류됨.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들이 온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여줌.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이 전체적으로 금

정적인 양육스타일을 행사하며, 세부적으로는 보다 온정적인 스타일임을 보여줌.

- 어머니의 45.8%가 총 13개의 양육지식 문항에 대해 75% 이상의 정답률을 보임.
-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10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둘째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이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지원 관련 특성

○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 출생 4개월 이후 낮 시간 주로 부모에 의해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개인 대리 양육,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조사 시 전체 응답자의 27.7%가 개인 대리 양육자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였음.
- 직접 양육하는 경우의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38.6%, 직접 양육하고 싶어서 36.3%로 나타남.
- 직접 양육하는 경우의 9.1%는 별도 양육비용 지불 없이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제공하는 인원은 1명이 82.0%였고, 외할머니 49.9%, 친할머니 24.7%로 주로 자녀의 조모에게 도움을 받고 있음.
- 서비스 형태는 개인 대리 양육자 60.7%, 보육시설 36.3%, 두 가지 병행이 3.1%임.
- 이용 중인 서비스를 1회 이상 변경한 경우는 개인 대리 양육자 13.7%, 보육시설 12.0%임.

○ 개인 대리 양육

- 개인 대리 양육자는 외할머니 46.2%, 친할머니 34.3%로 아이의 조부모 비율이 높음.
-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라는 응답이 57.1%임.
- 개인 대리 양육 이용의 평균 이용 기간은 5.29개월, 하루 평균 11.04시간 이용함.
- 대리양육자에게 낮 시간에 아이만 맡기는 형태가 32.5%, 함께 살고 있는 경

- 우가 29.0%이며, 주중 5일간 이용이 63.0%로 가장 많음.
-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은 정기적 현금지불이 89.4%, 지불 안함이 10.1%이며, 지불할 경우의 평균 비용은 61.37만원임.
 - 개인 대리 양육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의 비용은 평균 1.84만원임.
 -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의 부담도는 적당하다고 여기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으며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32.9%임.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라는 응답이 56.7%,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5.3%임.
- 보육시설 이용 이유
- 보육시설 이용 이유는 개인 대리 양육자 고용 비용 부담이 31.8%, 교육적 도움이 25.3%로 응답됨.
 - 이용 중인 보육시설 유형은 가정보육시설이 63.7%, 민간개인이 30.5%임.
 - 이용 중인 보육시설의 57.0%가 평가인증 시설이며, 41.2%가 미인증, 1.7%가 인증 취소 시설임.
 - 평균 이용 기간은 9.64개월이며, 주 5일 이용이 85.7%로 하루 평균 8.76시간임.
 -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평균 28.85만원이며, 38.1%가 일부 감면, 28.4%가 전액 면제 받고 있음.
 -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의 이유로는 두 자녀 이상 지원 34.3%, 차등 보육료 지원 33.4%, 기초생활수급 13.2%임.
- 육아지원서비스 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16.4%로, 평균 1.25개를 이용함.
 -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통합 프로그램이 36.8%,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31.8%임.
 - 프로그램은 84.0%가 다른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며, 학습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16.2%임.
 - 프로그램은 월 평균 4.98회, 회당 48.97시간 진행되며, 62.1%가 사설 문화 센터에서 이용함.
 -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평균 6.19만원임.

-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육아지원 기관 및 학원 시설 등의 이용 계획
 - 2세에서 3세까지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점차 감소함.
 - 이용하는 경우 5세까지는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5세부터 점진적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육아 지원 정책 특성
 -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방향은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모두라는 응답이 52.8%임.
 -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여성의 출산휴가, 보육비지원, 여성의 육아휴직, 직장 보육 순으로 점수가 높음.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우선순위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육아지원 정책 수혜는 농어민 가정 육아비 2.4%, 아이돌보미 서비스 2.8%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시행 중이며,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 휴직 시행률도 각 56.9%, 45.2%임. 기타 나머지 정책은 2~30% 정도의 시행률을 보임.
 - 제도 시행 중인 경우 이용률은 출산휴가 93.2%, 대체인력풀 운영 77.6%, 육아휴직 60.9%, 보육비 지원 60.7% 순이며 대체로 40% 정도 이용함.
 - 이용 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여성의 육아휴직이 4.03점으로 가장 높았음.
 - 국가에서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추가적으로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응답은 66.6%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2%임.
 -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의 자녀 출산을 계획하겠다는 응답은 63.4%이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2%였고, 희망 지원 비용은 30만원 이상이 50.5%로 나타남.

차 례

I. 2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1
1.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1
2. 표본 특성	6
II. 2차년도 기초분석	8
1. 일반적 특성	8
2. 아동발달 특성	64
3. 부모됨의 특성	97
4. 육아지원 관련 특성	128
부록: 2차년도 기초분석 질문지	203
1. 어머니대상 질문지	205
2. 아버지대상 질문지	218
3. 면접조사용 질문지	223

표 차례

〈표 I-1- 1〉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1
〈표 I-1- 2〉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3
〈표 I-1- 3〉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됨의 특성	4
〈표 I-1- 4〉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5
〈표 I-1- 5〉 표본 특성	7
〈표 II-1-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8
〈표 II-1- 2〉 체중	9
〈표 II-1- 3〉 키	9
〈표 II-1- 4〉 두위	9
〈표 II-1- 5〉 예방접종 횟수 - 12개월 기준	10
〈표 II-1- 6〉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11
〈표 II-1- 7〉 사고/중독 건수	12
〈표 II-1- 8〉 입원 경험 여부	12
〈표 II-1- 9〉 입원 횟수	12
〈표 II-1-10〉 입원 기간	13
〈표 II-1-11〉 최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	13
〈표 II-1-12〉 모유 수유 여부	14
〈표 II-1-13〉 모유 수유 중단 시기	14
〈표 II-1-14〉 모유 수유 중단 이유	15
〈표 II-1-15〉 부모 연령	16
〈표 II-1-16〉 결혼 상태	16
〈표 II-1-17〉 결혼기간	16
〈표 II-1-18〉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16
〈표 II-1-19〉 부모 종교	17
〈표 II-1-20〉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18
〈표 II-1-21〉 어머니 학력	19
〈표 II-1-22〉 아버지 학력	20

〈표 II-1-23〉 어머니 장애	20
〈표 II-1-24〉 아버지 장애	21
〈표 II-1-25〉 아버지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21
〈표 II-1-26〉 어머니의 음주 여부	22
〈표 II-1-27〉 어머니의 음주 빈도	22
〈표 II-1-28〉 어머니의 음주 시 주량	23
〈표 II-1-29〉 아버지의 음주 여부	23
〈표 II-1-30〉 아버지의 음주 빈도	24
〈표 II-1-31〉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	24
〈표 II-1-32〉 어머니의 흡연 여부	25
〈표 II-1-33〉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	25
〈표 II-1-34〉 아버지의 흡연 여부	26
〈표 II-1-35〉 아버지의 니코틴 중독 정도	26
〈표 II-1-36〉 아버지 취업/학업 상태	27
〈표 II-1-37〉 아버지 직업(대분류 기준)	27
〈표 II-1-38〉 아버지 종사상 지위	28
〈표 II-1-39〉 아버지 주당 총 근로/학업 시간	28
〈표 II-1-40〉 아버지 출퇴근/등하교 소요시간	29
〈표 II-1-41〉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어머니 응답)	29
〈표 II-1-42〉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30
〈표 II-1-43〉 어머니 직업(대분류 기준)	31
〈표 II-1-44〉 어머니 종사상 지위	31
〈표 II-1-45〉 현재 직업 상태	32
〈표 II-1-46〉 어머니 복귀/취업시기	33
〈표 II-1-47〉 어머니 주당 총 근로 시간	33
〈표 II-1-48〉 어머니 출/퇴근 소요시간	33
〈표 II-1-49〉 향후 취업계획	34
〈표 II-1-50〉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려는 이유	35
〈표 II-1-51〉 직장으로서의 복귀 계획	35
〈표 II-1-52〉 복귀 계획 시기	36
〈표 II-1-53〉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36

〈표 II-1-54〉	비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37
〈표 II-1-55〉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38
〈표 II-1-56〉	어머니 학업 상태	38
〈표 II-1-57〉	어머니 주당 총 학업 및 등하교 소요 시간	39
〈표 II-1-58〉	직장 또는 학업 중단 시기	39
〈표 II-1-59〉	출산 후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시기	40
〈표 II-1-60〉	일 또는 학업 그만 둔 시기의 취업/학업 상태	40
〈표 II-1-61〉	임신 중/출산 후 그만 둔 이유	41
〈표 II-1-62〉	취업 또는 학업 계획	41
〈표 II-1-63〉	가구구성원 수	42
〈표 II-1-64〉	가구 구성	43
〈표 II-1-65〉	월평균 가구 소득	43
〈표 II-1-66〉	금융자산	44
〈표 II-1-67〉	소유 부동산 총액	44
〈표 II-1-68〉	부채	45
〈표 II-1-69〉	월 상환금	45
〈표 II-1-70〉	가구 총 소비성 지출	46
〈표 II-1-71〉	아동 총 소비성 지출	46
〈표 II-1-72〉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47
〈표 II-1-73〉	아동 총 비소비성 지출	47
〈표 II-1-74〉	규범적 사건	48
〈표 II-1-75〉	비규범적 사건	48
〈표 II-1-76〉	사회적 지원	49
〈표 II-1-77〉	주택 소유형태	50
〈표 II-1-78〉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51
〈표 II-1-79〉	거주 중인 주택 유형	51
〈표 II-1-8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52
〈표 II-1-81〉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53
〈표 II-1-82〉	보육시설 충분도	53
〈표 II-1-83〉	유치원 충분도	54
〈표 II-1-84〉	사교육기관 충분도	55

〈표 II-1-85〉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55
〈표 II-1-86〉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56
〈표 II-1-87〉	치안 안전성	57
〈표 II-1-88〉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57
〈표 II-1-89〉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	58
〈표 II-1-90〉	위탁여부	59
〈표 II-1-91〉	위탁가구 변경여부	59
〈표 II-1-92〉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60
〈표 II-1-93〉	위탁가구 지역 보육시설 충분도	60
〈표 II-1-94〉	위탁가구 지역 유치원 충분도	61
〈표 II-1-95〉	위탁가구 지역 사교육기관 충분도	61
〈표 II-1-96〉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62
〈표 II-1-97〉	위탁가구 지역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62
〈표 II-1-98〉	위탁가구 지역 치안 안전성	63
〈표 II-1-99〉	위탁가구 지역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63
〈표 II-1-100〉	위탁가구 지역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	64
〈표 II-2- 1〉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66
〈표 II-2- 2〉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67
〈표 II-2- 3〉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67
〈표 II-2- 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69
〈표 II-2- 5〉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69
〈표 II-2- 6〉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70
〈표 II-2- 7〉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71
〈표 II-2- 8〉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72
〈표 II-2- 9〉	출생순위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72
〈표 II-2-10〉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74
〈표 II-2-11〉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74
〈표 II-2-12〉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75
〈표 II-2-13〉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77
〈표 II-2-14〉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77
〈표 II-2-15〉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78

〈표 II-2-16〉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전체)	78
〈표 II-2-17〉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79
〈표 II-2-18〉	모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80
〈표 II-2-19〉	모취업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81
〈표 II-2-20〉	모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81
〈표 II-2-2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82
〈표 II-2-2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83
〈표 II-2-23〉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84
〈표 II-2-24〉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84
〈표 II-2-25〉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85
〈표 II-2-26〉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85
〈표 II-2-27〉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86
〈표 II-2-28〉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87
〈표 II-2-29〉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87
〈표 II-2-30〉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88
〈표 II-2-31〉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88
〈표 II-2-32〉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89
〈표 II-2-33〉	기질: 총점 평균 비교	90
〈표 II-2-3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91
〈표 II-2-35〉	출생순위에 따른 기질	91
〈표 II-2-36〉	지역규모에 따른 기질	92
〈표 II-2-37〉	기초생활습관: 전체 문항별 평균 비교	93
〈표 II-2-38〉	기초생활습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94
〈표 II-2-39〉	기초생활습관: 출생순위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95
〈표 II-2-40〉	기초생활습관: 지역규모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97
〈표 II-3- 1〉	후속 출산 의도	98
〈표 II-3- 2〉	어머니 취업 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98
〈표 II-3- 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99
〈표 II-3- 4〉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100
〈표 II-3- 5〉	후속 출산 시기	101
〈표 II-3- 6〉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02

〈표 II-3- 7〉	모취업과 출생순위에 따라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02
〈표 II-3- 8〉	이상적인 자녀수: 어머니	103
〈표 II-3- 9〉	이상적인 자녀수: 아버지	104
〈표 II-3-10〉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104
〈표 II-3-11〉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아버지	105
〈표 II-3-12〉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어머니	105
〈표 II-3-13〉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아버지	106
〈표 II-3-14〉	자녀가치: 부모	107
〈표 II-3-15〉	자녀 가치: 어머니	107
〈표 II-3-16〉	정서적 자녀 가치: 어머니	108
〈표 II-3-17〉	도구적 자녀 가치: 어머니	108
〈표 II-3-18〉	자녀 가치: 아버지	109
〈표 II-3-19〉	정서적 자녀 가치: 아버지	109
〈표 II-3-20〉	도구적 자녀 가치: 아버지	109
〈표 II-3-2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110
〈표 II-3-22〉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111
〈표 II-3-23〉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112
〈표 II-3-24〉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112
〈표 II-3-25〉	부부의 결혼만족도	113
〈표 II-3-26〉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어머니	113
〈표 II-3-27〉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아버지	114
〈표 II-3-28〉	부부 갈등의 정도	114
〈표 II-3-29〉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어머니	115
〈표 II-3-30〉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아버지	115
〈표 II-3-31〉	자녀기대: 부모	116
〈표 II-3-32〉	모취업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117
〈표 II-3-33〉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118
〈표 II-3-34〉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118
〈표 II-3-35〉	모취업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119
〈표 II-3-36〉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120
〈표 II-3-37〉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120

〈표 V-3-38〉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 부모의 책임	121
〈표 II-3-39〉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책임: 어머니	122
〈표 II-3-40〉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책임: 아버지	122
〈표 II-3-41〉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부모	123
〈표 II-3-42〉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어머니	124
〈표 II-3-43〉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아버지	124
〈표 II-3-44〉 양육스타일: 전체	125
〈표 II-3-45〉 양육스타일: 온정성	125
〈표 II-3-46〉 양육스타일: 반응성	126
〈표 II-3-47〉 양육 지식	126
〈표 II-3-48〉 양육 스트레스	127
〈표 II-4-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29
〈표 II-4-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30
〈표 II-4-3〉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31
〈표 II-4-4〉 주 양육자	133
〈표 II-4-5〉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134
〈표 II-4-6〉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135
〈표 II-4-7〉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	136
〈표 II-4-8〉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중복응답)	137
〈표 II-4-9〉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	137
〈표 II-4-10〉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	138
〈표 II-4-1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139
〈표 II-4-12〉 주 대리양육자	140
〈표 II-4-13〉 보육시설과 대리 양육 병행 이유	140
〈표 II-4-14〉 대리 양육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141
〈표 II-4-15〉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이유	142
〈표 II-4-16〉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	143
〈표 II-4-17〉 개인 대리 양육자 구인 경로	144
〈표 II-4-18〉 개인 대리 양육자 거주지	145
〈표 II-4-19〉 개인 대리 양육자 성별	146
〈표 II-4-20〉 개인 대리 양육자 학력	146

〈표 II-4-21〉	개인 대리 양육자 결혼상태	147
〈표 II-4-22〉	개인 대리 양육자 국적	147
〈표 II-4-23〉	개인 대리 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148
〈표 II-4-24〉	개인 대리 양육 바뀐 횟수	148
〈표 II-4-25〉	개인 대리 양육 이용 기간	149
〈표 II-4-26〉	개인 대리 양육 이용 빈도	150
〈표 II-4-27〉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시간	150
〈표 II-4-28〉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151
〈표 II-4-29〉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152
〈표 II-4-30〉	개인 대리 양육자 이외 추가 지원 비용	153
〈표 II-4-31〉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부담도	154
〈표 II-4-32〉	개인 대리 양육 만족도	154
〈표 II-4-33〉	보육시설 이용 이유	155
〈표 II-4-34〉	보육시설 설립 유형	156
〈표 II-4-35〉	보육시설 대상별 시설 유형	157
〈표 II-4-36〉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158
〈표 II-4-37〉	보육시설 입지 조건	158
〈표 II-4-38〉	보육시설 바뀐 횟수	159
〈표 II-4-39〉	보육시설 이용 기간	160
〈표 II-4-40〉	보육시설 이용 빈도	160
〈표 II-4-41〉	보육시설 이용 시간	161
〈표 II-4-42〉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	162
〈표 II-4-43〉	보육시설 이용비용	163
〈표 II-4-44〉	보육시설 이용비용 부담도	164
〈표 II-4-45〉	보육비 지원 여부	165
〈표 II-4-46〉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165
〈표 II-4-47〉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166
〈표 II-4-48〉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	167
〈표 II-4-49〉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수	168
〈표 II-4-50〉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	169
〈표 II-4-5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방식	169

〈표 II-4-5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장소	170
〈표 II-4-53〉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	171
〈표 II-4-54〉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횟수	172
〈표 II-4-55〉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시간	172
〈표 II-4-56〉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기간	173
〈표 II-4-57〉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174
〈표 II-4-58〉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5
〈표 II-4-59〉 모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6
〈표 II-4-60〉 출생 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8
〈표 II-4-61〉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179
〈표 II-4-62〉 출산휴가	180
〈표 II-4-63〉 육아휴직	182
〈표 II-4-64〉 직장 보육시설	183
〈표 II-4-65〉 보육비 지원	183
〈표 II-4-66〉 수유실 설치	184
〈표 II-4-6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185
〈표 II-4-68〉 시차 출근제	186
〈표 II-4-69〉 대체인력풀 운영	187
〈표 II-4-7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1순위	188
〈표 II-4-7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2순위	188
〈표 II-4-7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3순위	189
〈표 II-4-73〉 농어민 지원 수혜 여부	191
〈표 II-4-7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191
〈표 II-4-75〉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192
〈표 II-4-76〉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193
〈표 II-4-77〉 출산휴가	194
〈표 II-4-78〉 육아휴직	195
〈표 II-4-79〉 직장 보육시설	196
〈표 II-4-80〉 보육비 지원	196
〈표 II-4-81〉 수유실 설치	197
〈표 II-4-82〉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198

〈표 II-4-83〉	시차 출근제	199
〈표 II-4-84〉	대체인력풀 운영	199
〈표 II-4-85〉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200
〈표 II-4-86〉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201
〈표 II-4-87〉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202

그 립 목 차

[그림 II-4-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29
[그림 II-4-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31
[그림 II-4-3]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132
[그림 II-4-4]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5
[그림 II-4-5]	모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7
[그림 II-4-6]	출생 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178
[그림 II-4-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190

I. 2차년도 기초분석 개요

1.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질문지는 다음과 같다.¹⁾

1) 일반적 특성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 분석의 일반적 특성은 아동특성, 부모특성, 아버지특성, 어머니 특성,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위탁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1-1>과 같다.

<표 I-1-1> 분석주제별 구성: 일반적 특성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아동특성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 출생순위	면접조사용	
	건강특성	체중, 신장, 두위	어머니대상	
		예방접종	어머니대상	
		병력, 장애,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유전병	어머니대상	
		모유수유 여부, 중단 시기, 중단 이유	면접조사용	
부모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면접조사용	
		결혼 상태, 기간	면접조사용	
		국적, 귀화여부	어머니/아버지대상	
		종교	어머니/아버지대상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어머니/아버지대상	
		학력	면접조사용	
	건강특성	장애	면접조사용	
		음주	어머니/아버지대상	
		흡연	어머니/아버지대상	

1)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의 질문지는 부록 1에 수록됨.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아버지 특성	근로특성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직업, 종사상 지위	면접조사용	
		근로시간	면접조사용	
		통근시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	어머니대상	
어머니 특성	근로특성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직업, 종사상 지위	면접조사용	
	취업모 대상 근로특성	복귀/취업 시기	면접조사용	
		근로시간	면접조사용	
		통근시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향후 취업계획, 취업중단 및 이직 사유	면접조사용	
		직장 복귀 계획, 복귀 시기	면접조사용	
		직업만족도	면접조사용	
	학업모 대상 근로특성	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학업시간	면접조사용	
		통학시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미취업/학업모 대상 근로특성	취업/학업 중단 시기	면접조사용	
		취업/학업 중단 시기 상태	면접조사용	
		취업/학업 중단 사유	면접조사용	
취업/학업 계획		면접조사용		
가구 및 가구원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가구 구성	면접조사용	
	경제적 특성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면접조사용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원	어머니대상	
	물리적 환경	주택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거주 외 주택 소유 여부	면접조사용	
		거주 주택 유형	면접조사용	
	사회보장지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면접조사용	
지역사회 특성	일반적 특성	거주기간, 지역유형	어머니대상	
	가용 육아지원 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기관	어머니대상	
		공공여가·문화시설	어머니대상	
	양육 적절성	치안 안정성	어머니대상	
		안전사고 측면 안정성	어머니대상	
		전반적 양육 적절성	어머니대상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위탁가구 특성	위탁 여부	하위변인	면접조사용	
		위탁 여부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위탁가구 변경 여부	면접조사용	
	가용 육아지원 기관	대상아동과의 관계	면접조사용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기관	면접조사용	
	양육 적절성	공공여가·문화시설	면접조사용	
		치안 안정성	면접조사용	
		안전사고 측면 안정성	면접조사용	
	전반적 양육 적절성	면접조사용		

2) 아동발달 특성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 분석의 아동발달 특성은 발달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형 Denver-II, K-ASQ, 기질, 기초생활습관으로 구분하였다. 각 검사도구별 해당하는 변인과 질문지는 다음 <표 I-1-2>와 같다. K-ASQ와 한국형 Denver-II 검사는 각 검사도구별 월령 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월령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기질은 정서성과 활동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습관은 아동의 수면과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1-2> 분석주제별 구성: 아동발달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K-ASQ	발달전반	K-ASQ
	의사소통 영역	
	대근육운동 영역	
	소근육운동 영역	
	문제해결(인지) 영역	
	개인-사회성 영역	
한국형 Denver-II	발달전반	한국형 Denver II
	개인-사회발달 영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언어발달 영역	
	운동발달영역	
기질	정서성, 활동성	어머니대상
기초생활습관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	어머니대상

3) 부모됨의 특성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1차년도 조사의 주요 변수였던 임신 출산 관련 특성 변인의 항목들이 삭제되어 부모됨의 특성으로 분석주제명을 변경하였다. 부모됨의 특성은 부모됨, 어머니 특성, 부부관계, 양육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1-3>과 같다.

<표 I-1-3> 분석주제별 구성: 부모됨의 특성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후속 출산 의도	어머니대상	
		더 낳지 않는 이유	어머니대상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 사람	어머니대상	09년도추가
		이상자녀수, 이상성비	어머니대상	
	부모됨의 태도	자녀가치	어머니/아버지대상	
어머니 특성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어머니대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어머니대상	
	우울	우울	어머니대상	
부부관계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어머니/아버지대상	
	부부갈등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갈등	어머니/아버지대상	
양육특성	자녀기대	아버지의 자녀기대, 어머니의 자녀기대	어머니/아버지대상	
	양육신념	아버지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아버지대상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어머니대상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	어머니대상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대상	

4) 육아지원관련 특성

한국아동패널 2차 조사의 육아지원관련 특성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 <표 I-1-4>과 같다.

〈표 1-1-4〉 분석주제별 구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현황	4개월 이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현재 주 양육자	면접조사용	
		육아지원 서비스 미이용 이유	면접조사용	
	비대가성 양육 지원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동거 여부, 지원 시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주 대리양육자	서비스 이용 이유	면접조사용	
		주 대리양육자	면접조사용	
		보육시설과 대리양육 병행 이유	면접조사용	
	개인 대리 양육	대리양육 시 고려한 점	어머니대상	
		서비스 이용 이유	면접조사용	
		관계	면접조사용	
		구인 경로	면접조사용	
		거주지, 성별, 학력, 결혼상태, 국적	면접조사용	
		자녀양육 경험	면접조사용	
		변경 횟수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이용 기간,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면접조사용	
		이용비용, 추가지원 비용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이용비용 부담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이용 만족도	면접조사용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 이유	면접조사용	
		설립 유형, 시설 유형	면접조사용	
		평가인증 여부	면접조사용	
		입지 조건	면접조사용	
		변경 횟수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이용 기간, 이용 빈도, 이용 시간	면접조사용	
이용비용		면접조사용		
이용비용 부담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보육비 지원 여부, 이유		면접조사용		
이용 만족도	면접조사용			

대상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비고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기관 외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여부, 수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프로그램 내용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진행 방식, 장소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학습지 이용 여부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참여 횟수, 시간, 이용기간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참여 비용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기관/시설 이용 계획	기관/시설 향후 이용 계획	면접조사용	09년도추가
육아 지원 정책 특성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어머니대상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필요성	어머니대상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어머니대상	
	육아지원 서비스 정책	농어민 지원 수혜 여부	면접조사용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면접조사용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면접조사용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면접조사용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만족도	면접조사용	
재정지원 관련 정책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어머니대상	09년도추가	
	양육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및 적정 지원 금액	어머니대상	09년도추가	

2. 표본 특성

본 보고서의 표본 특성은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이므로, 실제 가중치를 부여한 표본을 분석한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2차년도 일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표본의 주요한 특성은 <표 I-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아 962명, 여아 942명이 2차년도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조사 당시 13개월에서 15개월인 아동이 전체 대상 아동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은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이 88.1% 포함되어 있고, 조부모와 부모, 자녀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도 8% 포함되었다.

분석 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17만원이며 가구지출은 277여만원이다. 금융자산은 평균 약 3천 363만원, 부동산은 약 2억 2천 831만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채

는 3천 868만원에 월평균 상환액은 약 25만원으로 응답되었다.

〈표 1-1-5〉 표본 특성

단위: 명, %, 만원

구분		빈도	비율		
아동성별	남자	962	50.5		
	여자	942	49.5		
	계	1904	100.0		
2차 조사 시 아동 월령	11개월	3	0.2		
	12개월	121	6.4		
	13개월	447	23.5		
	14개월	701	36.8		
	15개월	471	24.7		
	16개월	133	7.0		
	17개월	24	1.3		
	18개월	4	0.2		
	계	1904	100.0		
가구형태	부부+자녀	1678	88.1		
	조부모+부부+자녀	152	8.0		
	부부+자녀+친척	25	1.3		
	조부모+부부+자녀+친척	45	2.4		
	기타	4	0.2		
	계	1904	100.0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가구소득	1893	416.98	624.91	300	
가구지출	1883	277.27	288.53	200	
자산	금융자산	1772	3363.08	14898.73	1000
	부동산	1839	22831.19	62091.54	9000
부채	총액	1836	3868.13	12944.34	500
	월 상환금	1847	24.53	66.16	24.53

Ⅱ. 2차년도 기초분석2)3)

1. 일반적 특성

가. 아동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 51.5%, 여아 48.5%이며, 첫째아와 둘째아가 각각 47.6%, 41.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셋째아도 9.8%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월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14개월 36.3%, 13개월 24.4%, 15개월 23.4%의 순이다.

〈표 II-1-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성별	남자	연령	11개월
	여자		12개월
	계		13개월
출생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14개월	36.3
		15개월	23.4
		16개월	6.7
		17개월	1.3
		18개월	0.2
		-	-
	계	계	100.0

- 2) 기초분석 중 비율은 모두 사례별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통계적 차이 검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임.
- 3) 기초분석에 사용한 조사 자료는 2011년도에 공개되며, 학술대회 및 에디팅 작업 후에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아동의 건강 특성

가) 체중, 신장, 두위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항목은 체중, 신장, 두위의 신체적 특성과 사고, 질병 등 병력 관련 사항이며 예방접종과 모유수유 여부를 어머니의 취업 여부, 출생 순위, 지역규모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I-1-2〉 체중

단위: kg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10.12	10.24	10.06	10.09	10.14	10.08	10.12	10.12
표준편차	1.12	1.09	1.13	3.88	4.40	1.14	1.11	1.08
<i>t / F</i>		3.12**		-0.37		0.70		

***p*<.01.

〈표 II-1-3〉 키

단위: cm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77.23	77.84	76.95	77.24	77.22	77.21	77.03	77.74
표준편차	4.12	4.07	4.13	3.88	4.40	4.14	3.84	4.64
<i>t / F</i>		3.27**		0.73		1.27		

***p*<.01.

〈표 II-1-4〉 두위

단위: cm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46.02	46.34	45.87	45.96	46.10	45.96	46.03	46.12
표준편차	1.63	1.65	1.60	1.60	1.69	1.60	1.68	1.62
<i>t / F</i>		2.52*		-0.6		0.82		

**p*<.05.

구분 (횟수)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소아 마비	0	0.8	1.4	0.5	1.0	0.6	1.1	0.7	-
	1	2.2	3.5	1.7	2.5	1.9	2.5	2.2	1.7
	2	2.4	3.9	1.8	2.1	2.7	1.5	3.2	2.9
	3	94.6	91.2	96.0	94.4	94.9	94.9	94.0	9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응답자 특성별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접종 횟수에 차이가 있었다. 결핵을 제외한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예방 접종에 대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예방지침에 맞추어 접종한 비율이 낮았다.

다) 건강상태

(1)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및 병력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경험 여부 및 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아동의 16.4%가 치료 경험이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가 18.9%로 둘째 이상인 자녀보다 14.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고/중독 횟수는 1.41건이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6〉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있음	16.4	15.6	16.9	18.9	14.1	15.6	16.1	19.1
없음	83.6	84.4	83.1	81.1	85.9	84.4	83.9	8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03		10.20**		4.00		

** $p < .01$.

〈표 II-1-7〉 사고/중독 건수

단위: 건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1.41	1.45	1.39	1.33	1.51	1.45	1.45	1.25
표준편차	0.81	0.99	0.72	0.70	0.92	0.82	0.89	0.54
t / F		0.79		-1.40		0.99		

또한 전체 아동의 21.8%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횟수는 평균 1.33회이며 입원기간은 평균 9.23일로 조사되었다. 입원 경험 여부 및 입원 횟수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있음	21.8	21.6	22.0	20.2	23.3	21.9	20.3	24.9
없음	78.2	78.4	78.0	79.8	76.7	78.1	79.7	7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31		1.91		1.66		

〈표 II-1-9〉 입원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1.33	1.25	1.37	1.26	1.39	1.35	1.30	1.34
표준편차	0.72	0.60	0.77	0.59	0.81	0.79	0.70	0.60
t / F		-1.57		-1.76		0.48		

〈표 II-1-10〉 입원 기간

단위: 일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평균	9.23	8.71	9.35	9.11	9.33	9.12	8.84	10.22
표준편차	10.15	9.24	10.31	10.72	9.63	9.06	9.82	12.80
<i>t / F</i>		-0.35		0.02		0.23		

조사일을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통원 치료 횟수는 평균 0.81건이며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가 1.02건으로 첫째 자녀 0.73건보다 많았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0.94건), 읍면지역(0.9건), 대도시(0.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11〉 최근 2주간 통원 치료 횟수

단위: 건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평균	0.81	0.91	0.87	0.73	1.02	0.81	0.94	0.90
표준편차	1.41	1.43	1.52	1.30	1.63	1.33	1.64	1.48
<i>t / F</i>		0.73		-3.50 ^{***}		3.70 [*]		

^{***} $p < .001$.

(2) 모유 수유

1차년도 조사 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했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시점시 모유 수유 여부 및 중단 시기, 중단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⁴⁾.

1차년도 조사에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한 62%의 가구 중 42.8%가 현재까지 모유 수유 중이었으며,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인 경우에 비해 수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단, 1차년도 조사 시 이미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체 아동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표 II-1-12〉 모유 수유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모유수유 중	42.8	32.8	46.3	36.6	48.5	44.5	42.5	39.5
모유수유 안함	57.2	67.2	53.7	63.4	51.5	55.5	57.5	6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6.89***		18.46***		0.21		

*** $p < .001$.

모유 수유를 중단한 경우, 모유 수유 중단 시기는 평균 9.83개월이며 비취업모가 10.12개월로 9.16개월로 응답된 취업모에 비해 보다 오래 모유 수유를 한다.

〈표 II-1-13〉 모유 수유 중단 시기

단위: 개월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9.83	9.16	10.12	9.77	9.89	9.81	9.78	9.97
표준편차	3.11	3.17	3.04	3.13	3.08	3.00	3.06	3.43
t / F		-4.28***		0.16		1.26		

*** $p < .001$.

모유 수유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젖이 나오질 않아서'라는 응답은 23.9%로 응답되었다.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시간 수유가 어려워'라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모집단 특성별로는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취업모, 비취업모에게서 각각 35.7%,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모는 낮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31.9%로 2순위로 나타난 반면, 비취업모는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위별로는 '젖이 나오지 않아서' 중단하였다는 응답이 둘째 자녀 이상 어머니에게 29.5%로 응답된 반면, 첫째 자녀의 어머니 18.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14〉 모유 수유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젖이 나오질 않아서	23.9	20.6	25.4	18.9	29.5	20.7	25.2	28.2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44.8	35.7	48.8	45.2	44.4	47.0	44.0	41.9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2.1	1.7	2.2	2.0	2.2	2.0	2.9	0.6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10.0	31.9	0.5	11.4	8.4	13.5	7.8	6.8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6.5	4.6	7.3	6.0	7.0	5.0	6.5	9.8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4.7	0.7	6.5	5.0	4.5	5.0	4.6	4.5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3.9	2.2	4.6	6.9	0.5	2.8	4.4	5.4
저절로	0.8	0.6	0.9	1.0	0.5	0.6	0.9	1.1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2.1	1.4	2.5	2.3	2.0	2.8	1.6	1.8
기타	1.1	0.6	1.4	1.3	1.0	0.7	2.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na		33.47***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1$.

1차년도에 모유수유를 중단한 이유로 가장 많았던 '젖이 나오질 않아서'라는 이유는, 2차년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는데, 산후 초기에 모유수유에 성공한 경우에는, 그 이후 모유수유 중단의 이유가 젖의 양이 아니라 이유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년도와 달리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젖을 떼는 경우가 3.9%를 차지하여 모유수유 중단의 이유에 대해 형제 변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나. 부모특성

1) 인구학적 특성

2008년 4월에서 7월 사이 전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의 경우 평균 32.91세, 아버지는 35.36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상태는 98.9%가 초혼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으며, 재혼 0.7%, 이혼 0.2%, 미혼 0.1%, 별거 0.1%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평균 4.92년이며 최단 1년 이내부터 최장 22.33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한편 부모의 결혼 상태를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유배우 상태가 99.8%, 별거 0.1%, 미혼 0.1%로 2차년도 조사와 유사하나, 1차년도 조사에서 이혼 상태가

없었던 반면,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이혼 중인 사례가 0.2%로 일부 가정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5〉 부모 연령

단위: 세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어머니	32.91	3.65	21	48
아버지	35.36	4.00	20	52

〈표 II-1-16〉 결혼 상태

단위: %

구분	유배우		별거	이혼	사별	미혼	계
	초혼	재혼					
전체	98.9	0.7	0.1	0.2	0.0	0.1	100.0

〈표 II-1-17〉 결혼기간

단위: 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4.92	3.12	0.17	22.33

주: 초혼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함.

부모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어머니 99.5%, 아버지 99.7%로 대다수이며, 이 중 어머니 3.0%, 아버지 2.2%는 외국 국적 소유자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8〉 부모 국적 및 귀화 여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국적			귀화 여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99.5	99.7	귀화함	3.0	2.2
외국 국적 소지자	0.5	0.3	귀화하지 않음	97.0	97.8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주: 귀화 및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한국어가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응답 사례수가 소수이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종교가 있는 어머니는 53.0%였으며, 아버지는 43.6%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종교를 믿는지 조사한 결과 개신교가 어머니 41.8%, 아버지 49.5%로 가장 많고 불교는 어머니 34.3%, 아버지 29.3%로 다음으로 많았다. 천주교 신자는 어머니 22.1%, 아버지 19.5%였으며, 원불교, 증산교 등 기타 종교를 믿는 부모는 어머니 1.9%, 1.7%에 불과하다.

〈표 II-1-19〉 부모 종교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종교 유무		
있음	53.0	43.6
없음	47.0	56.4
계	100.0	100.0
종교		
불교	34.3	29.3
기독교(개신교)	41.8	49.5
기독교(천주교)	22.1	19.5
유교	0.6	0.4
원불교	0.3	0.2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0.3	0.3
천도교	0.4	0.2
기타	0.3	0.6
계	100.0	100.0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지 동거 여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어머니 2.5%, 아버지 4.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유는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본인이 타 지역에 근무 중인 경우가 97.3%로 대다수였으며, 자녀를 타지역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도 2.7% 응답되었다.

아버지는 본인이 타지역에 근무 중이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9.5%였으며 학업상의 이유가 4.7%, 군복무자로 인한 비동거도 1.7% 응답되었다. 자녀를 타 지역에 위탁한 경우도 4.1% 있었다.

이는 1차년도 조사 시 어머니 1.6%, 아버지 4.3%와 비교해 봤을 때, 어머니에게서 함께 살지 않는 사례가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산 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동거 사유는 1차년도 조사 당시에는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5% 있었던 반면, 2차년도 조사에서는 해당 사례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생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졸업을 했거나, 학업을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거 역시 3.8%였던 것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응답되지 않아 별거 중인 가정이 이혼 또는 재결합을 했음을 의미한다.

〈표 II-1-20〉 부모의 가족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동거여부				
동거	98.4	95.7	97.5	95.9
비동거	1.6	4.3	2.5	4.1
계	100.0	100.0	100.0	100.0
비동거 사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88.7	91.1	97.3	89.5
학업관계	4.5	-	-	4.7
군복무	na	1.0	na	1.7
장기입원/요양	-	2.8	-	-
별거	3.8	5.0	-	-
계	100.0	100.0	100.0	100.0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부모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인 어머니가 39.2%, 아버지 42.4%로 가장 많으며, 초대졸 이상인 자가 어머니 69.7%, 아버지 72.2%로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가 과반수를 상회한다. 최종학력 고졸인 경우는 어머니 29.7%, 아버지 27.2%이며, 고졸 미만의 학력은 부모 모두 1%에 못 미치는 소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초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 비율이 첫째아인 집단에서 더 높았으며,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은 둘째 이상인 자녀 집단에서 더 많다. 특히 고졸인 어머니의 비율은 둘째 이상인 집단에서는 33.5%인데 반해 첫째아인 경우는 25.6%에 불과하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간에도 어머니의 학력 분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대졸 이상 어머니 비율은 각

각 47.3%, 47.9%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31.8%에 불과하며, 반대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비율은 읍면지역은 40.1%인 반면 대도시, 중소도시는 각각 29.4%, 27.1%이다.

〈표 II-1-21〉 어머니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무학	0.1	0.1	-	-	0.1	0.1	0.1	-
초등학교 졸업	0.1	-	-	-	0.1	-	-	0.3
중학교 졸업	0.5	-	0.7	0.2	0.6	0.8	-	0.7
고등학교 졸업	29.7	18.8	35.0	25.6	33.5	28.5	27.0	39.1
대학(2·3년제) 졸업	24.8	24.0	25.3	25.8	23.8	23.2	25.0	28.1
대학교 졸업	39.2	45.9	35.9	41.8	36.9	40.1	42.3	29.6
대학원 졸업(석사)	5.4	10.3	3.1	6.3	4.7	6.8	5.5	1.8
대학원 졸업(박사)	0.3	0.8	-	0.3	0.2	0.4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na		14.64*		42.55***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05$. *** $p<.001$.

아버지의 학력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든 집단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가 가장 많지만, 비취업모 집단에서 고졸자 비율이 31.2%로 취업모 집단 18.8%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졸 이상 학력자는 취업모 집단에서는 61.8%인데 반해 비취업모 집단은 49.2%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4년제 대졸, 대학원 석사, 박사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의 비율이 둘째 이상인 집단에서 약간씩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 비율은 반대로 첫째아인 집단에서 조금 더 높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4년제 대졸자가 44.6%, 45.1%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고졸자가 37.3%로 가장 많다.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 역시 대도시, 중소도시는 11.5%, 12.6%인 반면 읍면지역은 5.4%에 불과하다.

〈표 II-1-24〉 아버지 장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있음	0.5	0.4	0.6	0.3	0.7	0.4	0.3	1.2
없음	99.5	99.6	99.4	99.7	99.3	99.6	99.7	9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na		0.81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표 II-1-25〉 아버지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없음	0.1	0.1	-	0.1		0.1	-	0.2
있음	99.9	99.9	100.0	99.9	100.0	99.9	100.0	9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음주

부모를 대상으로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약 40.9%가 비음주자이고 24.0%는 평소에 술을 마시나 임신과 모유수유 등의 이유로 현재 마시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5.2%는 마시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비음주자의 비율은 41.5%였던 것에 비해 40.9%로 다소 줄었으며, 임신, 수유 등의 이유로 절주하는 경우는 41.5%에서 24.0%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비율은 1차년도 27.1%로 수유가 끝남에 따라 술을 마시는 어머니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취업 여부별로는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취업모 40.2%, 비취업모 32.7%로 취업모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이 둘째 이상인

〈표 II-1-28〉 어머니의 음주 시 주량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1~2잔	54.6	47.9	40.9	51.3	50.8	45.5	52.7	49.1	33.0
3~4잔	28.1	28.9	32.6	27.1	26.0	31.2	29.5	27.1	31.1
5~6잔	11.5	16.0	17.9	14.9	15.4	16.4	11.6	17.2	24.1
7~9잔	2.9	5.2	6.4	4.6	5.8	4.7	3.9	4.6	10.0
10잔 또는 그 이상	2.8	2.1	2.2	2.1	2.0	2.1	2.3	2.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7.32		0.70		14.02		

다음으로 아버지의 음주 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의 78.6%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취업,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술을 마시는 아버지 비율은 79.0%로 2차년도 조사에서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9〉 아버지의 음주 여부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마심	79.0	78.6	81.7	77.1	80.8	76.5	78.5	78.7	78.6
마시지 않음	21.0	21.4	18.6	22.9	19.2	23.5	21.5	21.3	2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12		3.14		1.14		

음주 빈도는 월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50.5%, 주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32.2%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매일 마신다는 응답도 5.5% 나타났다. 집단특성별로는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경향은 비슷하나, 월 2~4회 마신다는 응답이 첫째아인 경우 53.0%로 과반수가 넘었으나, 둘째 이상인 경우는 47.8%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응답은 해당 아동이 둘째 이상인 아버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1-30〉 아버지의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월 1회 이하	11.1	11.8	12.6	11.4	14.1	9.7	13.3	11.3	9.3
월 2~4회	52.0	50.5	51.7	49.9	53.0	47.8	48.7	51.8	51.3
주 2~4회	32.1	32.2	29.9	33.3	28.6	36.0	32.2	31.9	33.8
거의 매일	4.8	5.5	5.8	5.4	4.4	6.6	5.8	5.0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32		12.82**		6.62		

** $p < .01$.

조사대상 아버지의 음주시 주량은 술 종류에 상관없이 10잔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7~9잔 마신다는 응답이 26.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회 음주량이 적을수록 응답값도 적게 나타났다.

〈표 II-1-31〉 아버지의 음주 시 주량

단위: 명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1~2잔	6.4	6.1	5.4	6.4	7.1	5.2	4.8	7.6	6.4
3~4잔	16.8	16.8	14.9	17.7	16.2	17.6	15.2	18.9	16.5
5~6잔	21.0	22.8	23.3	22.6	23.3	22.8	24.1	21.0	25.0
7~9잔	26.9	26.4	27.3	25.9	26.9	25.6	27.5	25.4	24.9
10잔 또는 그 이상	28.8	27.9	29.1	27.4	26.5	28.8	28.5	27.1	2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68		3.06		5.09		

다) 흡연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1%를 제외하고는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자의 42.7%를 제외하고는 니코틴 중독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흡연 여부는 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 조사에서는 임신, 모유수유로 금연하고 있는 어머니가 1.9%

응답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해당 사례가 응답되지 않았다.

〈표 II-1-32〉 어머니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피움	0.7	1.0	1.5	0.8	0.9	1.1	0.6	0.6	2.7
피우지 않음	97.3	99.0	98.5	99.2	99.1	98.9	99.4	99.4	97.3
임신, 모유수유로 피우지 않음	1.9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77		0.18		12.58**		

** $p<.01$.

〈표 II-1-33〉 어머니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명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중독 아님(0점)	4.4	42.7	26.4	34.1	42.7	26.4	54.1	19.7	37.4
매우 낮은 수준(1~2점)	36.6	14.3	30.7	22.9	14.3	30.7	26.1	20.6	25.8
낮은 수준(3~4점)	40.4	18.6	34.5	27.0	18.6	34.5	11.3	38.3	19.9
중간 수준(5점)	-	7.6	8.4	8.0	7.6	8.4	8.5	7.6	16.9
높은 수준(6~7점)	-	16.9	0.0	8.0	16.9	0.0	0.0	13.8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으로 아버지의 흡연 여부 및 니코틴 중독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52.8%가 흡연자였으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 경우 흡연자의 비율이 54.6%로 첫째아 50.8%에 비해 높았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흡연 비율이 61.0%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흡연 아버지의 약 15.5%는 니코틴에 중독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는 낮은 수준, 29.7%는 매우 낮은 수준의 니코틴 중독 상태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1-34〉 아버지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1차년 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피움	53.5	52.8	52.1	53.3	50.8	54.6	51.5	50.8	61.0
피우지 않음	46.5	47.2	47.9	46.7	49.2	45.4	48.5	49.2	3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69		5.1*		10.44**		

* $p < .05$. ** $p < .01$.

〈표 II-1-35〉 아버지의 니코틴 중독 정도

단위: %, 명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중독 아님(0점)	15.5	15.5	12.4	13.4	15.5	12.4	13.0	13.8	12.9
매우 낮은 수준(1~2점)	31.9	29.7	29.0	29.2	29.7	29.0	31.1	27.2	34.3
낮은 수준(3~4점)	27.9	30.3	32.9	32.0	30.3	32.9	33.0	31.2	27.9
중간 수준(5점)	11.1	7.3	10.3	9.4	7.3	10.3	9.1	9.8	9.5
높은 수준(6~7점)	11.1	14.4	13.2	13.6	14.4	13.2	12.4	14.8	12.7
매우 높은 수준(8~10점)	2.5	2.8	2.2	2.4	2.8	2.2	1.5	3.1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64		4.63		16.71		

3) 아버지 특성

가) 근로특성

아버지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급 가족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안일,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전업주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전체의 98.1%가 일을 하고 있으며 무직 1.3%, 학생 0.3%이며, 집안일, 가사라고 응답한 경우도 0.3% 포함되었다. 모든 응답자 집단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97% 이상이었으며,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1-36〉 아버지 취업/학업 상태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일을 하고 있음	98.1	98.5	97.9	98.6	97.7	97.9	98.5	97.6
학교에 다님(휴학생 포함)	0.3	0.6	0.2	0.3	0.3	0.1	0.5	0.4
집안일, 가사 무직	0.3 1.3	- 0.9	' 1.5	0.5 0.7	0.1 1.9	0.2 1.7	0.3 0.7	0.2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시간제 혹은 가족 사업의 경우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취업으로 제한하였음.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6.3%, 26.2%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13.9%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1-37〉 아버지 직업(대분류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관리자(1)	6.9	4.5	8.0	5.0	8.5	6.0	6.5	9.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26.2	30.1	24.4	25.4	26.7	29.2	27.9	13.9
사무종사자(3)	26.3	31.7	23.9	29.6	23.6	27.9	26.3	23.2
서비스종사자(4)	4.8	6.2	4.1	4.3	5.2	4.5	4.7	5.6
판매종사자(5)	7.5	8.2	7.1	7.3	7.6	7.9	7.0	7.2
농업어업숙련종사자(6)	1.0	0.2	1.3	1.0	0.9	0.6	0.3	3.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7)	13.9	10.5	15.4	13.5	14.4	12.4	16.4	1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8)	9.8	5.2	12.0	9.9	9.9	8.7	7.6	18.3
단순노무종사자(9)	2.1	1.6	2.3	2.2	2.0	2.2	1.4	3.7
군인(A)	1.6	1.8	1.5	1.8	1.4	0.8	1.8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52.65***		10.35		85.39***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소분류(3자리)까지 작업하였으나, 기초 분석에서는 대분류만 제시함.

*** $p < .001$.

아버지의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83.6%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자/자영업자 10.3%, 비정규직 종사자는 임시직, 일용직 각각 3.5%, 2.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 역시 어머니 취업여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경향은 비슷하나 정규직/상용직인 아버지가 취업모 집단에서 조금 더 많았으며, 비정규직 임시직, 비정규직 일용직, 고용자/자영업자는 비취업모 집단에서 조금 더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 정규직/상용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고용주/자영업자는 적었다. 비정규직 임시직은 읍면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반면 일용직은 대도시에 더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8〉 아버지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정규직/상용직	83.6	86.6	82.2	84.4	82.9	83.6	85.1	84.0
비정규직 중 임시직	3.5	3.1	3.6	3.7	3.2	3.4	3.4	3.7
비정규직 중 일용직	2.7	1.3	3.3	2.7	2.6	2.6	2.3	1.9
고용주/자영업자	10.3	9.1	10.8	9.2	11.3	10.3	9.2	1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9.13*		1.70		19.75**		

* $p < .05$. ** $p < .01$.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주당 총 근로 또는 학업시간에 할애하는 시간과 출퇴근/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주일에 평균 51.94시간 동안 일 또는 학업을 하고 출퇴근/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1-39〉 아버지 주당 총 근로/학업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51.94	50.74	52.50	51.43	52.40	52.02	51.50	52.73
표준편차	12.03	11.84	12.10	11.64	12.36	11.75	11.40	13.96
t / F		-1.85		-1.11		0.50		

아버지의 근로/학업 시간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출퇴근 또는 등하교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는 6.46시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는 5.31시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지역 3.74시간에 불과하였다.

〈표 II-1-40〉 아버지 출퇴근/등하교 소요시간

단위: 개월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5.54	5.86	5.41	5.31	4.51	6.46	5.31	3.74	
표준편차	4.59	4.69	4.54	5.76	4.65	4.84	4.28	3.99	
t / F		1.59		-0.88			21.64***		

*** p<.001.

나) 자녀양육 참여

다음으로 아버지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평균 3.64점이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남편이 자녀양육에 협조를 더 잘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첫째아인 경우 양육에 보다 더 협조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시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1〉 아버지 자녀양육 협조(어머니 응답)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60	3.64	3.72	3.60	3.74	3.55	3.68	3.62	3.59
표준편차	0.80	0.88	0.90	0.87	0.89	0.86	0.87	0.86	0.92
t / F		3.14**		4.74***		2.90			

주: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p<.01. *** p<.001.

한편 1차년도 조사시에는 평균 3.60점으로 생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6개월간의 취업상태에 따라 취업 중⁵⁾, 학업 중, 미취업/미학업 중인 어머니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선 현재의 취업/학업 상태를 보면 미취업/미학업 중인 어머니가 전체의 68.4%로 절반이 넘는 수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취업 중인 어머니는 31.3%, 학업 중인 어머니는 0.2%에 불과하였다. 해당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 미취업/미학업 중인 어머니가 더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다.

〈표 II-1-42〉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1차년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중	29.2	31.3	34.2	28.8	32.8	31.1	28.1
학업 중	0.8	0.2	0.4	0.1	0.3	0.2	0.2
미취업/미학업	70.0	68.4	65.4	71.1	66.9	68.7	7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차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 중 29.2%, 학업 중 0.8%, 미취업/미학업 중 70.0%로, 취업 중인 어머니는 다소 증가한 데 반해 학업 중이거나 미취업/미학업 상태는 다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모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44.2%로 가장 많으며 사무종사자 30.0%, 판매종사자 20.5%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사자는 4.4%, 단순노무종사자도 0.8% 응답되었다.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관리자가 3.4% 있었던 것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도 작년도 조사에서 1.3%, 1.4% 응답되었는데 2차년도 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5) 1주일에 18시간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함.

않았으나, 아동이 둘째 이상인 어머니에게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51.7%로 가장 많았으나, 첫째아인 어머니에게서는 판매종사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표 II-1-43〉 어머니 직업(대분류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	44.2	33.6	51.7	34.2	42.6	86.9
사무종사자(3)	30.0	26.2	32.7	36.0	29.1	13.1
서비스종사자(4)	4.4	4.5	4.4	8.4	2.3	-
판매종사자(5)	20.5	35.7	9.8	19.3	26.0	-
단순노무종사자(9)	0.8	-	1.4	2.1	0.0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판을 기준으로 소분류(3자리)까지 작업하였으나, 기초분석에서는 대분류만 제시함.

취업 중인 어머니는 정규직/상용직이 80.7%로 대다수였으며, 비정규직 중 임시직, 고용주/자영업자가 각각 7.4%, 일용직 2.4%, 무급 가족종사자 2.1%로 나타났다.

〈표 II-1-44〉 어머니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정규직/상용직	80.7	84.6	76.6	83.1	79.0	77.9
비정규직 중 임시직	7.4	4.8	10.2	6.7	8.2	7.7
비정규직 중 일용직	2.4	1.6	3.2	2.6	1.4	4.1
고용주/자영업자	7.4	7.0	7.8	6.4	9.5	5.1
무급 가족종사자	2.1	2.0	2.2	1.2	1.9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9.52*		12.31		

* $p < .05$.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정규직/상용직이 두 집단에서 가장 많지만, 첫째아인 경우에 조금 더 많고, 둘째 이상의 어머니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10.2%인데 비해, 첫째아인 경우에는 4.8%에 불과하다.

가) 취업 중인 어머니

(1) 근로특성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현재의 직업 상태는 출산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가 72.4%로 가장 많았다.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어머니도 15.3%이며, 현재 휴직 중인 어머니도 12.3%로 응답되었다.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지만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는 휴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 16.0%인 반면, 읍면지역은 3.1%에 불과했다. 대도시에서는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는 응답이 11.4%로 가장 적은 반면, 중소도시, 읍면지역은 19.2%, 17.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1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휴직 중인 비율은 28.8%에서 12.3%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한 사례는 68.1%에서 72.4%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는 3.1%에서 15.3%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45〉 현재 직업 상태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휴직 중	28.8	12.3	13.5	11.0	12.2	16.0	3.1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68.1	72.4	74.0	70.6	76.4	64.8	79.4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	3.1	15.3	12.5	18.4	11.4	19.2	1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82		11.38*		

* $p < .05$.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어머니의 출산 후 일에 복귀한 시점은 5.55개월이었다. 첫째아인 경우 조금 5.69개월로 5.41개월로 응답된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조금 더 길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의 복귀 시기가 조금 더 늦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1-46〉 어머니 복귀/취업시기

단위: 개월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5.55	5.69	5.41	5.16	5.80	6.09
표준편차	3.80	3.75	3.84	3.44	4.03	4.09
t / F		0.69		2.73		

주당 총 근로시간은 42.17시간으로 아버지의 근로시간 51.94시간(표 II-1-39 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출퇴근에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4.75시간이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가 5.66시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 4.57시간, 읍면지역 2.62시간 순이었다.

〈표 II-1-47〉 어머니 주당 총 근로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42.17	42.34	42.00	42.65	41.00	43.47
표준편차	11.99	11.73	12.26	11.50	11.79	13.44
t / F		0.82		1.94		

〈표 II-1-48〉 어머니 출/퇴근 소요시간

단위: 개월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4.75	4.95	4.53	5.66	4.57	2.62
표준편차	5.94	3.94	7.47	7.76	3.81	2.63
t / F		0.36		4.78**		

** $p < .01$.

복귀 또는 새로운 직장에 신규 취업한 어머니의 향후 취업계획은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일을 그만 둘 계획이라는 응답이 1.7%, 이직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1.5% 나타났다. 출생순위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첫째인 경우에 계속 근무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둘째 이상인 어머니에 비해 적은 반면 이직 또는 그만 둘 것이라는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II-1-49〉 향후 취업계획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96.1	94.4	97.9	97.0	96.2	93.3
이직할 계획임	1.5	2.1	0.9	1.1	1.2	3.2
일을 그만 둘 계획임	1.7	2.7	0.6	1.8	0.9	2.8
기타	0.8	0.9	0.6	0.0	1.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을 계획하는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고,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가 26.4%가 다음 순이었다. 또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8.8%,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다는 응답이 7.7%로 대리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수 응답되었다.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22.2%로 아이가 아닌 어머니 자신에 의한 퇴직이나 이직 의사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이라는 응답도 3.1%로 나타나, 여성이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차년도 조사에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17.9%에 불과했는데 2차년도 조사에서는 27.1%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1차년도 조사에서 24.6%였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7.7%로 현격히 줄었으며, 아이 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은 1차년도 29.3%, 1차년도 26.4%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후 1년이 지나면서 대리양육에 드는 비용 등의 문제는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보수에 적절한 대리양육을 찾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나, 직장생활과 아이양육의 병행 문제나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휴직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복귀 계획이 있는 어머니의 복귀 예상 시점은 평균 19.3개월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52〉 복귀 계획 시기

단위: 개월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9.30	19.80	18.57	19.75	18.49	25.32
표준편차	3.80	5.69	5.41	4.47	5.25	8.88
t / F		0.53		2.43		

(2) 직업만족도

취업 중인 어머니 중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는 3.47점에서 3.86점, 비임금근로자는 3.37점에서 3.80점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 임금 또는 소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임금근로자는 업무내용,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취업의 안정성에서 3.80점 이상을 준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만이 3.80점 이상이였다.

자녀의 출생순위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모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어머니가 첫째인 경우보다 복리후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다.

〈표 II-1-53〉 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항목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임금 또는 소득	평균	3.47	3.43	3.52	-1.16	3.55	3.38	3.49	0.97
	표준편차	0.81	0.78	0.84		0.78	0.87	0.72	
취업의 안정성	평균	3.84	3.82	3.85	-1.14	3.79	3.89	3.88	0.83
	표준편차	0.71	0.65	0.77		0.71	0.71	0.70	
업무내용	평균	3.86	3.82	3.91	-1.92	3.87	3.84	3.89	0.03
	표준편차	0.66	0.65	0.67		0.66	0.68	0.61	

항목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이상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근로환경	평균	3.77	3.75	3.79	-0.94	3.79	3.74	3.79	0.04
	표준편차	0.74	0.75	0.73		0.74	0.76	0.70	
근로시간	평균	3.74	3.69	3.79	-1.73	3.78	3.63	3.88	1.67
	표준편차	0.79	0.81	0.77		0.76	0.82	0.78	
개인의 발전가능성	평균	3.58	3.56	3.61	-0.48	3.58	3.55	3.68	0.20
	표준편차	0.80	0.78	0.83		0.74	0.83	0.90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평균	3.85	3.83	3.88	-0.97	3.85	3.83	3.92	0.14
	표준편차	0.62	0.63	0.61		0.61	0.63	0.64	
인사고과의 공정성	평균	3.59	3.58	3.61	-0.45	3.61	3.57	3.59	0.12
	표준편차	0.79	0.80	0.79		0.80	0.80	0.75	
복리후생	평균	3.50	3.54	3.45	1.42	3.52	3.45	3.52	0.30
	표준편차	0.89	0.87	0.92		0.91	0.87	0.87	

〈표 II-1-54〉 비임금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항목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이상	t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임금 또는 소득	평균	3.37	3.39	3.35	-0.18	3.44	3.39	3.19	0.37
	표준편차	0.90	0.91	0.89		0.90	0.86	0.97	
취업의 안정성	평균	3.58	3.55	3.61	-0.29	3.53	3.77	3.25	1.42
	표준편차	0.87	0.94	0.81		0.88	0.78	0.94	
업무내용	평균	3.64	3.68	3.61	0.27	3.58	3.97	3.00	3.77
	표준편차	0.89	0.98	0.82		0.81	0.73	1.03	
근로환경	평균	3.58	3.70	3.47	0.45	3.49	3.85	3.12	0.45
	표준편차	1.05	0.92	1.13		1.07	0.90	1.12	
근로시간	평균	3.41	3.64	3.22	1.23	3.35	3.69	2.87	2.16
	표준편차	1.07	1.00	1.10		1.02	0.96	1.20	
개인의 발전가능성	평균	3.52	3.71	3.37	1.84	3.49	3.86	2.80	3.23
	표준편차	1.00	1.08	0.90		0.87	0.74	1.3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평균	3.80	4.00	3.64	1.65	3.83	3.90	3.50	0.47
	표준편차	0.84	0.76	0.86		0.72	0.76	1.13	

〈표 II-1-55〉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단위: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평균	3.63	3.60	3.67	3.66	3.62	3.60
표준편차	0.63	0.63	0.62	0.61	0.64	0.65
t / F		-1.43		0.06		

나) 학업 중인 어머니

학업 중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현재의 학업 상태, 학업에 소요하는 시간, 등하교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업 중인 어머니의 현재 학업 상태는 재학 중이 92.4%로 대다수의 어머니가 학업에 복귀한 것을 나타냈다. 출산 후 학업으로의 복귀 시점은 1.7개월로 나타났으며, 주당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26.72시간이며, 등하교에 소요하는 시간은 주당 12.55시간으로 응답되었다.

1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재학 중인 어머니는 38.4%였던 것에 반해 2차년도 조사에서는 92.4%의 어머니가 재학 중인 것으로 응답되어 출산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학업으로 복귀한 것을 알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주당 학업 소요 시간 역시 1차년도 11.1시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순수 학업에 소요하는 시간만 26.72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1-56〉 어머니 학업 상태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재학 중	38.4	92.4	89.6	100.0	85.2	100.0	100.0
휴학 중	61.6	7.6	10.4	-	14.8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본 문항에 해당하는 응답표본이 소수이므로(n=7)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려움.
2) 휴학 중에 해당하는 응답수는 1로 사유는 임신임.

〈표 II-1-57〉 어머니 주당 총 학업 및 등하교 소요 시간

단위: 시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학업소요시간(등하교 포함)	학업 소요 시간	등하교 소요 시간
평균	11.1	26.72	12.55
표준편차	11.3	10.91	7.88
최소값	2	5	5
최대값	50	40	25

다) 미취업/미학업 어머니 특성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 중 45.2%는 결혼 후 현재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29.1%는 대상 아동 임신 중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전에 그만 둔 경우도 20.2%였으며 출산 후에 그만 둔 경우는 5.5%로 나타났다.

직장 또는 학업 중단 시기는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상 아동이 첫째인 경우에 임신 전, 즉 첫째아이의 임신 중에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32.3%로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둘째 이상인 어머니는 대상 아동 임신 전, 즉 둘째 이상인 자녀를 임신 전에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35.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에서 결혼 후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58〉 직장 또는 학업 중단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결혼 후 지금까지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45.2	38.1	51.0	44.6	41.6	54.6
대상 아동 임신 전에 그만 둔	29.1	22.0	35.0	29.8	31.1	23.0
대상 아동 임신 중에 그만 둔	20.2	32.3	10.1	18.6	22.4	19.2
대상 아동 출산 후에 그만 둔	5.5	7.5	3.8	7.0	4.8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7.2***		17.65**		

** $p < .01$. *** $p < .001$.

대상 아동 출산 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다 그만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시기를 조사한 결과 아동 생후 8.1개월로 나타났으며 첫째아가 조금 더 길고, 읍면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길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59〉 출산 후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시기

단위: 개월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8.10	8.55	7.36	7.74	8.00	10.27
표준편차	3.93	3.53	4.42	4.03	4.01	2.01
t / F		0.55		2.06		

또한 당시의 취업 또는 학업 관련 상태는 직장에 복귀한 뒤였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중이었다는 응답도 26.8%였다.

〈표 II-1-60〉 일 또는 학업 그만 둔 시기의 취업/학업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학업에 복귀	1.2	1.9	0.0	0.0	3.5	0.0
출산휴가 중	6.9	7.4	6.1	10.3	3.7	0.0
육아휴직 중	26.8	29.1	23.0	34.7	19.4	10.0
직장에 복귀	49.3	51.7	45.2	43.1	46.5	90.0
기타	15.8	9.8	25.8	11.9	26.9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상 아동을 출산한 후에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이유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24.0%, 직장/학교생활을 아이 양육과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12.1%로 나타났다.

〈표 II-1-61〉 임신 중/출산 후 그만 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3.6	1.5	6.9	4.8	2.7	0.0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24.0	25.7	21.1	25.4	18.7	33.8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1.0	1.6	0.0	0.0	2.8	0.0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힘들 것 같아서)	12.1	5.8	22.5	7.6	17.1	19.6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46.4	54.3	33.6	51.3	44.4	28.0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3.4	0.0	8.9	2.7	2.4	9.9
건강상의 이유로	1.0	1.5	0.0	0.0	2.8	0.0
직장사정으로	6.9	6.8	7.0	5.1	9.2	8.7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1.8	2.8	0.0	3.2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1-62〉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계획 없음	53.1	52.4	53.7	56.2	49.7	53.1
6개월 이내	3.2	3.2	3.3	2.9	3.8	2.6
6개월~1년 이내	5.1	4.3	5.9	4.7	4.7	7.1
1~2년 이내	10.2	9.2	11.0	8.9	11.3	10.9
2~3년 이내	9.0	7.7	10.1	6.6	11.8	8.7
3~5년 이내	16.3	19.7	13.4	17.1	15.9	15.2
5년 이후	2.2	2.0	2.4	3.1	2.0	0.6
동생 출산 후	0.5	1.0	0.2	0.4	0.5	0.9
기타	0.3	0.5	0.1	0.0	0.3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앞으로의 취업 또는 학업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없다는 의견이 53.1%로 과반을 넘었으며, 3~5년 이내 16.3%, 1~2년 이내 10.2%, 2~3년 이내가 9.0%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응답 경향은 유사하나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41.0%였던 것에 비해 53.1%로 약 12%가량 증가하고 3~5년 이내 22.0%, 1~2년 이내, 2~3

년 이내 각각 13.1%였던 것에 비해 조금씩 감소한 것으로 일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취업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가구 및 가구원 특성

1)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대상 아동을 제외한 가족 구성원 수를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식구 외에도 생계, 교육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따로 사는 아동의 생부와 생모를 포함한다. 단, 비혈연 고용인, 동거자, 혼인으로 독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구구성원 수는 대상 아동을 제외하고 평균 2.82명으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으나 대체로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보다 가구수가 많다.

〈표 II-1-63〉 가구구성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2.82	2.83	2.82	2.81	2.83	2.85
표준편차	0.92	0.92	0.92	0.94	0.88	0.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t / F</i>		-0.01		1.48		

가구원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이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된 3세대가족 7.8%, 조부모와 부부, 자녀와 친척으로 구성된 가족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조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취업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부모가 취업 중인 어머니를 대신해 대리 양육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부부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은 86.7%에서 88.2%로 2차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반대로 조부모 또는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8.9%, 2.1%에서 7.8%, 1.3%로 감소하였다.

〈표 II-1-64〉 가구 구성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부부+자녀	86.7	88.2	81.9	91.2	88.8	87.7	88.7	89.0	85.2
조부모+부부+자녀	8.9	7.8	12.8	5.3	6.9	8.6	6.5	7.4	11.9
부부+자녀+친척	2.1	1.3	0.8	1.6	0.9	1.7	1.4	1.4	1.1
조부모+부부+자녀+친척	2.3	2.7	4.4	1.9	3.1	2.0	3.5	2.2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9.24***		3.64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 $p < .001$.

2) 경제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가구 소득, 부동산 총액, 금융자산, 부채, 지출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1-65〉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409.08	504.16	365.07	414.96	403.79	426.31	412.26	357.11
표준편차	591.39	718.03	520.41	603.09	580.60	641.23	589.44	438.91
중위값	300	400	250	300	300	300	300	260
최소값	50	100	50	80	50	70	60	50
최대값	9000	9000	6000	9000	8000	9000	7000	3500
	t / F	4.78***		1.04		7.05**		

** $p < .01$. *** $p < .001$.

우리나라 1세 영아를 가진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9.08만원이며, 어머니의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취업모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504.16만원으로 비취업모 가구 365.07만원에 비해 약 140만원 정도 높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중소도시는 읍면도시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총액은 평균 약 23087만원으로 응답되었다.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2억 7천여만원인 반면 첫째인 경우는 1억 8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부동산 총액은 2억 5천여만원인 반면 읍면 지역은 그 절반 수준이 1억 2천여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은 평균 3294.03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의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가 첫째인 어머니보다, 중소도시 거주자가 대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평균 금융자산이 많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6〉 금융자산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294.03	3362.87	3245.33	2957.96	3601.72	2914.30	4116.04	2460.48
표준편차	13834.74	5258.50	16397.31	5663.34	18359.69	5954.62	21198.37	5206.88
중위값	1000	2000	1000	1100	1000	1200	1500	100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550000	50000	550000	100000	550000	100000	550000	70000
t / F		-0.25		-1.27		1.08		

〈표 II-1-67〉 소유 부동산 총액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3087.46	24713.29	22392.72	18510.18	27239.97	25141.72	25308.64	12400.53
표준편차	62759.17	70273.91	59290.77	48165.51	73287.46	70449.06	63391.36	29734.73
중위값	10000	10000	9000	8000	10500	10000	10000	500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300000
t / F		0.77		-2.81**		6.34**		

** $p < .01$.

한편 부채는 전체에서 평균 3천 9백여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로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동산 총액이 많았던 둘째 이상인 자녀 집단의 부채가 4천 9백여만원인데 반해 첫째아 집단에 서는 2천 8백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4천 7백만원, 대도시 3천 7백만원, 읍면지역 2천 5백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

〈표 II-1-68〉 부채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909.54	4536.21	3637.08	2784.76	4923.20	3702.20	4723.65	2521.16
표준편차	13016.13	14532.96	12303.74	9163.09	15629.07	12165.09	15772.89	5799.71
중위값	500	1000	0	0	1100	0	1000	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250000	250000	200000	180000	250000	250000	200000	40000
<i>t / F</i>		1.81		-3.04**		3.03*		

* $p < .05$. ** $p < .01$.

월 상환금은 전체적으로 23만원 수준이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취업모의 월상환금은 30만원, 비취업모 20만원 정도로 취업모의 월상환금은 더 많다.

〈표 II-1-69〉 월 상환금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3.36	30.77	19.90	21.42	25.09	22.19	24.58	23.51
표준편차	58.76	57.35	59.30	71.90	43.74	47.08	44.97	100.12
중위값	0	7	0	0	7	0	6	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2000	800	2000	2000	400	800	400	2000
<i>t / F</i>		3.25**		-0.76		0.19		

** $p < .01$.

가구의 지출을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누고, 그 중에서 이동을 위한 지출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가구의 총 소비성 지출은 한달 평균 187.43만원이며 응답자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취업모 219.78만원, 비취업모 172.67만원으로 취업모에게서 더 많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 대도시 201.4만원, 중소도시 188.14만원, 읍면지역 150.08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II-1-70〉 가구 총 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87.43	219.78	172.67	184.94	189.68	201.40	188.14	150.08
표준편차	197.56	199.89	195.72	245.62	140.35	225.45	199.01	75.30
중위값	150	200	150	150	160	170	150	150
최소값	20	30	20	20	30	30	20	30
최대값	3600	3600	3000	3600	3000	3600	2500	800
<i>t / F</i>		4.77***		-0.13		11.81***		

*** $p < .001$.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만을 따로 산정하면 한달 평균 38.5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지출되는 소비성 지출금액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1-71〉 아동 총 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8.51	58.32	29.11	47.33	30.56	40.46	37.24	36.41
표준편차	62.51	83.16	47.35	83.94	30.82	84.01	39.37	35.05
중위값	25	45	20	30	20	25	30	25
최소값	2	3	2	5	2	3	2	5
최대값	1800	1800	1200	1800	300	1800	500	350
<i>t / F</i>		6.73***		5.51***		3.68*		

* $p < .05$. *** $p < .001$.

우선 취업모는 월 평균 58.32만원으로 지출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29.11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아인 경우 47.33만원으로 30.56만원으로 나타난 둘째이상인 집단보다 약 17만원 정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인 경우 대리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며, 둘

째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가 사용하던 물건을 물려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또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세금, 보험 등 비소비성 지출로 평균 88.9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가 취업모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취업모 104.09만원으로 비취업모 81.98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많게 응답되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1-72〉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88.93	104.09	81.98	87.77	89.98	90.27	88.48	86.45
표준편차	107.60	110.87	105.92	122.23	92.42	113.63	79.92	142.10
중위값	70	80	60	60	70	70	70	60
최소값	1	5	1	4	1	1	1	5
최대값	2000	1500	2000	2000	1200	1500	750	2000
<i>t / F</i>		4.21***		0.18		0.21		

*** $p < .001$.

아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소비성 지출은 평균 11.75만원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1-73〉 아동 총 비소비성 지출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1.75	11.50	11.92	12.97	10.64	12.42	11.19	11.32
표준편차	30.18	25.54	32.24	39.36	18.24	40.15	19.95	17.50
중위값	6	6	6	6	5	6	6	6
최소값	0	1	0	1	0	0	1	1
최대값	1200	400	1200	1200	240	1200	400	240
<i>t / F</i>		-0.60		1.69		0.20		

3) 역사적 특성

지난 1년간 가족이 생활하면서 양육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겪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사건을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을 나누어 각각의 사건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규범적 사건의 조사 문항은 불경기로 인한 수입 영향, 병원비, 의식주 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의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이나 빚, 직장 관련 변동, 이사, 자녀의 학교 성적 등 부담이 될 만한 사건 16건에 대해 해당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다.

이러한 규범적 사건은 작년 한 해 동안 평균 3.86건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비취업모 3.96건, 취업모 3.65건으로 비취업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 4.14건으로 3.56건인 첫째아 집단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II-1-74〉 규범적 사건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86	3.65	3.96	3.56	4.14	3.76	3.90	4.05
표준편차	0.67	2.34	2.48	2.41	2.44	2.38	2.49	2.49
<i>t / F</i>		-2.80**		-4.50***		1.11		

** $p < .01$. *** $p < .001$.

비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간 부모 자신 또는 가족이 겪은 사건 중 가족이나 친인척이 심하게 다치거나, 사망 또는 가정폭력, 가출, 구속, 병간호 부담 등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다.

〈표 II-1-75〉 비규범적 사건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0.67	0.57	0.70	0.59	0.74	0.62	0.65	0.83
표준편차	0.99	0.90	1.02	0.91	1.06	0.93	0.99	1.13
<i>t / F</i>		-2.52*		-3.68***		4.70**		

* $p < .05$. ** $p < .01$. *** $p < .001$.

비규범적 사건은 평균 0.67점으로 취업 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비취업모 0.7건으로 취업모 0.57건보다 높고, 둘째자녀 이상인 경우 0.74건으로 첫째 자녀 0.59건보다 높다. 지역규모에 따

라서는 읍면지역이 0.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0.65건, 대도시 0.6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특성

어머니가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원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가 3.92점으로 비취업모 3.86점보다 높아 사회적 지원 가능한 수준에 대해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76〉 사회적 지원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평균	3.9	3.92	3.86	3.9	3.9	3.9	3.9	3.8
	표준편차	0.6	0.62	0.64	0.6	0.6	0.6	0.7	0.7
	t / F		2.57*		0.53		1.25		
정서적 지원	평균	3.9	3.88	3.86	3.9	3.8	3.9	3.9	3.8
	표준편차	0.8	0.78	0.77	0.8	0.8	0.7	0.8	0.8
	t / F		1.36		0.54		1.52		
도구적 지원	평균	3.9	3.98	3.91	3.9	3.9	4.0	3.9	3.8
	표준편차	0.7	0.71	0.70	0.7	0.7	0.7	0.7	0.8
	t / F		2.68**		0.67		3.08*		
여가적 지원	평균	3.9	3.94	3.86	3.9	3.9	3.9	3.9	3.8
	표준편차	0.7	0.66	0.72	0.7	0.7	0.6	0.7	0.8
	t / F		2.70**		0.41		0.99		
정보적 지원	평균	3.8	3.86	3.80	3.8	3.8	3.8	3.8	3.8
	표준편차	0.7	0.73	0.75	0.7	0.8	0.7	0.8	0.7
	t / F		1.97*		0.33		0.06		

*p<.05. **p<.01. ***p<.00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털어놓고 의지하거나 함께 걱정해 주는 등 정서적 지원은 평균 3.9점으로 응답되었으며 응답자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돈이나 물건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적 지원은 전체 3.9점이며, 취업모가 3.98점으로 비취업모 3.91점보다 높고 대도시 지역 거주자 4.0점, 중소도시 3.9점,

읍면지역 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함께 놀러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여가적 지원으로 이것 역시 3.9점으로 다른 사회적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취업 중인 어머니가 3.94점으로 그렇지 않은 어머니 3.86점으로 높다. 자녀 양육, 살림 등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보적 지원에 대해서는 3.8점이었으며 이 역시 취업모 3.86점으로 비취업모 3.80점보다 높았다.

5) 물리적 환경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물리적 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특성과 주택소유형태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40.8%로 응답되어, 대다수가 자가 또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증부 월세 8.1%, 사택과 같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7.0% 응답되었다.

주택 소유형태는 해당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둘째 이상인 경우 자가 비율이 48.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첫째아인 경우에는 전세가 47.1%로 가장 많았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자가인 경우가 각각 42.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전세 43.5%, 자가 43.2%로 전세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77〉 주택 소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가	42.5	41.9	42.5	36.2	48.2	42.5	42.5	43.2
전세	40.8	43.7	39.6	47.1	35.0	40.8	41.4	43.5
전월세(보증부 월세)	8.1	6.0	9.0	7.9	8.2	8.1	7.8	6.6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5	0.2	0.6	0.5	0.5	0.5	0.5	0.3
무상	7.0	6.6	7.3	6.6	7.4	7.0	6.7	5.4
기타	1.2	1.6	1.0	1.7	0.7	1.2	1.0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7.96		29.10***		38.29***		

*** $p < .001$.

한편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있는지에 대해 81.2%가 없다고 답하였고 18.8%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집단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21.4%로 비취업모 17.5%에 비해 많았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20.2%, 대도시 19.7%, 읍면지역 13.0%의 순이다.

〈표 II-1-78〉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있음	18.8	21.4	17.5	17.2	20.2	19.7	20.2	13.0
없음	81.2	78.6	82.5	82.8	79.8	80.3	79.8	8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83**		3.36		6.66*		

* $p < .05$. ** $p < .01$.

현재 거주 중인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71.0%로 가장 많고 연립주택 12.2%, 단독주택 7.4%, 다세대주택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1.7% 응답되었다.

〈표 II-1-79〉 거주 중인 주택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단독주택	7.4	7.7	7.1	6.5	8.2	4.7	6.8	15.6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71.0	71.9	70.6	72.7	69.5	64.1	78.9	70.7
연립주택(빌라포함)	12.2	10.6	13.1	10.7	13.7	18.7	7.1	7.5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6.9	7.1	6.9	8.4	5.6	10.3	4.7	3.6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1.7	1.7	1.7	0.9	2.4	1.5	1.9	1.8
오피스텔	0.6	0.9	0.5	0.7	0.5	0.8	0.5	0.4
기타	0.0	0.0	0.1	0.1	0.0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18		na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6) 사회보장지원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가구의 1.1%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났으며, 차상위계층도 3.9% 존재하였다.

해당 아동이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1.8%로 첫째아 0.4%에 비해 높고, 차상위계층 비율도 둘째 이상인 경우에 6.4%로 첫째아 1.1%에 비해 많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도시 지역 1.5%, 읍면지역 1.4%로 중소도시 0.6%로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차상위계층은 읍면지역 7.4%로 대도시 3.0%, 중소도시 3.3%에 조금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80〉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	1.2	1.1	0.4	1.8	1.5	0.6	1.4
차상위계층	3.9	4.1	3.8	1.1	6.4	3.0	3.3	7.4
해당없음	95.0	94.8	95.0	98.5	91.9	95.5	96.0	9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11		40.99***		16.55**		

** $p < .01$. *** $p < .001$.

라. 지역사회 특성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지역인지에 관해서는 일반아파트지역이 6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주택지역이 25.9%로 전체의 92.3%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조사에서도 일반아파트 지역이 59.5%, 일반주택 지역 32.1%로 대다수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경향은 비슷하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일반아파트지역 거주 비율이 66.4%로 다소 증가한 반면, 일반 주택지역은 25.9%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입지적 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아파트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지만 일반주택지역에 사는 비율이 대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읍면지역이 지

역의 특성상 농어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81〉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반주택지역	32.1	25.9	25.2	26.3	26.2	25.7	37.2	19.1	13.1
일반아파트지역	59.5	66.4	66.3	66.3	66.2	66.5	59.2	75.8	62.9
상가/회사지역	4.2	3.0	4.2	2.4	3.3	2.8	2.1	3.0	5.3
공장(단)지역	1.0	1.0	0.8	1.1	1.2	0.8	0.5	0.8	2.6
농어가지역	2.6	3.3	3.5	3.3	2.9	3.7	0.6	1.0	15.8
학교지역	0.6	0.4	0.0	0.6	0.2	0.6	0.5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9.46		4.00		264.76***		

*** $p < .00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시설과 유치원,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 공공 여가공간이나 시설,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안전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1-82〉 보육시설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충분함	3.5	3.4	2.9	3.6	3.2	3.7	2.5	1.8	9.8
불충분함	15.7	12.9	13.3	12.8	12.3	13.5	11.6	13.3	15.7
보통임	25.4	37.1	39.7	36.0	41.4	33.2	38.8	36.8	33.2
충분함	44.2	36.2	34.5	37.1	34.1	38.1	39.2	34.1	33.3
매우 충분함	11.2	10.3	9.6	10.6	9.1	11.5	7.9	14.0	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56	3.37	3.34	3.38	3.34	3.40	3.38	3.45	3.14
표준편차	1.00	0.95	0.93	0.96	0.92	0.98	0.88	0.95	1.10
t / F			-0.34		-1.66		9.07***		

*** $p < .001$.

우선 보육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많고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2%,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10.3%로 약 46.5%가 충

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16.3%로 상당수 있었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하면 3.3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소도시 3.45점, 대도시 3.38점, 읍면지역 3.14점으로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다. 또한 1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56점이었던 것에 비해 3.37점으로 다소 올라 보육시설이 충분한 곳으로 이 사하였거나, 어머니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유치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이 30.2%,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30.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23.5%로 30%가 넘는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2.98점이었으며 이는 1차년도 2.73점에 비해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도시, 중소도시 평균점수는 3.04점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2.69점에 불과하다.

〈표 II-1-83〉 유치원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충분함	4.4	7.1	5.1	7.9	6.8	7.3	5.4	4.9	16.5
불충분함	19.5	23.2	23.5	23.1	22.8	23.6	21.6	23.7	26.3
보통임	29.4	39.5	43.0	38.2	42.3	37.0	40.7	40.7	33.7
충분함	38.4	24.8	24.0	25.1	23.0	26.5	27.7	24.1	18.9
매우 충분함	8.3	5.4	4.3	5.7	5.1	5.6	4.6	6.6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3	2.98	2.99	2.98	2.97	3.00	3.04	3.04	2.69
표준편차	1.01	0.99	0.92	1.01	0.97	1.01	0.94	0.97	1.09
<i>t / F</i>			0.56		-1.13		14.86 ^{***}		

^{***}*p*<.001.

다음으로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의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 물었다. 사교육기관 역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9.2%로 가장 많았으며, 충분하다는 의견과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각각 30%, 30.9%로 나타났다.

충분도에 대한 점수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비교를 하면, 평균 2.98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불충분한 수준이나 1차년도 2.74점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다. 보육 시설, 유치원 충분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읍면 지역에서 2.4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1-84〉 사교육기관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충분함	4.2	7.0	5.2	7.8	5.9	8.0	4.9	4.3	18.7
불충분함	35.6	23.9	23.8	23.9	24.0	23.7	20.9	24.1	30.9
보통임	28.6	39.2	42.3	38.0	40.6	38.0	41.6	38.5	35.0
충분함	21.6	24.4	23.6	24.8	24.6	24.1	27.7	25.5	13.4
매우 충분함	10.0	5.6	5.1	5.6	5.0	6.1	5.0	7.7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4	2.98	3.00	2.96	2.99	2.97	3.07	3.08	2.49
표준편차	1.04	0.99	0.94	1.01	0.96	1.02	0.94	0.98	1.01
<i>t / F</i>			1.84		0.22		47.36***		

*** $p < .001$.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는 편리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많았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28.4%, 불편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포함하여 29.3%로 나타났다.

〈표 II-1-85〉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편함	5.9	7.3	5.0	8.3	6.6	7.8	7.0	4.3	14.6
불편한 편임	23.6	22.0	21.3	22.5	22.9	21.2	20.8	18.9	32.5
보통임	23.3	28.4	28.4	28.5	27.4	29.3	27.7	28.7	29.6
편리한 편임	37.3	34.6	37.6	33.2	35.5	33.8	36.6	39.3	18.7
매우 편리함	9.9	7.7	7.7	7.5	7.6	7.7	7.9	8.7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8	3.13	3.22	3.09	3.14	3.12	3.18	3.29	2.66
표준편차	1.10	1.07	1.02	1.09	1.06	1.08	1.07	1.01	1.08
<i>t / F</i>			2.64		-0.36		42.48***		

*** $p < .001$.

5점 척도로 점수화했을 때에는 전체 3.13점이었으며, 1차년도 2.78점에 비해 높아졌다.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3.29점, 대도시 3.19점, 읍면지역 2.66점으로 읍면지역에 보육시설, 유치원, 사교육 시설에 이어 공공시설도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은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42.9%,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이 37%로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표 II-1-86〉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편함	16.7	18.6	15.9	20.0	18.1	19.1	15.1	14.5	37.0
불편한 편임	39.4	34.8	33.5	35.2	34.2	35.4	34.0	32.1	42.9
보통임	22.1	27.1	28.4	26.8	27.4	26.7	29.8	29.2	15.2
편리한 편임	17.6	17.2	19.4	16.1	18.1	16.3	18.9	20.9	4.3
매우 편리함	4.3	2.3	2.8	2.0	2.1	2.5	2.2	3.3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7	2.50	2.60	2.45	2.52	2.48	2.59	2.66	1.88
표준편차	1.10	1.05	1.06	1.04	1.05	1.05	1.03	1.06	0.86
<i>t / F</i>			2.82		0.14		63.40 ^{***}		

^{***} $p < .001$.

이와 같은 현상은 점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전체 평점 2.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1차년도 조사에서 3.47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소도시가 2.66점으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은 1.88점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지에 대한 결과는 우선 치안안전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고 안전하다는 의견은 40% 정도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치안안전성 3.2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고,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은 3.09점으로 대도시 3.31점, 중소도시 3.29점으로 낮다.

〈표 II-1-87〉 치안 안전성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위험함	1.9	2.2	1.9	2.4	2.0	2.5	1.6	2.5	3.4
비교적 위험함	15.9	12.1	11.6	12.2	13.0	11.3	11.1	11.7	15.6
보통임	32.2	45.7	41.0	48.0	46.0	45.4	45.5	43.8	50.6
비교적 안전함	45.4	37.1	41.0	35.4	36.0	38.1	38.8	38.6	28.9
매우 안전함	4.6	2.9	4.5	2.1	3.1	2.8	3.1	3.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5	3.26	3.34	3.23	3.25	3.27	3.31	3.29	3.09
표준편차	0.67	0.79	0.81	0.78	0.79	0.79	0.77	0.81	0.80
<i>t / F</i>			3.41		-1.09		5.84**		

***p*<.01.

거주지역이 안전사고 측면에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3%가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한 편이라는 의견이 33.7%로 나타났다. 비교적 위험하거나 위험하다는 응답도 21.4%로 상당수의 어머니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어머니의 취업, 출생 순위,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 지역의 순서대로 안전성 점수가 높다.

〈표 II-1-88〉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위험함	3.1	1.9	1.9	2.0	2.2	1.7	1.4	2.0	3.3
비교적 위험함	23.2	19.5	19.4	19.5	19.8	19.2	20.8	17.4	21.2
보통임	32.7	43.0	39.4	44.9	42.2	43.7	43.5	41.5	44.9
비교적 안전함	37.4	33.7	37.6	31.8	34.0	33.4	32.5	36.7	29.8
매우 안전함	3.6	1.9	1.7	1.8	1.9	1.9	1.8	2.4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5	3.14	3.18	3.12	3.14	3.15	3.13	3.20	3.04
표준편차	0.92	0.82	0.83	0.81	0.83	0.81	0.80	0.82	0.82
<i>t / F</i>			1.45		-0.50		2.07		

각 항목별 만족도 외에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47.1%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5.7%,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7.3%이다.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결과 평균 3.2점이었으며, 1차년도 2.85점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3.3점, 대도시 3.2점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2.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1-89〉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

단위: %,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매우 좋지 않음	2.4	2.3	1.5	2.6	2.2	2.3	1.6	2.5	3.4
좋지 않음	16.6	15.0	15.1	14.9	16.3	13.8	15.2	12.5	20.2
보통임	42.4	47.1	46.0	47.8	47.4	46.8	47.7	42.9	54.9
좋음	33.9	31.8	32.6	31.4	30.5	33.0	32.4	37.1	18.3
매우 좋음	4.7	3.9	4.8	3.3	3.5	4.1	3.1	5.0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8	3.20	3.24	3.18	3.17	3.23	3.20	3.30	2.98
표준편차	0.86	0.82	0.82	0.82	0.82	0.82	0.79	0.84	0.81
<i>t / F</i>			1.95		-1.93		13.38***		

*** $p < .001$.

지역사회 양육 관련 특성 각각에 대해 1차년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문화시설 편리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 조사에서 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소 문화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기 안전하고 대리양육이 편리한 환경으로 이사를 한 가구가 상당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 위탁가구

1) 위탁여부

취업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경우에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탁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아동이 부모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해당되었으며 1차년도 2.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우선 취업모의 경우 위탁한 경우가 7.9%인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는 0.1%에 불과하였다⁶⁾.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첫째인 경우는 3.5%가 위탁가구에 맡겨진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는 1.7%에 불과하다. 이는 후속 자녀 출산이 위탁의 하나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에서 3.3%인 반면, 중소도시 2.0%, 읍면지역은 1.8%이다.

〈표 II-1-90〉 위탁여부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위탁	2.1	2.5	7.9	0.1	3.5	1.7	3.3	2.0	1.8
비위탁	97.9	97.5	92.1	99.9	96.5	98.3	96.7	98.0	9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3.8 ^{***}		10.23 ^{**}		819.92 ^{***}		

** $p < .01$. *** $p < .001$.

한편 작년과 동일한 가구에 이동을 맡긴 경우는 37.3%, 다른 가구로 변경한 경우는 4.8%였으며, 57.9%는 작년에는 아이를 위탁하지 않았으나, 지난 조사 이후 이동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1〉 위탁가구 변경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한 가구임	37.3	33.5	44.3	25.2	55.4	44.2
지난 조사 때와 다른 가구임	4.8	4.5	5.5	5.2	5.9	-
지난 조사 때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았음	57.9	62.0	50.2	69.5	38.7	5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를 보면, 외조부/외조모 가구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친조부/친조모 가구에 맡기는 경우는 41.8%로 이모/외삼촌

6) 비취업모가 아이를 위탁한 사례는 2명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분석은 생략하였음.

3.1%, 고모/삼촌 0.5%를 포함하여도 외가에 아동을 위탁하는 가구가 친가에 맡기는 가구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차년도 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는 외조부/외조모 61.8%, 친조부/친조모 25.8%로 차이가 더 컸다. 한편 베이비시터 또는 비혈연 지인에게 아이를 맡긴 경우는 2차년도 조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장기간 맡기는 경우는 드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92〉 아동과 위탁가구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친조부/친조모	41.8	43.0	39.5	35.5	55.4	35.4
외조부/외조모	52.4	52.7	51.8	59.6	44.6	38.6
고모/삼촌	0.5	0.8	-	1.0	-	-
이모/외삼촌	3.1	-	8.7	0.0	-	25.9
기타	2.2	3.4	0.0	3.9	-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33		11.01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육시설 충분도에 대한 조사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고 불충분 35.9%, 충분 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으로는 2.77점으로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1-93〉 위탁가구 지역 보육시설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충분함	4.4	6.7	-	-	-	38.6
불충분함	35.9	31.7	43.9	40.9	31.2	25.9
보통임	40.3	37.2	46.3	38.5	52.8	11.5
충분함	17.5	23.0	6.8	17.1	16.1	24.0
매우 충분함	1.9	1.4	3.0	3.5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77	2.81	2.69	2.83	2.85	2.21
표준편차	0.86	0.91	0.73	0.83	0.67	1.19
t / F		0.46		1.57		

다음은 유치원이 충분하지에 대한 문항으로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고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31.1%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85점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표 II-1-94〉 위탁가구 지역 유치원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충분함	5.7	4.1	8.7	-	12.3	13.1
불충분함	31.1	32.0	29.4	36.9	11.4	62.9
보통임	40.2	31.8	56.5	36.0	60.2	-
충분함	18.8	28.4	-	23.5	11.9	16.9
매우 충분함	4.2	3.5	5.4	3.5	4.2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5	2.95	2.64	2.94	2.84	2.42
표준편차	0.93	0.95	0.85	0.86	0.93	1.13
t / F		0.88		1.37		

위탁가구 지역의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같은 사교육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불충분함 26.7%, 충분함 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10.2%로 부정적인 의견이 36.9%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표 II-1-95〉 위탁가구 지역 사교육기관 충분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충분함	10.2	6.4	17.4	-	16.7	39.0
불충분함	26.7	27.5	25.1	33.1	11.4	42.4
보통임	37.4	32.1	47.7	34.6	50.5	11.5
충분함	21.5	30.4	4.4	28.7	17.2	-
매우 충분함	4.2	3.5	5.4	3.5	4.2	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83	2.97	2.55	3.03	2.81	1.94
표준편차	1.01	0.99	1.00	0.87	1.04	1.07
t / F		0.92		2.43		

다음은 공공 여가시설 또는 공간에 대한 충분도로 불편한 편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보통 28.2%, 매우 불편함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는 2.31점으로 상당히 낮다.

〈표 II-1-96〉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편함	23.9	22.8	26.2	31.5	9.9	29.9
불편한 편임	35.2	33.7	38.3	32.1	39.6	37.4
보통임	28.2	27.2	30.1	21.5	39.8	25.5
편리한 편임	11.6	16.4	2.4	13.1	10.8	7.1
매우 편리함	1.0	-	3.0	1.9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31	2.37	2.18	2.22	2.51	2.10
표준편차	0.99	1.01	0.95	1.08	0.81	0.91
t / F		0.55		0.46		

다음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한 문항으로 편리한 편이라는 응답이 51.3%로 가장 많고 보통 41.9%의 순이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점수는 3.61점이며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II-1-97〉 위탁가구 지역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불편한 편임	1.2	1.9	-	2.3	-	-
보통임	41.9	34.5	56.3	38.8	48.4	37.4
편리한 편임	51.3	59.1	36.3	54.3	47.2	49.5
매우 편리함	5.5	4.6	7.4	4.6	4.4	1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1	3.66	3.51	3.61	3.56	3.76
표준편차	0.61	0.59	0.63	0.61	0.58	0.67
t / F		-0.20		0.26		

자녀를 맡긴 지역 치안 및 안전사고 관련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이 38.5%이다. 매우 위험하다는 응답은 없으나 비교적 위험하다는 비율도 13.2% 응답되었다. 안전도는 평균 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좋은 수준이다.

〈표 II-1-98〉 위탁가구 지역 치안 안전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비교적 위험함	13.2	15.5	8.7	10.0	14.1	25.9
보통임	45.7	37.3	62.1	48.3	53.0	11.5
비교적 안전함	38.5	47.2	21.8	37.1	32.8	62.6
매우 안전함	2.5	-	7.4	4.6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30	3.32	3.28	3.36	3.19	3.37
표준편차	0.73	0.73	0.72	0.72	0.66	0.87
<i>t / F</i>		-0.67		0.74		

안전사고 관련 안전성 역시 보통이 56.7%로 가장 많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이 39.9%이다. 매우 위험하다는 응답은 없으며 점수는 3.4점이다.

다른 항목에 비해 치안 안전도, 안전사고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통해 자녀를 맡길 때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맡기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1-99〉 위탁가구 지역 안전사고 측면 안전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비교적 위험함	2.4	3.6	-	1.7	-	13.1
보통임	56.7	53.2	63.5	54.6	61.7	51.5
비교적 안전함	39.9	43.2	33.5	41.9	38.3	35.5
매우 안전함	1.0	-	3.0	1.9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0	3.40	3.40	3.44	3.38	3.22
표준편차	0.55	0.56	0.55	0.56	0.49	0.66
<i>t / F</i>		-0.67		0.11		

〈표 II-1-100〉 위탁가구 지역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좋지 않음	2.4	3.6	-	1.7	-	13.1
보통임	56.7	53.2	63.5	54.6	61.7	51.5
좋음	39.9	43.2	33.5	41.9	38.3	35.5
매우 좋음	1.0	-	3.0	1.9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40	3.40	3.40	3.44	3.38	3.22
표준편차	0.55	0.56	0.55	0.56	0.49	0.66
<i>t / F</i>		-0.67		0.11		

전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6.7%, 좋음이 3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좋지 않다는 의견은 없으며, 점수화한 결과 평균 3.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만족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발달 특성

가. K-ASQ(Korean-Ages & Stage Questionnaires)

1) 검사 개요

한국의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K-ASQ)는 포괄적인 유아 발견 프로그램으로 조기 중재대상의 유아를 적절한 시기에 판별해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발달검사이다. 즉,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고, 발견된 고위험군 집단에 대해서 발달에 대한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0년대 미국의 Oregon 대학에서 개발된 ASQ는 4개월에서 60개월의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K-ASQ는 원문 ASQ 2판을 한국 실정에 맞게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 표준화하였고(허계형·Squires·이소영·이준식, 2006), 전국의 영유아 3,22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절전점수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K-ASQ는 부모나 주 양육자가 작성하도록 설계된 19개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지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한 점진적인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총 5가지 발달 영역,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근육운동(gross motor), 소근육운동(fine motor), 문제해결(problem solving), 개인-사회성(personal-social)에 각 6개씩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유아발달의 제 영역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합할 수 있다. 30개의 점진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자녀의 수행 정도에 따라 '예-가끔-아니오'로 나누어 표시하며, 점수는 10-5-0점으로 환산하고 각 영역별로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을 산출한다.

K-ASQ의 결과는 각 5개 영역의 점수를 선별 절선점수(cut-off point)와 비교함으로써 분석한다. 위험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 점수는 전체 아동 분포 중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2배수 영역(신뢰구간 약 95%)에 해당하는 2SD 기준점과,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 1배수 영역(신뢰구간 68%)에 해당되는 1SD 기준점 2가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5개 영역별로 전자는 '절선점수 미만 여부'로 코딩하여 '위험발달'군으로, 후자는 '의심발달 여부'로 코딩하여 '의심발달'로 명명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5개 영역별로 위험발달 및 의심발달 판별을 제시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 전반에 관한 전체적인 판별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와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제공된다.

2) 검사 결과

(1) K-ASQ검사 결과의 전반적 경향

한국아동패널의 K-ASQ검사 결과를,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5개 영역 중 대근육운동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해결이 2.6%, 소근육 운동이 2.1%, 개인-사회성이 2%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ASQ검사 결과, '위험발달군'에 속하지 않는 정상발달의 비율이 전체 5개 영역 평균 97.34%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5개 영역 중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제

7) 예-유아가 행동을 수행할 때, 가끔-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아니오-아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때.

해결이 12.4%, 대근육운동이 10.7%, 개인-사회성이 7.8%로 나타났다. 위험발달군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이 7.3% 비율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영아기에 드러나는 발달위협성이 대근육, 소근육 운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사소통 영역에서 낮았음을 알 수 있다(표 II-2-1 참조).

2008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위험발달군'에 속하지 않는 평균 비율이 98.56%로 정상발달 비율이 더 높았다. 패널 아동이 1년 성장하면서 '위험발달군'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진 결과이다. 한편 2008년도에는 의사소통 영역이 3.7%로 가장 위험발달군 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근육운동이 0.3%, 소근육운동이 0.4%로 나타나 1년 사이에 영역별 위험발달군 분포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전체 패널 아동 중 '의심발달군'에 속하는 비율이 12.72%였던 것에 비해, 2009년도 '의심발달군'에 속한 비율은 10.66%로 감소하였다. 위험발달군 비율 변화를 고려하여 분석해보면, 2008년도 의심발달군에 속한 아동이 2009년 위험발달군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2-1〉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구분	위험발달 (-2SD)		의심발달 (-1SD)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의사소통	3.7	1.2	16.4	7.3
대근육운동	0.3	5.4	10.3	10.7
소근육운동	0.4	2.1	15.6	15.1
문제해결	1.6	2.6	8.5	12.4
개인-사회성	1.2	2.0	12.8	7.8
평균	1.44	2.66	12.72	10.66

다음으로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근육운동이 56.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2.43, 문제해결 49.03, 의사소통 48.98, 소근육운동 47.21점 순이었다(표 II-2-2 참조). 2008년 패널 아동의 K-ASQ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52.18점, 대근육운동 56.93점, 소근육운동 54.60점, 문제해결 56.06점, 개인-사회성 54.25점이었다.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영역은 모두 총점이 높아진 반면, 개인-사회성 영역은 총점이 조금 낮아졌다.

〈표 II-2-2〉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구분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1차년도					
평균	53.18	56.93	54.60	56.06	54.25
2차년도					
평균	48.98	56.27	47.21	49.03	52.43
표준편차	11.42	9.20	12.04	12.04	10.99
최소값	5	0	0	0	0
최대값	60	60	60	60	60

또한, K-ASQ 검사결과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2-3>과 같다.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의 비율이 90.6%였는데 반해,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는 68.0%였다.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에 속하는 의심발달 영역 개수의 비율이 위험발달 영역 개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패널의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94.7%이며,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65.8%였다.

〈표 II-2-3〉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0	94.7	90.6	0	65.8	68.0				
1	4.1	7.6	1	17.8	18.7				
2	0.9	1.1	2	8.6	7.8				
3	0.1	0.4	3	3.9	3.4				
4	0.2	0.2	4	2.5	1.5				
5	-	0.1	5	1.4	0.5				
계	100.0	100.0	계	100.0	100.0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4>와 같다.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취업 모인 경우, 5개 영역 중 대근육 운동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

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이 1.8%, 소근육 운동이 1.6%, 개인-사회성이 1.2%, 의사소통 1.1%로 대근육운동 영역을 제외하고는 1%내외 수준이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대근육운동 영역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3%, 개인-사회성 2.4%, 소근육운동 2.2%, 의사소통 1.2%순이었다.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5개 영역 중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근육운동이 10%, 문제해결 9.8%, 개인-사회성 7%, 의사소통 6.7%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소근육운동 영역이 16.4%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13.6%, 대근육운동이 11%, 개인-사회성 8.1%, 의사소통 7.6%순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 차이를 카이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위험발달군이 2배 정도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 분포 차이를 카이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의심발달군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2008년 패널 조사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의사소통 3%, 소근육운동 0.4%, 문제해결 1.3%, 개인-사회성 0.5%로 평균 1.08%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의사소통 4%,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 0.4%, 문제해결 1.7%, 개인-사회성 1.4%로 나타났다.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위험발달군 분포는 의사소통을 제외한 4영역 소근육운동, 대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모두에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 분포를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해보면, 2008년 패널의 경우, 취업모의 자녀는 의사소통 18%, 대근육운동 11.5%, 소근육운동 14.3%, 문제해결 9.4%, 개인-사회성 13.3%로 평균 13.3%로 나타났다.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의사소통 15.6%, 대근육운동 9.9%, 소근육운동 16.1%, 문제해결 8%, 개인-사회성 12.6%로 나타났다. 취업모인 경우 모두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의심발달군 분포는 문제해결을 제외한 4영역에서 모두 비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2009년 의심발달군 분포는 2008년 의심발달군 분포 비율에 비해 의사소통과 개인-사회성 영역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에서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I-2-4〉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구분	위험발달 (-2SD)					의심발달 (-1SD)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χ^2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χ^2
의사소통	3.0	4.0	1.1	1.2	0.03	18	15.6	6.7	7.6	0.42
대근육운동	-	0.4	4.9	5.6	0.67	11.5	9.9	10.0	11.0	1.96
소근육운동	0.4	0.4	1.6	2.2	1.09	14.3	16.1	12.3	16.4	5.92*
문제해결	1.3	1.7	1.8	3.0	1.71	9.4	8.0	9.8	13.6	2.69
개인-사회성	0.5	1.4	1.2	2.4	3.52 ⁺	13.3	12.6	7.0	8.1	1.04

⁺p<.1. *p<.05.

다음으로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 취업모 경우에는 대근육운동이 56.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3.38, 문제해결 49.40, 의사소통 49.17, 소근육운동 47.63점 순이었다. 비취업모 경우에도 대근육운동이 56.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1.98, 의사소통 48.90, 문제해결 48.87, 소근육운동 47점 순이었다.

〈표 II-2-5〉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구분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취업모	1차년도					
	평균	52.74	56.56	54.58	55.68	53.89
	2차년도					
	평균	49.17	56.58	47.63	49.40	53.38
	표준편차	11.14	8.49	11.36	11.64	10.36
	최소값	5	10	10	0	5
	최대값	60	60	60	60	60
비취업모	1차년도					
	평균	53.37	57.08	54.61	56.22	54.41
	2차년도					
	평균	48.90	56.12	47.00	48.87	51.98
	표준편차	11.54	9.54	12.33	12.21	11.25
	최소값	5	0	0	0	0
	최대값	60	60	60	60	60
	t	0.18	1.70 ⁺	1.54	0.70	1.91 ⁺

⁺p<.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K-ASQ 영역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근육 운동영역과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인 경우 대근육운동, 개인-사회성 영역 평균이 더 높았다.

1차년도 취업모와 비취업모 자녀의 K-ASQ 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의사소통 52.74점, 대근육운동 56.56점, 소근육운동 54.58점, 문제해결 55.68점, 개인-사회성 53.89점이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53.37점, 대근육운동 57.08점, 소근육운동 54.61점, 문제해결 56.22점, 개인-사회성 54.41점이었다.

또한, K-ASQ 검사결과,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에 대해,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위험발달에서 0개의 비율은 취업모가 91.6%, 비취업모가 89.1%로 취업모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의심발달 판별에서 0개의 비율도 취업모가 70.7%, 비취업모가 66.8%로 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위험발달,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의심발달 영역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인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가 더 적었다.

〈표 II-2-6〉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	취업모	비취업모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취업모	비취업모
0	91.6	89.1	0	70.7	66.8
1	7.2	8.6	1	19.6	18.3
2	0.4	1.4	2	5.6	8.8
3	0.5	0.4	3	2.3	3.9
4	0.3	0.4	4	1.2	1.7
5	-	0.1	5	0.7	0.4
계	100.0	100.0	계	100.0	100.0
χ^2	5.73		χ^2	11.36*	

* $p < .05$.

1차년도 패널의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취업모의 경우에는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95.6%이며,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62%였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94.3%이며,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 비율이 67.5%였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가 0개인 비율이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감소하였다. 반면 의심발

달 영역 총 개수 0개인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증가하였다.

(3)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출생순위에 따른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7>와 같다.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첫째아인 경우, 5개 영역 중 대근육 운동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이 4%, 개인-사회성이 2.2%, 소근육 운동이 2%, 의사소통 1.1%로 나타났다. 둘째이상인 경우에도 대근육운동 영역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소근육운동 2.1%, 개인-사회성 1.9%, 문제해결 1.4%, 의사소통 1.2%순이었다.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5개 영역 중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근육운동이 10%, 문제해결 9.8%, 개인-사회성 7%, 의사소통 6.7%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소근육운동 영역이 16.4%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13.6%, 대근육운동이 11%, 개인-사회성 8.1%, 의사소통 7.6%순이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 차이를 카이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첫째아의 경우, 둘째 이상에 비해 위험발달군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 분포 차이를 카이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소근육운동과 문제해결 영역에서 첫째아와 둘째이상간의 의심발달군 비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첫째아의 경우에 둘째 이상보다 의심발달군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II-2-7>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구분	위험발달 (-2SD)			의심발달 (-1SD)		
	첫째	둘째이상	χ^2	첫째	둘째이상	χ^2
의사소통	1.1	1.2	0.02	7.8	6.8	1.40
대근육운동	5.0	5.7	0.49	10.0	11.2	0.15
소근육운동	2.0	2.1	0.17	17.1	13.3	8.24**
문제해결	4.0	1.4	11.17**	14.8	10.1	11.48**
개인-사회성	2.2	1.9	1.17	7.1	8.3	0.03

**p<.01.

다음으로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 첫째아 경우에는 대근육운동

이 56.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2.27, 의사소통 48.95, 문제해결 47.88, 소근육운동 46.73점 순이었다. 둘째 이상인 경우에도 대근육운동이 56.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2.57, 문제해결 50.08, 의사소통 49.10, 소근육운동 47.65점 순이었다.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를 t검증 통해 분석한 결과, 소근육운동, 문제해결에서 집단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영역에서 둘째 이상이 첫째아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다.

〈표 II-2-8〉 출생순위에 따른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구분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첫째	평균	48.95	56.53	46.73	47.88	52.27
	표준편차	11.54	8.81	12.17	12.95	10.84
	최소값	10	10	0	0	5
	최대값	60	60	60	60	60
둘째이상	평균	49.01	56.04	47.65	50.08	52.57
	표준편차	11.30	9.54	11.91	11.04	11.13
	최소값	5	0	0	0	0
	최대값	60	60	60	60	60
<i>t</i>		-0.81	0.77	-2.76**	-4.29***	-0.81

** $p < .01$. *** $p < .001$.

또한, K-ASQ 검사결과,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2-9〉 출생순위에 따른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	출생순위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출생순위	
	첫째	둘째이상		첫째	둘째이상
0	89.2	90.6	0	68.1	68.0
1	8.5	7.8	1	16.4	20.8
2	1.6	0.8	2	8.8	6.9
3	0.5	0.3	3	4.3	2.6
4	0.3	0.4	4	2.0	1.1
5	-	0.1	5	0.4	0.6
계	100.0	100.0	계	100.0	100.0
χ^2	4.17		χ^2	12.87*	

* $p < .05$.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에 대해,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위험발달에서 0개의 비율은 첫째 89.2%, 둘째 이상 90.6%로 둘째이상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의심발달 판별에서 0개의 비율도 첫째 68.1%, 둘째 이상 6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위험발달,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의심발달 영역에서 첫째아와 둘째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심발달 영역 개수별 분포에서 1개인 경우, 첫째아는 16.4%, 둘째이상은 20.8%로 나타났으며, 2개인 경우, 첫째아는 8.8%, 둘째이상은 6.9%로 나타났다.

(4) 지역규모에 따른 K-ASQ

지역규모에 따른 각 영역별 위험발달과 의심발달로 추정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2-10>와 같다. 2SD 절선미만 '위험발달군'을 분류한 결과, 대도시인 경우, 5개 영역 중 대근육 운동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이 2.9%, 개인-사회성이 2.5%, 의사소통 1.7%, 소근육 운동 1.5%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인 경우에도 대근육운동 영역이 4%로 가장 높았으며, 소근육운동 2.8%, 문제해결 2.7%, 개인-사회성 2.1%, 의사소통 1.1%순이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근육운동 영역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2%, 소근육운동 1.6%, 개인-사회성 0.7%순이었으며, 의사소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SD 의심발달 여부를 기준으로 '의심발달군'에 해당하는 아동을 분류한 결과, 대도시인 경우, 5개 영역 중 소근육운동 영역에서 발달위험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15.2%, 대근육운동 14%, 의사소통 10.9%, 개인-사회성 9.5%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경우에도 소근육운동 영역이 13.2%로 가장 높았으며, 문제해결 9.6%, 대근육운동이 8.3%, 개인-사회성 7%, 의사소통 4.5%순이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소근육운동 15.7%, 문제해결 11.3%, 대근육운동 7.4%, 개인-사회성 5.1%, 의사소통 4.7%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K-ASQ 영역별 위험발달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위험발달 분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른 K-ASQ 영역별 의심발달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심발달군 결과 중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집단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영역에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심발달군 분포가 더 많았다.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의심발달군 분포가 많았다. 개인-사회성 영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의심발달군 분포가 유의하게 많았다.

〈표 II-2-10〉 K-ASQ 영역별 위험발달·의심발달 분포

단위: %

구분	위험발달 (-2 · SD)				의심발달 (-1 · SD)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χ^2
의사소통	1.7	1.1	0.0	5.97 ⁺	10.9	4.5	4.7	27.45 ^{***}
대근육운동	7.3	4.0	3.3	4.15	14.0	8.3	7.4	6.82 [*]
소근육운동	1.5	2.8	1.6	2.44	16.7	13.2	15.7	4.03
문제해결	2.9	2.7	2.0	1.21	15.2	9.6	11.3	8.72 [*]
개인-사회성	2.5	2.1	0.7	4.61	9.5	7.0	5.1	6.39 [*]

+ $p < .1$. * $p < .05$. *** $p < .001$.

다음으로 K-ASQ 영역별 총점 평균을 비교한 결과, 대도시인 경우에는 대근육운동이 55.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1.64, 문제해결 48, 의사소통 47.08, 소근육운동 46.22점 순이었다. 중소도시인 경우에도 대근육운동이 56.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은 52.77, 의사소통 50.71, 문제해결 50.09, 소근육운동 48.47점 순이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근육운동 57.48점, 개인-사회성은 53.68, 의사소통 49.87, 문제해결 49.25, 소근육운동 46.84점 순이었다.

또한, K-ASQ 검사결과, 위험발달과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에 대해, 상대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위험발달에서 0개의 비율은 읍면지역 93%, 중소도시 90.7%, 읍면지역 88%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의심발달 판별에서 0개의 비율도 중소도시 73.2%, 읍면지역 71.7%, 대도시 61.9%로 나타났다.

〈표 II-2-11〉 K-ASQ 영역별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구분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대도시	평균	47.08	55.25	46.22	48.00	51.64
	표준편차	12.17	10.26	11.91	12.68	11.60
	최소값	5	0	0	0	5
	최대값	60	60	60	60	60

영역	구분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중소도시	평균	50.71	56.89	48.47	50.09	52.77
	표준편차	10.63	8.51	12.11	11.69	10.89
	최소값	5	0	0	0	0
	최대값	60	60	60	60	60
읍면지역	평균	49.87	57.48	46.84	49.25	53.68
	표준편차	10.39	7.44	11.97	10.87	9.35
	최소값	20	15	0	10	10
	최대값	60	60	60	60	60
F		18.59***	4.21*	2.80 ⁺	1.34	5.40**

⁺p<.1. * p<.05. ** p<.01. *** p<.001.

지역규모에 따른 위험발달,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의심 발달 영역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역규모에 따른 의심발달 개수별 분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 II-2-12〉 K-ASQ: 위험발달(-2SD)·의심발달(-1SD) 개수별 분포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위험발달 영역 총 개수	0	88.0	90.7	93.0
	1	9.6	7.2	6.3
	2	1.3	1.2	0.6
	3	0.6	0.3	-
	4	0.4	0.4	-
	5	-	0.1	-
	계	100.0	100.0	100.0
χ^2		10.63		
의심발달 영역 총 개수	0	61.9	73.2	71.7
	1	21.6	17.3	14.8
	2	8.4	5.6	11.4
	3	5.1	2.1	1.8
	4	2.2	1.3	0.3
	5	0.7	0.5	-
	계	100.0	100.0	100.0
χ^2		34.94***		

*** p<.001.

나. 한국형 Denver II

1) 검사 개요

1967년에 처음 미국의 Frankenburg에 의해 DDST(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로 개발되었으며, 1990년에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Denver II 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국형 덴버 II는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에 적합한 검사항목별로 아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이다.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발달 속도나 발달의 양상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또한 주양육자가 아닌 제 3자가 아동의 수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수행평가(chid performance-based evaluation)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형 덴버 II 검사는 아동의 발달특성으로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의 4개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발달 영역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Denver II 검사는 24개월 이하는 월별로,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다.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발달, 언어발달, 전체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해 아동의 교정연령별로 연령에 해당하는 문항과 연령 이전 문항, 연령 이후 문항으로 구성된다. 즉, 규준집단의 25%만이 통과한 연령을 하한선으로, 90%가 통과한 연령을 상한선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영역별로 실시하여야 할 문항을 결정한다. Denver II 검사는 본래 총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준화된 한국형 Denver II 검사는 문화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11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인-사회성 발달 영역 22문항,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 27문항, 언어발달 영역 34문항, 운동발달영역 27문항으로 구성된다.

검사 판별은 검사 아동을 해당 연령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수행능력을 월등(advanced)-정상(normal)-주의(caution)-지연(delayed)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 항목에서라도 동 연령대 아동의 90%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delayed)'으로 분류한다. '주의(caution)'항목은 한 항목에서라도 동 연령대 아동의 75%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 최종적으로 4개 영역별로 주의 및 지연 항목수를 합산하여, '정상'과 '의심발달'범주로 구분한다. 지연항목이 없고 주의항목이 최대 1개인 경우를 '정상'범주로 구분하여, 1개 항목에서 지연

이거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주의인 경우에는 '의심발달'범주로 구분한다.

2) 검사 결과

(1) 덴버 검사 결과의 전반적 경향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한국아동패널 전체의 74.2%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5.8%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 90.7%, 의심스런 발달 8.4%를 보였다. 2008년에 비해 1년 후 2009년 한국아동패널의 정상-의심발달 분포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의심스런 발달 분포 비율이 17.4%정도 증가하였다.

〈표 II-2-13〉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단위: %

구분	정상	의심스런 발달	검사불능	계
1차년도	90.7	8.4	0.9	100.0
2차년도	74.2	25.8	-	100.0

덴버 II 검사 결과,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77.6%가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는 16.7%, 2개는 4.1%, 3개는 1.1%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의 80%이상이 주의항목이 거의 없고 정상발달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92.5%, 1개가 5%, 2개가 1.4%, 3개가 0.6%, 4개가 0.5%, 10개 0.1%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전체 주의항목개수가 전반적으로 분포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4〉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개수	0	1	2	3	4	5	6	계
1차년도	83.7	12.5	2.7	0.7	0.3	-	-	100.0
2차년도	77.6	16.7	4.1	1.1	0.3	0.1	0.2	100.0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운동발달(98.3%), 언어발달(95.1%), 개인-사회성(92.2%),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7.7%)순으

로 나타났다. 1개인 비율은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사회성 6.7%, 언어발달 4.7%, 운동발달 1.4%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2008년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언어발달(98.4%), 개인-사회성(97.5%), 운동발달(97.4%),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97.2%)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영역별 주의항목 0개 분포는 운동발달을 제외한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의 주의항목 0개 분포 비율이 감소하였다.

〈표 II-2-15〉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개인-사회성	0	99.0	92.2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9.0	87.7
	1	1.0	6.7		1	9.8	10.4
	2	-	1.0		2	1.1	1.6
	3	-	0.1		3	0.1	0.3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언어발달	0	95.1	95.1	운동발달	0	95.1	98.3
	1	4.7	4.7		1	4.6	1.4
	2	0.2	0.2		2	0.3	0.2
	3	-	-		3	-	0.1
	계	100.0	100.0		계	100.0	100.0

덴버 II 검사 결과, 전체 지연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76.1%가 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는 15.9%, 2개는 3.9%, 3개는 2.5%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패널의 75% 이상이 지연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83.7%, 1개가 12.5%, 2개가 2.7%, 3개가 0.7%, 4개가 0.3%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전체 지연항목개수가 전반적으로 분포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6〉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전체)

단위: %

개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1차 년도	92.5	5.0	1.4	0.6	0.5	-	-	-	-	-	-	-	-	-	100.0
2차 년도	76.1	15.9	3.9	2.5	0.6	0.4	0.1	0.1	0.2	0.1	0.0	0.0	0.0	0.1	100.0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운동 발달(99%), 개인-사회성(92.9%), 언어발달(91.7%),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7.2%)순으로 나타났다. 운동발달의 경우 패널의 대부분이 지연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개인 비율은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이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발달 7%, 개인-사회성 4%, 운동발달 0.7%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표 II-2-17〉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개인-사회성	0	97.5	92.9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97.2	87.2
	1	2.4	4.0		1	2.0	11.2
	2	0.1	1.5		2	0.6	0.9
	3	-	1.0		3	0.1	0.4
	4	-	0.5		4	-	0.0
	5	-	0.1		5	-	0.0
	-	-	-		6	-	0.0
	-	-	-		8	-	0.1
	-	-	-		9	0.1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언어발달	0	98.4	91.7	운동발달	0	97.4	99.0
	1	1.3	7.0		1	2.0	0.7
	2	0.2	0.9		2	0.5	0.1
	3	0.1	0.2		3	0.1	0.2
	4	-	0.1		-	-	-
	5	-	0.1		-	-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2008년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99%), 운동발달(95.1%),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9%)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영역별 지연항목 0개 분포는 운동발달을 제외한 언어발달, 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의 지연항목 0개 분포 비율이 감소하였다.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검사 결과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취업모인 경우, 전체의 79%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1%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

업모인 경우에는 72%가 정상 범주, 28%가 의심스런 발달에 구분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취업모의 자녀 집단이 취업모의 자녀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의심발달 판정 비율을 보였다.

2008년 어머니 취업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와 비교해보면, 취업모의 경우 88.4%가 정상발달, 9.5%가 의심스런 발달이었다. 취업모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자녀의 정상발달 비율이 9.4% 정도 줄어들었다.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2008년 정상발달이 91.7%, 의심스런 발달이 7.9%였다. 비취업모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자녀의 정상발달 비율이 19.7% 정도 줄어들어, 취업모에 비해 감소한 폭이 더 컸다.

〈표 II-2-18〉 모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정상	88.4	91.7	79.0	72.0
의심스런 발달	9.5	7.9	21.0	28.0
검사불능	2.1	0.4	-	-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10.66**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취업모 79.7%, 비취업모 76.7%이었으며, 1개인 경우 취업모 16%, 비취업모 16.9%, 2개인 경우 취업모 3.6%, 비취업모 4.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 취업모의 자녀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90%, 1개가 7%, 2개가 0.5%, 3개가 0.6%, 4개가 1.3%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자녀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93.3%, 1개가 4.2%, 2개가 1.7%, 3개가 0.5%, 4개가 0.2%, 10개 0.1%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취업모, 비취업모 자녀의 전체 주의항목개수가 전반적으로 분포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2-19〉 모취업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 개수		0	1	2	3	4	5	6	계	χ^2
1차년도	취업모	81.5	12.9	3.8	1.1	0.5	0.2	-	100.0	na
	비취업모	84.6	12.3	2.2	0.6	0.2	-	0.1	100.0	
2차년도	취업모	79.7	16.0	3.6	0.5	-	-	0.2	100.0	18.46
	비취업모	76.7	16.9	4.4	1.3	0.4	0.1	0.2	100.0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사회성, 언어발달, 운동발달 영역에서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는 0개 비율이 취업모 87.3%, 비취업모 8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이 각 영역별로 주의항목 개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사회성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0개 비율은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반면, 1개와 2개 비율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20〉 모취업 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개인- 사회성	0	98.4	99.2	94.7	90.9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7.0	89.8	87.3	88.0
	1	1.6	0.8	4.8	7.7		1	10.9	9.3	10.1	10.5
	2	-	-	0.3	1.4		2	1.8	0.8	2.4	1.2
	3	-	-	0.2	-		3	0.1	0.1	0.2	0.3
	-	-	-	-	-		4	0.2	-	-	-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10.32 ⁺		χ^2		na		7.56	
언어발달	0	97.9	97.4	96.1	94.8	운동발달	0	93.8	95.6	99.5	97.7
	1	1.8	2.1	3.9	5.0		1	5.4	4.3	0.5	1.8
	2	0.3	0.5	-	0.2		2	0.8	0.1	-	0.3
	3	-	0.1	-	-		3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2.81		χ^2		na		1.03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p<.1

2008년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언어발달(98.3%), 개인-사회성(96.7%), 운동발달(96.7%),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95.7%)순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언어발달(98.4%), 개인-사회성(97.8%),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97.8%), 운동발달(97.7%)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주의항목 개수 분포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취업모 80.5%, 비취업모 74.1%로 취업모가 더 높았다. 1개인 경우는 취업모 13.1%, 비취업모 17.3%, 2개인 경우 취업모 2.6%, 비취업모 4.4%로 비취업모인 경우에 분포 비율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차이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 덴버 II 검사 결과, 취업모의 자녀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83.7%, 1개가 12.5%, 2개가 2.7%, 3개가 0.7%, 4개가 0.3%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자녀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가 81.5%, 1개가 12.9%, 2개가 3.8%, 3개가 1.1%, 4개가 0.5%, 5개 0.2%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취업모, 비취업모 자녀의 전체 지연항목개수가 전반적으로 분포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영역에서 지연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비취업모에 비해 취업모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운동발달 영역에서는 0개 비율이 취업모 98.5%, 비취업모 99.1%로 나타났다.

〈표 II-2-2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 개수		0	1	2	3	4	5	6	7	8	10	11	12	13	계	χ^2
1차 년도	취업모	90.6	7.0	0.5	0.6	1.3	-	-	-	-	-	-	-	-	100.0	na
	비취업모	93.3	4.2	1.7	0.5	0.2	-	-	-	-	0.1	-	-	-	100.0	
2차 년도	취업모	80.5	13.1	2.6	3.0	0.4	0.3	0.2	-	-	-	-	-	-	100.0	8.98
	비취업모	74.1	17.3	4.4	2.3	0.7	0.5	-	0.1	0.3	0.1	0.1	0.1	0.1	100.0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이 각 영역별로 지연항목 개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개인-사회성과 운동발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개인-사회성

영역에서는 0개과 1개 비율이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높은 반면, 2개와 3개 비율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연항목 개수 4개 이상은 비취업모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취업모의 아동이 비취업모의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지연항목 개수 분포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2-2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영역	개수	1차년도		2차년도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취업모	비취업모
개인- 사회성	0	96.7	97.8	93.3	92.6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95.7	97.8	90.1	86.0
	1	3.3	2.1	5.0	3.5		1	3.5	1.4	9.0	12.2
	2	-	0.2	1.4	1.6		2	0.6	0.6	0.6	1.0
	3	-	-	0.3	1.3		3	0.2	-	0.2	0.5
	4	-	-	-	0.8		4	-	-	-	0.1
	5	-	-	-	0.2		5	-	-	-	0.1
	-	-	-	-	-		6	-	-	-	0.1
	-	-	-	-	-		8	-	-	-	0.1
	-	-	-	-	-		9	-	0.1	-	-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9.16*		χ^2	na		0.70			
언어발달	0	98.3	98.4	92.9	91.3	운동발달	0	96.7	97.7	98.5	99.1
	1	1.3	1.3	5.8	7.5		1	2.7	1.7	1.2	0.5
	2	-	0.3	0.8	0.9		2	0.4	0.5	-	0.2
	3	0.4	-	0.4	0.1		3	0.2	0.1	0.3	0.2
	4	-	-	0.2	0.1		-	-	-	-	-
	5	-	-	-	0.1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2.21		χ^2	na		6.38+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 $p<.1$, * $p<.05$

2008년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모의 경우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98.4%),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7%), 운동발달(95.1%)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각 영역별로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99.2%),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87%), 운동발달(93.8%)로 나타났다.

(3)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검사 결과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해당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전체의 75%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5%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이상인 경우, 비취업모인 경우에는 73.6%가 정상 범주, 26.4%가 의심스런 발달에 구분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23〉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단위: %

구분	첫째	둘째이상
정상	75.0	73.6
의심스런 발달	25.0	26.4
계	100.0	100.0
χ^2	0.01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첫째아 75.3%, 둘째 이상 79.7%이었으며, 1개인 경우 첫째아 18.1%, 둘째 이상 15.4%, 2개인 경우 첫째아 4.4%, 둘째 이상 3.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24〉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개수	0	1	2	3	4	5	6	계	χ^2
첫째	75.3	18.1	4.4	1.6	0.4	0.1	0.1	100.0	9.11
둘째이상	79.7	15.4	3.9	0.6	0.2	0.1	0.2	100.0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 운동발달 영역에서 첫째아와 둘째 이상인 경우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는 0개 비율이 둘째 이상 90.8%로 첫째아 8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주의항목이 0개인 비율이 첫째아 96%로 둘째 이상 94.4%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자녀

의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25〉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첫째	둘째이상	영역	개수	첫째	둘째이상
개인- 사회성	0	92.2	92.2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4.2	90.8
	1	6.5	7.0		1	13.1	8.0
	2	1.3	0.9		2	2.4	0.9
	3	0.1	-		3	0.2	0.3
	계	100.0	100.0		계	100.0	100.0
	x^2	3.11			x^2	9.09	
언어발달	0	96.0	94.4	운동발달	0	98.6	98.0
	1	3.9	5.5		1	0.9	1.8
	2	0.2	0.2		2	0.2	0.2
	-	-	-		3	0.3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x^2	5.15			x^2	1.19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전체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첫째아 77.1%로 둘째 이상(75.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1개인 경우 첫째아 15.7%, 둘째 이상 16.2%, 2개인 경우 첫째아 3.3%, 둘째 이상 4.4%로, 모두 첫째아보다 둘째 이상에서 더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2-26〉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 개수	0	1	2	3	4	5	6	7	8	10	11	12	13	계	x^2
첫째	77.1	15.7	3.3	2.7	0.5	0.4	-	0.1	-	-	-	0.1	0.2	100.0	11.36 ⁺
둘째이상	75.3	16.2	4.4	2.4	0.7	0.4	0.1	-	0.3	0.1	0.1	-	-	100.0	

⁺p<.1.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연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네 영역에서 첫째아와 둘째 이상인 경우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첫째아와 둘째 이상 집단간 각 영역별로 지연항목 개수 분포 차이를 살펴본 결과,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지연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은 첫째아 88.8%가 둘째이상 85.8%보다 높은 반면, 1개~3개 비율은 둘째 이상이 첫째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첫째아에 비해 둘째 이상인 경우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 지연항목 개수가 유의하게 많은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I-2-27〉 출생순위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첫째	둘째이상	영역	개수	첫째	둘째이상		
개인- 사회성	0	92.7	93.0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8.8	85.8		
	1	4.1	3.9		1	9.9	12.4		
	2	1.6	1.5		2	0.8	1.0		
	3	1.1	0.9		3	0.1	0.6		
	4	0.4	0.6		4	0.1	-		
	5	0.2	0.1		5	-	0.1		
	-	-	-		6	0.1	-		
	-	-	-		8	0.2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χ^2	2.66			χ^2	18.09***			
언어발달	0	91.8	91.6	운동발달	0	99.0	98.9		
	1	6.9	7.1		1	0.8	0.7		
	2	0.9	0.9		3	-	0.2		
	3	0.3	0.1		4	0.2	0.2		
	4	-	0.2		-	-	-		
	5	-	0.2		-	-	-		
		계	100.0		100.0		계	100.0	100.0
		χ^2	3.34			χ^2	4.43		

*** $p < .001$.

(4)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검사 결과

사회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4개 영역에 대한 정상-의심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인 경우, 전체의 74%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26%가 의심스런 발달, 즉 발달 지체의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인 경우에는 73%가 정상 범주, 27%가 의심스런 발달로, 읍면지역인 경우 77.9%가 정상, 22.1%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되었다. 의심스런 발달 범주는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28〉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최종 분포[정상-의심발달]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정상	74.0	73.0	77.9
의심스런 발달	26.0	27.0	22.1
계	100.0	100.0	100.0
χ^2		3.06	

지역규모에 따른 전체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대도시 74.8%, 중소 도시 79.9%, 읍면 지역 79.6%이었으며, 1개인 경우 대도시 18.1%, 중소 도시 14.9%, 읍면 지역 17%로 나타났다. 2개인 경우 대도시 5.5%가 가장 많았으며, 중소 도시 3.6%, 읍면 지역 1.9%순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29〉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전체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 개수	0	1	2	3	4	5	6	계	χ^2
대도시	74.8	18.1	5.5	1.0	0.4	-	0.2	100.0	17.97
중소도시	79.9	14.9	3.6	1.2	0.2	0.1	0.1	100.0	
읍면지역	79.6	17.0	1.9	1.2	-	0.3	-	100.0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과 운동발달 영역에서는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는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으며,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영역별 주의항목 개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언어발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언어발달 영역에서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은 대도시가 95.9%가 가장 높았던 반면, 1개인 비율은 읍면지역이 6.2%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도시가 읍면지역보다 주의항목 개수를 보이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2-30〉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주의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영역	개수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개인- 사회성	0	91.2	93.2	92.1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5.1	88.8	92.0
	1	7.6	5.9	6.5		1	12.8	8.9	7.8
	2	1.1	0.8	1.4		2	1.9	1.9	0.3
	3	-	0.1	-		3	0.2	0.4	-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χ^2	11.05				χ^2	13.44		
언어발달	0	95.9	94.9	93.8	운동발달	0	97.4	99.2	98.5
	1	3.9	4.9	6.2		1	2.0	0.8	1.2
	2	0.2	0.2	-		2	0.5	-	-
	-	-	-	-		3	0.2	-	0.3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χ^2	19.16*				χ^2	7.87		

* $p < .05$.

지역규모에 따른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0개인 경우 읍면지역 78.7%, 대도시 76.2%, 중소 도시 74.9%순이었다. 1개인 경우 중소 도시 17.9%, 대도시 15.2%, 읍면 지역 13.4%순으로 나타났다. 13개가 전체 지연항목 개수로 가장 많은 경우였으며 대도시에서 나타났다(0.2%).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경우는 6개 이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세 집단 간의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31〉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전체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전체 개수	0	1	2	3	4	5	6	7	8	10	11	12	13	계	χ^2
대도시	76.2	15.2	3.5	3.2	0.6	0.3	0.1	0.1	0.4	0.1	-	0.1	0.2	100.0	14.77
중소 도시	74.9	17.9	4.3	1.6	0.7	0.4	-	-	-	-	0.1	-	-	100.0	
읍면 지역	78.7	13.4	4.1	2.8	0.3	0.8	-	-	-	-	-	-	-	100.0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 개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연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개인-사회성과 언어발달 영역에서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

으로 나타났다.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는 주의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이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 순이었으며, 운동발달 영역에서는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이었다.

〈표 II-2-32〉 지역규모에 따른 덴버 II 영역별 지연항목개수 분포

단위: %

영역	개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영역	개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개인- 사회성	0	92.3	92.7	94.9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0	88.7	85.7	87.0
	1	4.4	4.2	2.4		1	10.1	12.4	11.5
	2	1.3	1.9	1.4		2	0.4	1.3	1.2
	3	1.2	0.6	1.3		3	0.4	0.6	-
	4	0.6	0.6	-		4	-	-	0.3
	5	0.3	-	-		5	0.1	-	-
	-	-	-	-		6	0.1	-	-
	-	-	-	-		8	0.2	-	-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χ^2		5.26			χ^2		10.80 ⁺		
언어 발달	0	89.6	93.3	93.6	운동발달	0	98.4	99.6	98.9
	1	8.6	6.2	4.6		1	1.2	0.3	0.6
	2	1.1	0.3	1.8		3	0.2	-	-
	3	0.3	0.1	-		4	0.2	0.1	0.5
	4	0.1	0.1	-		-	-	-	-
	5	0.2	-	-		-	-	-	-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χ^2		2.73			χ^2		5.72		

⁺p<.1.

지역규모에 따른 지연항목 개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에서 지연항목 개수가 0개인 비율은 대도시가 88.7%가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 87%, 중소도시 85.7%순이었다. 지연항목 수가 5개 이상은 대도시에서만 분포를 보였다.

다. 기질

1) 도구 개요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비교적 문항 수가 적으며,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대

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총 1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4점~70점이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영역별 점수의 총합을 산출하여 사용 가능하다.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하고,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한다. 단, 2차 년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연령을 고려하여 사회성 영역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서성과 활동성 영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서성 5개, 활동성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검사 결과

(1) 기질의 전반적 경향

한국아동패널 기질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성은 평균 13.75점으로 최소값 5점, 최대값 45점이였다. 활동성은 평균 19.75점으로 최소값 8점, 최대값 25점이였다. 활동성에 비해, 정서성의 경우 표준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점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평균을 살펴보면 정서성 전체 평균 13.6점, 활동성 전체 평균 16.05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평균이 정서성 점수는 약간 높아졌으며, 활동성 점수는 3.5점정도 높아졌다.

〈표 II-2-33〉 기질: 총점 평균 비교

단위: 점

구분	정서성	활동성
평균	13.75	19.57
표준편차	3.80	2.87
최소값	5	8
최대값	45	25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먼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중 정서성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는 평균 13.73점, 비취업모의 자녀는 13.77점으로 비취업모가 약간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였다. 반면, 활동성의 경우, 취업모의 자녀는 19.94점으로 비취업모의

자녀 19.41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비취업모가 인식하는 것보다 취업모가 자녀에 대해 인식하는 활동적인 측면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평균을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 정서성 전체 평균 13.45점, 활동성 전체 평균 16.2점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정서성 13.65점, 활동성 16점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09년 한국아동패널의 기질 평균이 취업모, 비취업모 모두 자녀의 정서성, 활동성 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2-3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취업모	13.73	4.11	5	45	19.94	2.79	8	25
비취업모	13.77	3.66	5	45	19.41	2.90	10	25
<i>t</i>	-1.11				4.03***			

****p*<.001.

(3) 출생순위에 따른 기질

먼저, 출생순위에 따른 정서성을 살펴보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 13.67점이었으며 둘째이상인 경우 13.83점이었다. 활동성의 경우, 첫째아인 경우 19.91점으로 둘째이상인 경우 19.27점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출생순위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활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부모가 더 활동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2-35〉 출생순위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첫째	13.67	3.87	5	45	19.91	2.90	8	25
둘째 이상	13.83	3.73	5	45	19.27	2.81	10	25
<i>t</i>	-0.45				4.95***			

****p*<.001.

(4) 지역규모에 따른 기질

먼저, 지역규모에 따른 정서성을 살펴보면, 읍면지역 13.79점, 대도시 13.77점, 중소도시 13.72점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의 경우, 중소도시 19.71점, 대도시 19.51점, 읍면지역 19.42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2-36〉 지역규모에 따른 기질

단위: 점

영역	정서성				활동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도시	13.77	3.80	5	45	19.51	3.00	8	25
중소도시	13.72	4.10	5	45	19.71	2.70	10	25
읍면지역	13.79	3.00	6	22	19.42	2.91	10	25
F	0.01				1.93			

라. 기초생활습관

1) 도구 개요

기본생활습관(Developmental Profiles-naily Routines)은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으로 구분하여서 조사하였다. 도구는 Allen과 Martoz(2003)의 Developmental profiles을 번역하여 1~4개월 영아가 완수하여야할 기초과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술된 문항으로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년)에 실시한 문항은 수면 습관 3문항, 식습관 습관 4문항, 배변/씻기 습관 4문항이다.

2) 검사 결과

(1) 기초생활습관의 전반적 경향

한국아동패널의 2차년도 기초생활습관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습관에 대한 3개 문항 중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은 3.1점, '잠들기 전 행하는 일이나 습관이 있음'은 3.09점으로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2.12점보다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다음으로 식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컵을 잘 사용함’이 3.35점으로 다른 3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혼자 음식을 먹음’은 2.77점으로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약간 이 연령의 영아들에게 서툴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은 2.5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편식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4문항에 대해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이 2.88점, ‘혼자 씻어보려고 함’이 2.43점,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이 2.3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37〉 기초생활습관: 전체 문항별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면습관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3.10	1.14	1	9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3.09	1.22	1	9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2.12	1.33	1	9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	2.53	1.12	1	9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2.77	1.14	1	9
	컵을 잘 사용함	3.35	1.17	1	9
	혼자 음식을 먹음	2.77	1.12	1	9
배변/씻기 습관	혼자 씻어보려고 함	2.43	1.16	1	9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3.59	1.17	1	9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2.37	1.23	1	9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	2.88	1.29	1	9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기초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3개 문항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가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컵을 잘 사용함’과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함’은 취업

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반면, '혼자 음식을 먹음'과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은 비취업모의 자녀가 취업모의 자녀보다 약간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녀가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4문항에 대해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 '혼자 씻어보려고 함',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네 문항 모두에서 취업모의 자녀가 비취업모의 자녀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자 씻어보려고 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혼자 씻어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2-38〉 기초생활습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문항	취업모		비취업모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면 습관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3.12	1.18	3.09	1.12	0.85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3.18	1.29	3.06	1.19	1.60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2.25	1.45	2.05	1.27	2.76**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	2.47	1.20	2.56	1.08	-1.86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2.85	1.19	2.73	1.12	1.87*
	컵을 잘 사용함	3.43	1.25	3.32	1.13	1.06
	혼자 음식을 먹음	2.76	1.20	2.78	1.09	-0.58
배변 / 씻기 습관	혼자 씻어보려고 함	2.57	1.30	2.36	1.08	2.93**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3.63	1.22	3.56	1.15	0.46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2.39	1.31	2.35	1.20	0.60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	2.99	1.41	2.83	1.24	1.09

* $p < .1$. ** $p < .01$.

(3) 출생순위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출생순위에 따른 기초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아가 둘째이상에 비해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 반면,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에서는 둘째아이가 첫째아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3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첫째아가 둘째 이상보다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에, 둘째이상에 비해, 자녀가 잠자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으며, 찾는 물건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에서는 둘째아상이 첫째아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둘째아가 첫째아에 비해 보통 밤에 잠을 10~12시간 가량 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2-39〉 기초생활습관: 출생순위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문항	첫째		둘째 이상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면 습관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3.04	1.14	3.16	1.13	-2.25*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3.20	1.23	3.00	1.21	3.57***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2.20	1.34	2.04	1.32	2.80**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	2.53	1.10	2.53	1.14	0.30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2.74	1.10	2.80	1.17	-1.50
	컵을 잘 사용함	3.31	1.16	3.39	1.18	-1.18
	혼자 음식을 먹음	2.74	1.09	2.81	1.15	-0.76
배변 / 씻기 습관	혼자 씻어보려고 함	2.33	1.13	2.52	1.18	-2.75**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3.67	1.12	3.51	1.22	2.17*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2.25	1.16	2.47	1.29	-2.58*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	2.93	1.35	2.84	1.24	2.22*

* $p < .05$. ** $p < .01$. *** $p < .001$.

식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손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컵을 잘 사용함', '혼자 음식을 먹음'에 대해 둘째아상이 첫째아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4문항 중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 대해 첫째아인 경우가 둘째이상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반면, '혼자 씻어보려고 함',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문항에서는 둘째이상인 경우가 첫째아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4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서 첫째아가 둘째

이상보다 유의하게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출생순위가 첫째아인 경우에, 둘째이상 에 비해, 옷을 입히려 할 때 스스로 도우려 하며, 팔약근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혼자 씻어보려고 함’,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에서는 둘째상이 첫째아보다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둘째아가 첫째아에 비해 혼자 씻어보려고 한다거나, 대소변을 어른에게 알리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4) 지역규모에 따른 기초생활습관

지역규모에 따른 기초생활습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습관에 대해 살펴보면,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은 읍면지역 3.23점, 중소도시 3.11점, 대도시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문항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3.12점, 대도시 3.10점, 읍면지역 3.10점 순이었다.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 대해서는 중소도시 2.13점, 대도시 2.13점, 읍면지역 2.03점 순이었다.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자녀가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습관에 대한 4개 문항 중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은 중소도시 2.56점, 대도시와 읍면지역 2.51점이었다.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에 대해 중소도시 2.85점, 읍면지역 2.83점, 대도시 2.68점 순이었다. ‘컵을 잘 사용함’은 읍면지역 3.47점, 중소도시 3.35점, 대도시 3.31점 순이었다. ‘혼자 음식을 먹음’은 읍면지역 2.89점, 중소도시 2.84점, 대도시 2.67점 순이었다.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과 ‘혼자 음식을 먹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배변/씻기 습관 중 ‘혼자 씻어보려고 함’은 중소도시 2.50점, 읍면지역 2.39점, 대도시 2.38점 순이었다.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은 읍면지역 3.60점, 중소도시 3.59점, 대도시 3.58점으로 세 지역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에 대해 읍면지역 2.44점, 중소도시 2.37점, 대도시 2.33점 순이었다.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인 경우,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2.95점, 대도시 2.8점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혼자 씻어보려고 함’과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소도시인 경우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혼자 씻어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읍면지역과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비해 자녀가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II-2-40〉 기초생활습관: 지역규모에 따른 문항별 평균 비교

단위: 점

영역	문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수면 습관	보통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잠	3.04	1.15	3.11	1.16	3.23	1.04	2.28
	잠들기 전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음	3.10	1.20	3.12	1.28	3.01	1.14	0.36
	잠자기 전 찾는 물건이 있음	2.13	1.36	2.14	1.38	2.03	1.16	2.81 ⁺
식습 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함	2.51	1.08	2.56	1.19	2.51	1.05	0.29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함	2.68	1.14	2.85	1.18	2.82	1.03	4.28 [*]
	컵을 잘 사용함	3.31	1.16	3.35	1.23	3.47	1.07	1.56
	혼자 음식을 먹음	2.67	1.08	2.84	1.19	2.89	1.04	7.51 ^{**}
배변 /씻기 습관	혼자 씻어보려고 함	2.38	1.13	2.50	1.22	2.39	1.08	2.92 ⁺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줌	3.58	1.16	3.59	1.19	3.60	1.17	0.21
	대소변을 보면 어른에게 알림	2.33	1.17	2.37	1.30	2.44	1.24	0.02
	팔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함	2.80	1.28	2.95	1.36	2.95	1.14	2.67 ⁺

⁺p<.1. ^{*}p<.05. ^{**}p<.01.

3. 부모됨의 특성

가. 부모됨

1) 향후 출산계획

가) 후속 출산 의도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35.0%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53.6%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표 II-3-1 참조).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 모두 1차년도 조사(각각 28.0%와 49.7%)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차년도 조사에서는 감소하였다(1차년도는 22.2%). 1차년도 조사가 출산 후 4개월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취업모의 35.7%와 비취업모의 35.2%가 후속 출산 의도가 있음에 표시하였고, 후

속 출산 의도가 없음에는 취업모의 49.3%와 비취업모의 55.6%가 응답을 하였다.

첫째 자녀 어머니들의 63.4%와 둘째 자녀이상의 어머니의 10.0%가 추가적인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20.8%와 83.3%의 어머니들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I-3-1〉 후속 출산 의도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낳겠음	28.0	35.0	35.7	35.2	63.4	10.0
낳지 않겠음	49.7	53.6	49.3	55.6	20.8	83.3
잘 모르겠음	22.2	10.9	14.7	9.1	15.5	6.7
이혼	-	0.1	0.3	0.0	0.2	0.0
기타	0.2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모취업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잘 모르겠음'과 '이혼'에 응답한 집단을 제외하고, '낳겠음'과 '낳지 않겠음'에 응답한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I-3-2>와 같다. 모취업여부에 따라 '낳겠음' 또는 '낳지 않겠음'이라고 응답한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과 후속 출산 의도는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I-3-2〉 어머니 취업 여부와 출생순위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낳겠음	39.7	40.7	38.5	74.3	11.4
낳지 않겠음	60.3	59.3	61.5	25.7	8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69		686.94***	

*** p<.001.

<표 II-3-2>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앞으로의 출산계획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도 보여준다. 자녀의 출생순위와 '낳겠음' 또는 '낳지 않겠음'이라고 응답한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은 둘째 이상 자녀

의 어머니들보다 후속 출산 의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나)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라는 응답이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4.7%로 그 뒤를 이었다(표 V-3-3 참조). 1차년도 조사에서는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33.8%로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라는 응답이 전체의 30.5%로 나타나, 2차년도 조사에서는 1, 2위가 바뀌었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수와 자녀 교육 비용이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취업모(12.3%)의 경우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라는 이유에 비취업모(6.6%)의 2배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유급 도우미 등의 비용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3-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 (아기 관련 생필품, 유급 도우미 비용 등)	5.7	8.2	12.3	6.6	11.8	7.4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 (유치원/보육시설/학교 이용비용, 사교육 비용 등)	30.5	27.4	21.9	29.6	20.6	29.0
직장/학업 때문에	2.0	3.5	8.8	1.2	8.3	2.4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4.5	4.8	4.6	5.0	4.1	5.0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33.8	24.7	25.8	24.4	2.6	29.7
나이가 많아서	7.1	6.7	5.7	7.2	14.1	5.1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16.4	1.0	19.1	21.4	34.1	17.8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0.9	0.4	1.1	2.0	0.6
모름/무응답	-	2.9	1.5	3.5	2.3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이유에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2.6%와 둘째 자녀 이상의 어머니들의 29.7%가 응답을 하여,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응

답율에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라는 이유에는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34.1%와 둘째 자녀 이상인 어머니들의 17.8%가 응답하였고, 그 차이는 2배정도였다.

다)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5.6%가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14.2%,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고, 4명 이상은 응답이 없었다(표 II-3-4 참조). 이 응답의 경향은 1차년도 및 모취업여부에 따른 응답경향과 동일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결과 중 흥미로운 발견은, 자녀를 둘 이상 가진 어머니들도(90.6%) 자녀를 하나 가진 어머니들과(84.7%)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녀를 출산한다면 대부분이 1명을 더 낳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다.

〈표 II-3-4〉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1명	85.3	85.6	85.4	85.5	84.7	90.6
2명	13.7	14.2	13.9	14.5	15.2	8.3
3명	0.9	0.2	0.7	0.0	0.1	1.1
4명이상	0.1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후속 출산 시기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낳을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39.8%가 ‘1~2년 이내’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현재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3-5 참조). 즉, 63.7%가 2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각각 37.7%와 41.1%로 ‘1~2년 이내’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응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취업모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2~3년 이내’에 22.5%가

응답하였고, 비취업모의 경우는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에 27.4%가 응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후속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아이를 가진 경우, '1~2년 이내'에 출산을 할 계획이 42.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라고 응답한 비율이 25.0%였다.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응답률인 26.2%가 '1~2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후속 출산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출산 시기는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이라는 응답에 26.0%가 답하여 1~2년 이내에 계획 중이라고 응답한 26.2%와 거의 비슷한 퍼센트의 응답률을 보였다.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는 17.1%, '3년 이후'는 16.3%, '2~3년 이내'는 14.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3-5〉 후속 출산 시기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23.9	16.2	27.4	25.0	17.1
1~2년 이내	39.8	37.7	41.1	42.2	26.2
2~3년 이내	14.5	22.5	10.4	14.6	14.4
3년 이후	9.1	15.0	6.3	7.9	16.3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12.6	8.5	14.7	10.3	26.0
낳았음	0.1	0.0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마)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본인이 70.8%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21.4%로 그 뒤를 이었다(표 II-3-6 참조).

친정과 시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근소하였고, 부부라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이런 응답 경향은 모취업여부와 자녀의 출생순위에서도 동일하여, 다음 자녀의 출산 계획은 어머니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 제일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I-3-6〉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본인	70.8	70.8	66.6	61.8	73.5
남편	21.4	18.8	21.5	24.3	17.1
친정부모님	1.3	1.1	1.4	1.7	0.8
시부모님	2.3	1.3	2.6	2.2	2.1
본인의 형제자매	1.0	0.6	1.1	1.5	0.5
남편의 형제자매	0.3	0.2	0.4	0.4	0.3
본인의 친인척	0.2	0.5	0.0	0.2	0.1
남편의 친인척	0.1	0.1	0.1	0.1	0.1
친구, 동료 및 이웃	0.9	0.4	1.1	1.5	0.3
다른 자녀	0.3	0.0	0.4	0.5	0.1
부부	1.0	1.4	0.5	1.5	0.3
양가 부모님	0.3	0.1	0.5	0.1	0.4
기타	0.1	0.4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추가적인 출산 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본인의 선택과 남편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의 영향력 간에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는 <표II-3-7>과 같다. 모취업여부와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자녀의 출생 순위와 영향력을 미친 사람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다음 자녀의 출산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7〉 모취업과 출생순위에 따라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본인	70.8	74.4	70.1	65.6	76.7
주변 인물들	29.2	25.6	29.9	34.4	23.3
계		100.0	100.0	100.0	100.0
χ^2		3.54		27.09***	

*** $p < .001$.

바) 이상 자녀수

자신의 가족계획이나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은지 이상자녀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상자녀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어머니들의 57.0%가 2명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29.7%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9.4%였고,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다(표 II-3-8 참조). 1차년도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II-3-8〉 이상적인 자녀수: 어머니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무자녀	0.6	0.2	0.2	0.2	0.2	0.1	0.1	0.2	0.1
1명	2.2	1.9	1.8	2.0	2.5	1.3	2.1	1.8	1.6
2명	57.8	57.3	56.7	57.8	66.0	49.5	59.7	55.2	56.0
3명	31.0	29.9	30.3	29.5	22.7	36.4	27.1	32.7	30.6
4명	6.3	9.0	10.0	8.6	6.1	11.6	8.9	8.6	10.1
5명	0.4	0.4	-	0.5	0.3	0.4	0.5	0.2	0.5
잘 모르겠음	1.8	1.4	1.2	1.5	2.2	0.6	1.6	1.3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II-3-9>는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로 아버지 역시 2명으로 제일 많은 61.7%가 응답하였고, 26.6%가 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내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역의 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3.5%로 낮지만 어머니 1.9%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는 부모,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와 거주지역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2명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3명이었다.

〈표 II-3-9〉 이상적인 자녀수: 아버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무자녀	0.1	0.2	-	-	0.1	-	0.1	-
1명	3.5	3.7	3.5	5.9	1.3	3.7	3.4	3.5
2명	61.7	62.4	61.1	69.9	54.1	64.9	61.4	53.8
3명	26.6	26.7	26.8	18.3	34.2	24.4	26.6	32.5
4명	5.0	5.1	5.1	2.7	7.2	3.9	5.2	7.8
5명	1.1	0.2	1.5	0.9	1.3	1.4	0.9	1.0
잘 모르겠음	2.0	1.7	2.1	2.2	1.7	1.8	2.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이상 자녀수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56.6%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1.6%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표 V-3-10 참조). 이는 1차년도 조사에서 54.2%가 딸·아들 구분 없이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고, 44.3%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한 결과로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모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역의 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II-3-10〉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딸·아들 구분 없이	54.2	56.6	61.1	54.5	56.2	56.9	57.7	56.2	54.6
딸·아들 구분해서	44.3	41.6	37.1	43.8	41.9	41.3	40.4	42.3	44.0
잘 모르겠음	1.4	1.6	1.7	1.5	1.3	1.8	2.3	1.1	1.0
구분 없이 동성으로	-	0.2	-	0.3	0.5	-	0.1	0.4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아버지는 58.7%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9.2%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표 II-3-11 참조). 아내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역의 규모에 걸쳐 모두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II-3-13〉 성별 구분 시 이상 자녀수의 성별: 아버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딸만 2명	0.7	0.4	1.0	1.1	0.6
딸만 5명	0.1	-	-	-	0.2
아들만 2명	0.6	-	1.0	1.1	0.3
아들 1명, 딸 1명	55.8	58.6	54.6	68.5	41.6
아들 1명, 딸 2명	16.8	16.8	16.7	13.3	20.7
아들 1명, 딸 3명	0.1	0.4	-	0.2	-
아들 2명, 딸 1명	14.2	12.9	14.8	8.6	20.5
아들 2명, 딸 2명	10.4	10.6	10.4	5.5	15.9
아들 2명, 딸 3명	0.9	0.3	1.1	0.3	0.9
아들 3명, 딸 2명	0.1	-	0.2	0.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부모됨의 태도

가) 자녀가치

자녀 가치는 총 7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은 개념적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3개, 4개 문항이 해당된다. 전체 응답 범위는 7~28점이며, 정서적 가치는 3~12점, 도구적 가치는 4~16점 사이에 분포되지만, 문항의 개수가 다르므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II-3-14>에 제시되었듯이, 어머니의 전체적인 자녀가치의 평균값은 3.53점, 아버지의 자녀가치 평균값은 3.82점이었다. 하위척도별로는, 어머니의 정서적 가치 평균값은 4.32점(1차년도 4.46점), 도구적 가치 평균값은 2.93점(1차년도 2.96점)이었으며, 아버지의 정서적 가치 평균값은 4.48점(1차년도 4.91점), 도구적 가치 평균값은 3.33점(1차년도 3.79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 점수 각각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자녀가치를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척도에서도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정서적, 도구적 가치를 어머니들보다 더 인지하였다.

〈표 II-3-14〉 자녀가치: 부모

단위: 점

구분	자녀가치		정서적가치				도구적가치			
	어머니 아버지		1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문항평균	3.53	3.82	4.46	4.91	4.32	4.48	2.96	3.79	2.93	3.33
표준편차	0.58	0.57	0.54	1.39	0.58	0.52	0.79	1.81	0.77	0.79
t	-19.02 ^{***}		na		-9.99 ^{***}		na		-19.34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2)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p<.001.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지는 <표 II-3-15>, 정서적 가치인지는 <표 II-3-16>, 도구적 가치인지는 <표 II-3-17>에 각기 제시되어 있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지는 취업모의 경우 3.55점, 비취업모의 경우 3.52점이었다. 정서적 가치는 취업모는 4.36점, 비취업모는 4.31이었고, 도구적 가치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각각 2.94와 2.93이었다. t검증 결과는 이 차이가 모두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가치 인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15〉 자녀 가치: 어머니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55	3.52	3.50	3.54	3.53	3.51	3.53
표준편차	0.56	0.60	0.58	0.59	0.55	0.60	0.63
t / F	0.72		-1.92		0.1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지는 첫째 자녀일 때 3.50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3.54점이었다. 정서적 가치는 첫째 자녀일 때 4.34점, 둘째자녀이상일 때 4.31점, 도구적 가치는 첫째 자녀일 때 2.88점, 둘째자녀이상일 때 2.97점이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식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는 도구적 가치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하여, 어머니들은 첫째자녀보다 둘째자녀이상에게 도구적

가치를 인지함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전체적인 자녀가치의 차이와 정서적 가치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지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가치 인지는 전체적으로도, 하위척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3-16〉 정서적 자녀 가치: 어머니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4.36	4.31	4.34	4.31	4.31	4.31	4.37
표준편차	0.55	0.59	0.57	0.58	0.55	0.61	0.57
t / F	1.63		0.90		1.7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표 II-3-17〉 도구적 자녀 가치: 어머니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94	2.93	2.88	2.97	2.95	2.92	2.90
표준편차	0.74	0.78	0.77	0.77	0.73	0.77	0.85
t / F	0.64		-3.04**		0.49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 $p < .01$.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지는 <표 II-3-18>, 정서적 가치인지는 <표 II-3-19>, 도구적 가치인지는 <표 II-3-20>에 각기 제시되어 있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지는 아내가 취업한 경우 3.77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3.84점이었다. 정서적 가치는 아내의 취업에 상관없이 4.48점으로 동일하였고, 도구적 가치는 아내가 취업한 경우 3.24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3.37점이었다. t검증 결과는 도구적 가치에서 유의하여,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자녀의 도구적 가치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지는 첫째 자녀일 때 3.81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3.83점이었다. 정서적 가치는 첫째 자녀일 때 4.51점, 둘째자녀이상일 때 4.45점, 도구적 가치는 첫째 자녀일 때 3.28점, 둘째자녀이상일 때 3.37점이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식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는 이번에도 도구적 가치의 하위척도에서 유의하여,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아버지들이 첫째자녀보다 둘째자녀이상에게 도구적 가치를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 규모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가치 인지는 전체적으로도, 하위척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3-18〉 자녀 가치: 아버지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77	3.84	3.81	3.83	3.81	3.84	3.80
표준편차	0.57	0.57	0.55	0.58	0.57	0.56	0.57
t / F	-1.68		-1.22		0.14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표 II-3-19〉 정서적 자녀 가치: 아버지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4.48	4.48	4.51	4.45	4.47	4.48	4.48
표준편차	0.52	0.52	0.49	0.55	0.53	0.51	0.51
t / F	0.82		1.81		0.4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표 II-3-20〉 도구적 자녀 가치: 아버지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24	3.37	3.28	3.37	3.31	3.36	3.29
표준편차	0.78	0.78	0.78	0.79	0.79	0.77	0.82
t / F	-2.55*		-2.43*		0.21		

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것임.

*p<.05

나. 어머니 특성

1) 자기효능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가능한 점수범위인 4~20점 가운데 평균 9.24점이었고, 1차년도 조사의 평균 8.9점에 비해 증가하였다. 취업모의 평균은 8.95점, 비취업모의 평균은 9.36점이었다(표 II-3-21 참조).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들의 자기효능감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조사 결과는 두 집단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t검증으로 비교한 결과도 유의하였다.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은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21>에 따르면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8.90	9.24	8.95	9.36	9.08	9.38	9.18	9.22	9.42
표준 편차	2.74	2.79	2.65	2.84	2.86	2.72	2.78	2.78	2.82
<i>t / F</i>			-2.96**		-2.32*		0.92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함.

* $p < .05$. ** $p < .01$.

2) 자아존중감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점수범위는 10~40점 사이이다.

전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5.22점이며 1차년도 조사의 평균 30.2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2 참조).

취업모의 평균 점수는 25.42점, 비취업모는 25.13점으로 이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5.12점,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의 점수는 25.31점으로 이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이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2>에 의하면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기존중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2>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0.20	25.22	25.42	25.13	25.12	25.31	25.29	25.15	25.22
표준 편차	4.11	2.05	2.01	2.06	2.09	2.01	2.05	2.07	1.99
<i>t / F</i>			2.93**		-2.02*		0.89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

p*<.05. *p*<.01.

3) 우울

인간의 부정적 심리특성인 우울을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mild/moderate)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된다.

우울의 정도를 정상, 경도/중등도와 중도로 나누어본 결과, 72.5%는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22.1%는 경도/중증도 우울, 5.4%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3-23 참조).

모취업여부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χ^2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경도/중등도 집단과 중도 집단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와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3〉 어머니의 우울 정도(임상집단 여부)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정상	71.5	72.5	78.6	68.9	73.6	70.5	74.2	72.1	69.3
경도/ 중등도	22.0	22.1	16.8	24.9	21.3	23.3	20.6	22.9	24.1
중도	6.5	5.4	4.7	6.2	5.1	6.2	5.3	5.0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9.10***		2.54		1.23		

*** $p < .001$.

〈표 II-3-24〉에서 보듯이, 우울의 평균점수는 11.53점이었고 이는 1차년도 조사의 11.67점 보다 감소한 것이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의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들 간의 우울 점수 차이도 유의하였는데,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첫째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우울의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들의 우울 점수는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4〉 어머니의 우울 정도(평균)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1.67	11.53	11.11	11.72	11.33	11.72	11.43	11.63	11.55
표준편차	3.91	4.21	4.03	4.29	4.19	4.23	4.25	4.13	4.31
t / F			-2.98**		-2.02*		0.45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두 변인을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겠다.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다. 결혼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어머니가 15.50점, 아버지가 17.16점으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어머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이 차이는 유의함을 보여주었다(표 II-3-25 참조). 즉, 어머니들에 비해 아버지들이 결혼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3-25〉 부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15.23	17.11	15.50	17.16
표준편차	3.06	2.74	3.14	2.84
t	-		-19.97***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p<.001.

모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표 II-3-26>과 같다. 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5.61점, 비취업모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5.46점이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모들과 비취업모들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78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5.26점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가 둘째 자녀 이상인 어머니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았다.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6〉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어머니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5.61	15.46	15.78	15.26	15.65	15.43	15.30
표준편차	3.10	3.15	3.29	3.00	3.13	3.07	3.35
t / F	1.00		3.60***		1.7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p<.001.

모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표 II-3-27>과 같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7.08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17.20점이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첫 자녀일 때 17.49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85점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자녀가 하나인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가 자녀가 둘 이상인 아버지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았다.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7>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결혼만족도: 아버지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7.08	17.20	17.49	16.85	17.18	17.16	17.08
표준편차	2.90	2.78	2.73	2.89	2.82	2.80	2.98
t / F	-0.83		4.82***		0.13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p < .001$.

2) 부부갈등

부부가 느끼는 갈등의 정도를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 정도의 평균은 16.19점, 남편이 인지한 부부갈등 정도의 평균은 15.93점으로, 부부갈등의 정도는 1차년도보다 부부 모두에게서 증가하였다. 2차년도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표 II-3-28 참조). 즉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부부갈등을 더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8> 부부 갈등의 정도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평균	15.92	15.05	16.19	15.93
표준편차	6.21	5.49	6.10	5.64
t	-		2.02*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함.
* $p < .05$.

모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 정도는 <표 II-3-29>와 같다. 취업모의 부부갈등 점수는 16.19점, 비취업모의 부부갈등 점수는 16.20점이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업모들과 비취업모들의 부부갈등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 정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65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66점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은 둘째 자녀이상의 어머니들보다 부부갈등 정도가 낮았다.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부부갈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29>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어머니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6.19	16.20	15.65	16.66	16.08	16.20	16.44
표준편차	5.86	6.23	6.11	6.06	6.42	5.80	5.96
t / F	-0.31		-3.54***		0.39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함.
***p<.001

모취업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가 인지한 부부갈등의 정도는 <표 II-3-30>과 같다. 아내가 취업한 경우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는 16.17점,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는 15.79점이며,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른 남편의 부부갈등 정도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아버지의 부부갈등 정도는 첫째 자녀일 때 15.46점, 둘째 자녀이상일 때 16.35점이고,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첫째 자녀의 아버지들은 둘째 자녀이상의 아버지들보다 부부갈등 정도가 낮았다.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아버지의 부부갈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3-30>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부 갈등: 아버지
단위: 점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6.17	15.79	15.46	16.35	15.80	15.85	16.44
표준편차	5.70	5.61	5.67	5.58	5.83	5.38	5.78
t / F	0.20		-3.31***		1.44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함.
***p<.001.

부부 모두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부부갈등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이는 둘째 이상의 부모보다 첫째 자녀의 부모가 부부갈등의 정도가 낮았다.

라. 양육특성

부모됨의 6가지 요인 중 처음에 기술한 자녀가치와 자녀기대의 두 변인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겠다.

1) 자녀 기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1) 돈을 잘 번다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중시한다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정한 점수를 '매우 원한다' 1점, '다소 원한다' 2점, '별로 개의치 않는다' 3점, '전혀 개의치 않는다' 4점으로 환산하였다. 결과는 응답률과 평균치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3-31〉 자녀기대: 부모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1차년도		2차년도		t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금전	아버지	29.6	58.2	11.4	0.8	100.0	1.89	0.66	1.84	0.65	3.37***
	어머니	29.8	62.7	7.0	0.6	100.0	1.83	0.61	1.78	0.58	
명성	아버지	21.7	47.3	28.8	2.3	100.0	2.14	0.75	2.11	0.77	-4.12***
	어머니	17.5	47.2	33.4	1.9	100.0	2.23	0.77	2.20	0.75	
사회적 지위	아버지	22.4	44.7	30.8	2.1	100.0	2.14	0.76	2.12	0.78	-2.00*
	어머니	18.8	47.9	31.4	1.9	100.0	2.17	0.76	2.17	0.74	
이타심	아버지	37.2	52.7	9.7	0.3	100.0	1.75	0.63	1.71	0.64	-4.60***
	어머니	30.8	58.7	10.1	0.4	100.0	1.78	0.63	1.79	0.62	
행복한 가정	아버지	85.7	13.0	0.9	0.4	100.0	1.14	0.37	1.15	0.39	2.43*
	어머니	88.9	10.4	0.8	-	100.0	1.10	0.33	1.12	0.35	
취미나 여가	아버지	14.6	51.2	32.0	2.2	100.0	2.30	0.69	2.21	0.73	-6.09***
	어머니	9.4	49.9	38.6	2.2	100.0	2.38	0.68	2.34	0.67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 $p < .05$. *** $p < .001$.

아버지의 86.6%, 어머니의 90.8%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매우 원한다'고 응답해, 부모 모두 자녀의 장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I-3-31 참조). 다음으로는 이타심과 금전적 성공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1차년도와 동일하다.

각 항목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보인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기대하는 항목은 금전과 행복한 가정이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기대하는 항목은 명성, 사회적 지위, 이타심 및 취미나 여가 생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본인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취미나 여가생활이었다(표 II-3-32 참조). 즉,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자녀들이 취미나 여가생활을 더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2〉 모취업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금전	취업모	29.5	63.9	6.4	0.2	100.0	1.79	0.56	0.43
	비취업모	29.7	62.3	7.3	0.7	100.0	1.78	0.61	
명성	취업모	17.6	49.7	30.4	2.3	100.0	2.18	0.75	-0.50
	비취업모	17.7	46.1	34.6	1.7	100.0	2.20	0.76	
사회적 지위	취업모	18.5	52.5	26.0	3.0	100.0	2.15	0.75	-0.51
	비취업모	19.0	45.8	33.8	1.4	100.0	2.17	0.75	
이타심	취업모	32.4	58.8	8.6	0.3	100.0	1.75	0.61	-1.93
	비취업모	30.1	58.6	10.8	0.5	100.0	1.81	0.63	
행복한 가정	취업모	91.3	8.7	0.1	-	100.0	1.10	0.31	-1.63
	비취업모	88.6	10.2	0.1	-	100.0	1.13	0.37	
취미나 여가	취업모	10.1	53.0	35.4	1.4	100.0	2.28	0.67	-2.66**
	비취업모	8.8	48.8	40.4	2.1	100.0	2.36	0.67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 p<.01.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금전이었던(표 II-3-33 참조). 즉, 어머니들은 둘째이상의 자녀들의 어머니보다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미래에 돈을 더 잘 벌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33〉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금전	첫째	27.0	64.4	8.1	0.5	100.0	1.81	0.60	2.39*
	둘째이상	32.3	61.1	6.0	0.6	100.0	1.75	0.59	
명성	첫째	16.0	46.7	34.9	2.5	100.0	2.23	0.77	1.85
	둘째이상	18.9	47.7	32.0	1.5	100.0	2.17	0.70	
사회적 지위	첫째	17.2	48.1	32.3	2.4	100.0	2.19	0.75	1.10
	둘째이상	20.2	47.7	30.6	1.4	100.0	2.15	0.75	
이타심	첫째	29.9	58.0	11.5	0.5	100.0	1.82	0.65	1.42
	둘째이상	31.5	59.2	8.9	0.3	100.0	1.78	0.61	
행복한 가정	첫째	89.7	9.8	0.5	-	100.0	1.12	0.35	-0.17
	둘째이상	89.4	9.6	1.1	-	100.0	1.12	0.35	
취미나 여가	첫째	8.5	49.1	40.7	1.7	100.0	2.35	0.67	0.68
	둘째이상	10.0	51.0	37.0	2.1	100.0	2.33	0.67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 $p < .05$.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기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표 II-3-34 참조).

〈표 II-3-34〉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기대: 어머니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금전	대도시	29.9	64.7	4.8	0.6	100.0	1.76	0.58	0.51
	중소도시	28.9	62.6	7.7	0.7	100.0	1.79	0.59	
	읍면지역	31.3	57.6	11.1	-	100.0	1.79	0.62	
명성	대도시	15.8	50.5	32.2	1.5	100.0	2.22	0.74	0.78
	중소도시	18.1	46.7	33.6	1.7	100.0	2.22	0.74	
	읍면지역	20.7	39.7	35.8	3.7	100.0	2.22	0.81	
사회적 지위	대도시	17.7	50.7	30.0	1.6	100.0	2.22	0.74	0.36
	중소도시	18.7	47.2	32.1	2.0	100.0	2.22	0.75	
	읍면지역	21.7	42.4	33.3	2.7	100.0	2.22	0.78	
이타심	대도시	29.1	60.1	10.4	0.3	100.0	1.81	0.62	1.33
	중소도시	31.9	59.1	8.5	0.5	100.0	1.78	0.61	
	읍면지역	32.4	53.9	13.1	0.6	100.0	1.82	0.67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행복한 가정	대도시	88.8	10.1	1.1	-	100.0	0.37	0.37	1.21
	중소도시	89.7	9.9	0.4	-	100.0	0.33	0.33	
	읍면지역	90.9	8.1	0.9	-	100.0	0.33	0.33	
취미나 여가	대도시	8.9	51.3	37.8	2.0	100.0	2.33	0.67	0.31
	중소도시	9.5	48.9	40.4	1.2	100.0	2.34	0.66	
	읍면지역	9.6	49.6	37.2	3.5	100.0	2.34	0.70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으며, 이는 아내의 취업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기대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표 II-3-35 참조).

〈표 II-3-35〉 모취업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금전	취업모	28.5	58.5	12.6	0.4	100.0	1.84	0.63	0.30
	비취업모	30.3	57.8	10.9	1.0	100.0	1.83	0.65	
명성	취업모	21.6	47.7	29.0	1.7	100.0	2.09	0.77	-0.80
	비취업모	21.8	46.8	28.8	2.6	100.0	2.12	0.77	
사회적 지위	취업모	21.7	46.3	30.5	1.5	100.0	2.10	0.78	-0.70
	비취업모	22.7	44.0	30.9	2.4	100.0	2.13	0.78	
이타심	취업모	36.6	55.3	8.3	0.1	100.0	1.68	0.62	-1.29
	비취업모	33.7	51.4	10.4	0.4	100.0	1.73	0.65	
행복한 가정	취업모	81.6	17.5	0.5	0.4	100.0	1.16	0.40	1.33
	비취업모	87.7	10.8	1.1	0.4	100.0	1.14	0.39	
취미나 여가	취업모	15.5	50.9	32.0	1.6	100.0	2.17	0.73	-1.54
	비취업모	14.3	51.2	32.2	2.3	100.0	2.23	0.73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자녀의 출생순위에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표 II-3-36 참조),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기대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II-3-36〉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t
금전	첫째	27.9	59.7	11.8	0.6	100.0	1.85	0.64	0.79
	둘째이상	31.2	56.8	11.1	1.0	100.0	1.83	0.65	
명성	첫째	21.2	45.8	31.1	2.0	100.0	2.12	0.78	0.61
	둘째이상	22.1	48.6	26.7	2.6	100.0	2.10	0.75	
사회적 지위	첫째	20.8	45.7	31.4	2.0	100.0	2.13	0.79	0.29
	둘째이상	23.7	43.8	30.2	2.3	100.0	2.12	0.78	
이타심	첫째	36.0	53.8	9.9	0.3	100.0	1.71	0.64	0.73
	둘째이상	38.4	51.7	9.6	0.3	100.0	1.71	0.64	
행복한 가정	첫째	85.6	12.5	1.3	0.6	100.0	1.15	0.41	0.17
	둘째이상	85.8	13.4	0.6	0.3	100.0	1.15	0.38	
취미나 여가	첫째	15.0	52.1	31.3	1.6	100.0	2.18	0.72	-1.84
	둘째이상	14.2	50.4	32.7	2.7	100.0	2.24	0.74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기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표 II-3-37 참조).

〈표 II-3-37〉 거주지 규모에 따른 자녀기대: 아버지

단위: %, 점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금전	대도시	29.6	58.0	11.5	0.9	100.0	1.82	0.64	0.45
	중소도시	29.7	58.5	11.2	0.6	100.0	1.84	0.65	
	읍면지역	29.5	57.8	11.7	1.0	100.0	1.86	0.65	
명성	대도시	21.0	44.8	31.7	2.5	100.0	2.12	0.79	0.63
	중소도시	21.5	49.4	26.8	2.2	100.0	2.12	0.76	
	읍면지역	23.7	48.7	25.9	1.7	100.0	2.10	0.73	
사회적 지위	대도시	22.7	41.6	33.1	2.6	100.0	2.13	0.81	0.07
	중소도시	21.1	48.6	28.5	1.8	100.0	2.13	0.76	
	읍면지역	24.4	44.0	30.0	1.7	100.0	2.11	0.76	
이타심	대도시	36.4	53.7	9.2	0.7	100.0	1.71	0.64	0.70
	중소도시	39.1	50.9	9.9	0.1	100.0	1.70	0.64	
	읍면지역	34.9	54.1	11.0	-	100.0	1.75	0.64	

구분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계	평균	표준 편차	F
행복한 가정	대도시	85.7	12.6	1.1	0.7	100.0	1.15	0.40	2.15
	중소도시	84.3	14.5	0.9	0.3	100.0	1.16	0.40	
	읍면지역	88.9	10.6	0.5	-	100.0	1.11	0.33	
취미나 여가	대도시	15.4	50.2	32.5	1.9	100.0	2.19	0.73	2.20
	중소도시	14.7	52.1	31.1	2.1	100.0	2.21	0.73	
	읍면지역	12.3	51.5	33.1	3.2	100.0	2.29	0.72	

주: 점수가 낮을수록 각 항목을 원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임.

2) 양육신념

부모의 양육신념은 부모의 책임과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가)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와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 중 더 동의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V-3-38〉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신념: 부모의 책임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47.7	52.0	48.2	53.2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 됨	52.3	48.0	51.8	46.8
계	100.0	100.0	100.0	100.0
χ^2	na		150.67***	

주: na는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을 의미함.

*** $p < .001$.

부모들은 위의 두 가지 진술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여, 어머니의 48.2%, 아버지의 53.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고 1차년도에는 각각 47.7%와 52.0%였다(표 V-3-38 참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률의 차이를 χ^2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더 막중하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책임에서, 취업모의 47.6%, 비취업모의 49.4%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이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I-3-39 참조).

〈표 II-3-39〉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책임: 어머니
단위: %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47.6	49.4	46.2	51.0	49.8	47.0	46.8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 됨	52.4	50.6	53.8	49.0	50.2	53.0	5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51		4.34***		1.38		

* $p < .05$.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책임에서, 첫째자녀 어머니의 46.2%, 둘째이상 자녀 어머니의 51.0%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이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자녀의 어머니보다 둘째이상 자녀의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부모의 책임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에 있어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I-3-40〉 모취업,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부모의 책임: 아버지
단위: %

구분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함	52.4	55.2	52.0	56.2	52.5	53.1	55.1
자녀 때문에 본인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선 안 됨	47.6	44.8	48.0	43.8	47.5	46.9	4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14		3.16		1.82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책임에서, 아내가 취업한 남편의 52.4%, 아내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55.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이 차이를 χ^2 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II-3-40 참조).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의 책임에서, 첫째자녀 아버지의 52.0%, 둘째이상 자녀 아버지의 56.2%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이 차이를 χ^2 검정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책임에 대한 아버지들의 응답에 있어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나)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질과 특성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으로 질문한 11개 중 특히 중요한 것으로 부모 모두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들었으며, 이어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을 선택하였다(표 II-3-41 참조). 부모 모두 가장 낮게 선택한 자질과 특성은 '이타심'이었다. 이 결과는 1차와 동일하다.

〈표 II-3-41〉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중복응답): 부모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의바른 생활습관	17.9	18.4	18.0	18.3
독립심	10.0	9.7	9.8	9.3
근면함	11.3	9.6	10.7	9.3
책임감	17.0	17.3	17.2	17.7
상상력	4.4	3.9	4.1	3.8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16.1	15.6	13.9	15.2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7.3	8.1	8.3	7.9
결단력과 끈기	8.8	9.2	9.3	10.0
종교적 신념	3.4	2.8	2.2	2.6
이타심	1.4	1.2	1.7	1.3
어른 말씀 잘 듣기	3.4	4.3	4.9	4.5
계	100.0	100.0	100.0	100.0

모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및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부모 각각이 원하는 자녀의 자질과 특성을 비교한 아래의 〈표 II-3-42〉와 〈표 II-3-43〉에서 보듯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의 순서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3) 양육스타일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사회적 양육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를 선정하여, 총 6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임을 의미한다. 양육스타일은 크게 온정성과 반응성 요인⁸⁾으로 분류되며, 각각 3문항씩이 해당된다. 따라서 각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3~15점이다.

〈표 II-3-44〉 양육스타일: 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3.38	23.19	23.47	23.60	23.18	23.32	23.42	23.42
표준편차	2.96	2.94	2.97	3.02	2.89	2.95	2.94	3.03
<i>t / F</i>		-1.90		3.04*		0.23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을 의미함.
* $p < .05$.

어머니들의 전체적인 양육스타일 평균점수는 23.38점, 온정성 평균점수는 11.38점, 반응성 점수는 11.68점으로 반응성 양육점수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3-44, 표 II-3-45, 표 II-3-46 참조).

〈표 II-3-45〉 양육스타일: 온정성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2.19	11.69	11.45	11.82	11.91	11.50	11.65	11.71	11.76
표준편차	1.70	1.65	1.73	1.60	1.66	1.62	1.65	1.63	1.72
<i>t</i>			-4.46***		5.35***		0.55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유형을 의미함.
*** $p < .001$.

모취업에 따른 양육스타일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온정성 스타일에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모들이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타일에서 더 온

8) 1차보고서에는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요인으로 명명되어 있음.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67.51	69.51	69.93	69.41	68.14	70.70	69.44	69.89	68.78
표준편차	15.99	16.40	14.73	17.06	16.89	15.88	16.23	15.94	17.84
t / F			0.64		-3.40***		0.53		

*** p<.001.

모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지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차이에 대한 t검정 분석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둘째 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이 양육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은 거주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총 10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범위는 10~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3-48>에 제시되었듯이,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7.31점으로 1차년도의 27.56점보다 약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3-48>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27.56	27.31	26.49	27.70	26.40	28.11	27.29	27.44	27.05
표준편차	6.17	6.37	6.16	6.46	6.31	6.32	6.33	6.42	6.38
t / F			-3.89***		-5.86***		0.43		

주: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 p<.001.

모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 간에 양육스트레스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을 나타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분석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첫째 자녀의 어머니들보다 둘째이상 자녀의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육아지원 관련 특성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1)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1) 4개월 이후 낮 시간 주 양육자

출생 4개월 이후 조사 시까지 낮 시간 동안 아이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아준 주 양육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41>과 같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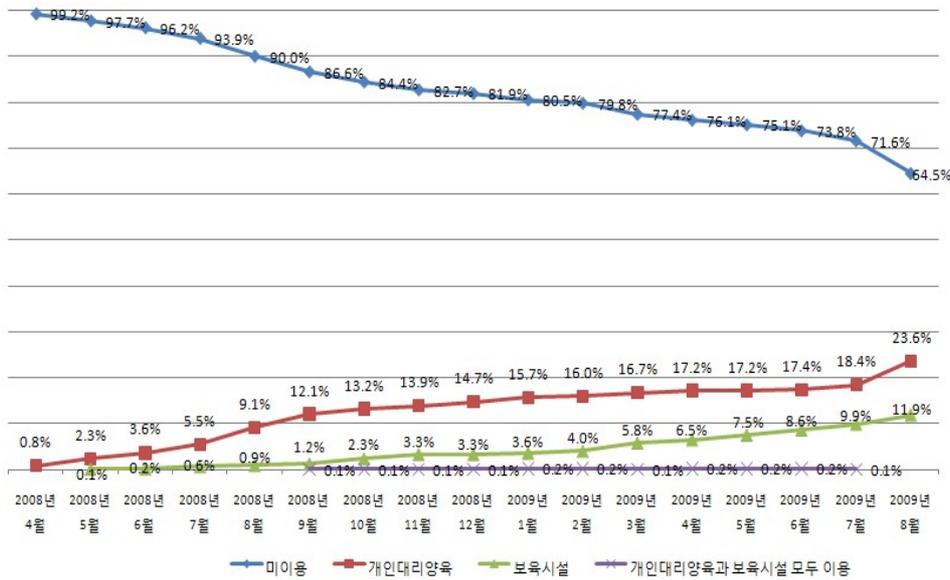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릴수록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어린 연령일수록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기보다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부모의 직접 양육에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만2세까지는 개인 대리 양육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대리 양육자와 보육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도 소수 나타나고 있다(그림 II-41 참조).

〈표 II-4-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미이용	개인대리양육	보육시설	보육시설과 개인대리양육	전체
2008년 4월	99.2	0.8	-	-	100.0
2008년 5월	97.7	2.3	0.1	-	100.0
2008년 6월	96.2	3.6	0.2	-	100.0
2008년 7월	93.9	5.5	0.6	-	100.0
2008년 8월	90.0	9.1	0.9	-	100.0
2008년 9월	86.6	12.1	1.2	0.1	100.0
2008년 10월	84.4	13.2	2.3	0.1	100.0
2008년 11월	82.7	13.9	3.3	0.1	100.0
2008년 12월	81.9	14.7	3.3	0.1	100.0
2009년 1월	80.5	15.7	3.6	0.2	100.0
2009년 2월	79.8	16.0	4.0	0.2	100.0
2009년 3월	77.4	16.7	5.8	0.1	100.0
2009년 4월	76.1	17.2	6.5	0.2	100.0
2009년 5월	75.1	17.2	7.5	0.2	100.0
2009년 6월	73.8	17.4	8.6	0.2	100.0
2009년 7월	71.6	18.4	9.9	0.1	100.0
2009년 8월	64.5	23.6	11.9	-	100.0



[그림 II-4-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가)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4개월 이후 낮 시간 주 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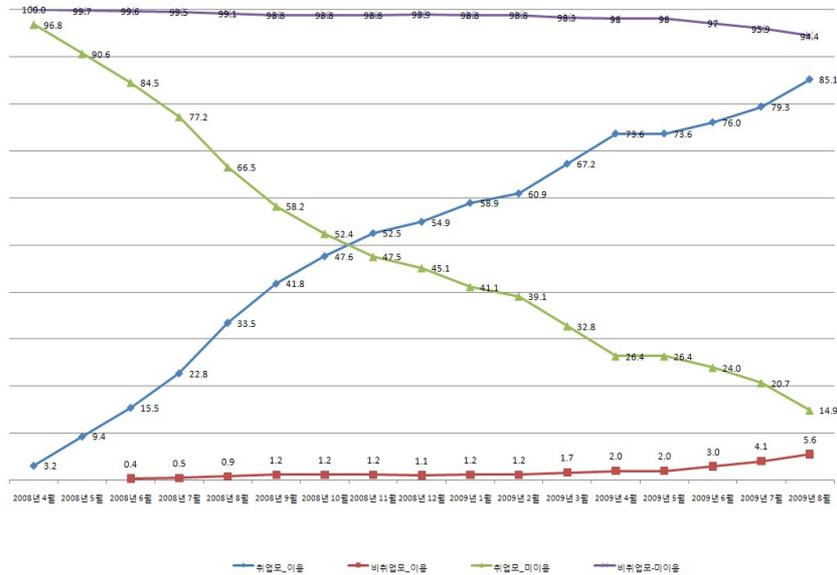
개인 대리 양육 및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취업모의 경우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이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4-2 참조).

〈표 II-4-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취업모			비취업모		
	이용	미이용	전체	이용	미이용	전체
2008년 4월	96.8	3.2	100.0	100.0	-	100.0
2008년 5월	90.6	9.4	100.0	99.7	0.3	100.0
2008년 6월	84.5	15.5	100.0	99.6	0.4	100.0
2008년 7월	77.2	22.8	100.0	99.5	0.5	100.0
2008년 8월	66.5	33.5	100.0	99.1	0.9	100.0
2008년 9월	58.2	41.8	100.0	98.8	1.2	100.0
2008년 10월	52.4	47.6	100.0	98.8	1.2	100.0
2008년 11월	47.5	52.5	100.0	98.8	1.2	100.0
2008년 12월	45.1	54.9	100.0	98.9	1.1	100.0
2009년 1월	41.1	58.9	100.0	98.8	1.2	100.0
2009년 2월	39.1	60.9	100.0	98.8	1.2	100.0
2009년 3월	32.8	67.2	100.0	98.3	1.7	100.0
2009년 4월	26.4	73.6	100.0	98.0	2.0	100.0
2009년 5월	26.4	73.6	100.0	98.0	2.0	100.0
2009년 6월	24.0	76.0	100.0	97.0	3.0	100.0
2009년 7월	20.7	79.3	100.0	95.9	4.1	100.0
2009년 8월	14.9	85.1	100.0	94.4	5.6	100.0

이와 같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경향은 <그림 II-4-2>와 같이 취업모의 경우 개인 대리 양육 혹은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비취업모에 비하여 아이의 성장에 따라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으로 복귀하는 시점을 자녀가 5개월경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점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직업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따른 어려움을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I-4-2]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나)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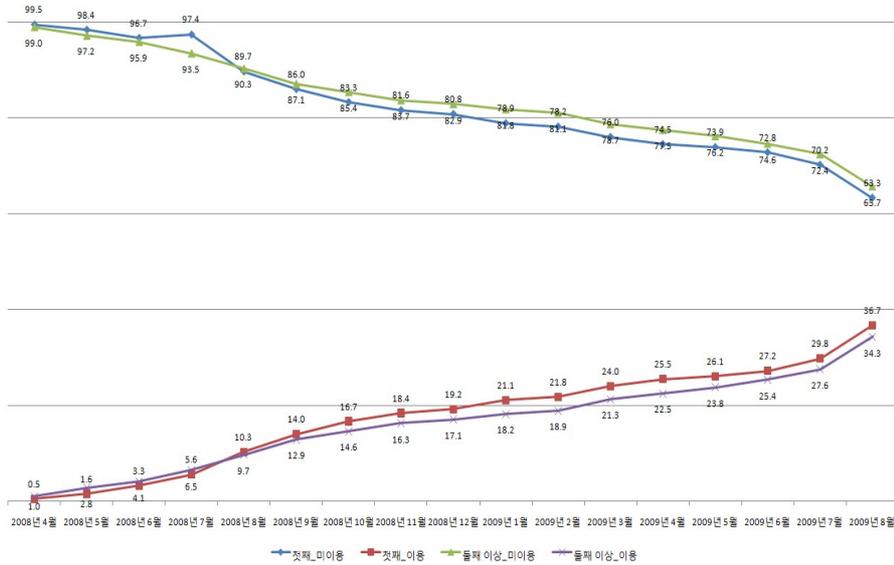
대상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4-3> 같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4-3 참조).

<표 II-4-3>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첫째			둘째 이상		
	이용	미이용	전체	이용	미이용	전체
2008년 4월	99.5	0.5	100.0	99.0	1.0	100.0
2008년 5월	98.4	1.6	100.0	97.2	2.8	100.0
2008년 6월	96.7	3.3	100.0	95.9	4.1	100.0
2008년 7월	97.4	5.6	100.0	93.5	6.5	100.0
2008년 8월	89.7	10.3	100.0	90.3	9.7	100.0
2008년 9월	86.0	14.0	100.0	87.1	12.9	100.0
2008년 10월	83.3	16.7	100.0	85.4	14.6	100.0
2008년 11월	81.6	18.4	100.0	83.7	16.3	100.0
2008년 12월	80.8	19.2	100.0	82.9	17.1	100.0

구분	첫째			둘째 이상		
	이용	미이용	전체	이용	미이용	전체
2009년 1월	78.9	21.1	100.0	81.8	18.2	100.0
2009년 2월	78.2	21.8	100.0	81.1	18.9	100.0
2009년 3월	76.0	24.0	100.0	78.7	21.3	100.0
2009년 4월	74.5	25.5	100.0	77.5	22.5	100.0
2009년 5월	73.9	26.1	100.0	76.2	23.8	100.0
2009년 6월	72.8	27.2	100.0	74.6	25.4	100.0
2009년 7월	70.2	29.8	100.0	72.4	27.6	100.0
2009년 8월	63.3	36.7	100.0	65.7	34.3	100.0



[그림 II-4-3]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2) 현재 주 양육자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낮 시간 주 양육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1차년도 조사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는 전체의 84.4%였으나, 2차년도 조사시에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비율은 72.3%로 전체 대상의 72.3%는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1차년도 조사시에 15.6%였던 것에 반해 27.7%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만 개인 대리 양육, 보육시설과 같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경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부모에 의해 직접적 양육보다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취업모의 경우 96.6%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고 있으나, 취업모의 경우 20.5%만이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주 양육자 현황에 있어서의 통계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취업모의 경우 직접 양육하는 경우보다 육아지원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 당시 출생 순위에 따른 현재 주 양육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4〉 주 양육자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72.3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어머니	84.4	72.3	206	96.6	71.2	73.3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	15.6	27.7	79.4	3.4	28.7	2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166.17***		0.19	

주: 소수의 아버지 응답자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제시함.
*** $p < .001$

(3)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양육한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라는 응답이 전체의 38.6%,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6.3%로 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가 19.5%로 나타나 육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연령과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표 V-45 참조).

이러한 경향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다만 비취업모의 경우 '아이가 싫어해서',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다른 양육자나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와 같은 아이의 특성 요인들도 다소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와 같은 이후 출산 아동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영향과, 기타 '남편의 반대'와 같은 가족에 의한 요인이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이

유로 조사되었다.

패널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를 <표 II-45>에 제시하였다. 육아지원서비스를 미이용 이유에 있어서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영아의 출생 순위가 둘째이상의 자녀일 경우에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라는 이유가 더 적었고,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와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라는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둘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영아가 첫째아일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더 많아져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적게 들 수 있고, 다음으로 둘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결과(표 II-44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경우 어머니가 굳이 아이를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에 보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영아가 둘째 이상일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이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 인해 아이가 너무 어린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 II-4-5>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보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9.5	15.8	19.8	16.4	22.2
보내고는 싶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38.6	38.4	38.7	36.6	40.5
주변에 마음에 드는 기관이 없어서	2.0	8.1	1.4	2.5	1.6
비용이 부담돼서	2.3	-	2.5	0.6	3.8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36.3	36.9	36.2	42.8	30.5
기관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0.5	0.8	0.5	0.5	0.5
아이가 싫어해서	0.2	-	0.2	-	0.3
아이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0.4	-	0.4	0.2	0.5
아이가 다른 양육자나 기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0.1	-	0.1	0.1	0.1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0.1	-	0.1	0.2	-
기타	0.1	-	0.1	0.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4.05**		31.40**	

** $p < .01$.

나) 비대가성 양육 지원

(1)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패널의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양육비용을 지불함 없이 양육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4-6>와 같다.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9.1%는 추가적인 도움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살펴봤을 때, 취업모의 경우 11.8%, 비취업모의 경우 8.9%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으로서의 복귀 시점에 맞추어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체 수단으로 주변의 도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첫째와 둘째 이상의 자녀에 있어서 비대가성 양육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슷하게 응답되었다.

<표 II-4-6> 비대가성 양육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있음	9.1	11.8	8.9	8.8	9.4
없음	90.9	88.2	91.1	91.2	9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5.48*		0.10	

* $p < .05$.

(2)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패널의 경우에 한해서, 구체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82.0% 정도의 대다수의 가구에서는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3명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3.8%로 응답되었다. 3명으로부터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생의 출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취업모의 84.0%와 비취업모의 81.7%에 있어 모두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는 1명에 의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취업모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3%의 가구에서는 3명까지 비대가성 양육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의 출생 순위를 바탕으로 첫째와 둘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의 양육 지원 인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녀가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일 경우에 비해 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II-4-7〉 비대가성 양육 지원 인원

단위: %, 명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1명	82.0	84.0	81.7	75.2	87.5
2명	14.3	16.0	14.0	16.4	12.5
3명	3.8	-	4.3	8.3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1.22	1.16	1.23	1.33	1.12
표준편차	0.50	0.37	0.51	0.62	0.33
<i>t</i>		-0.69		1.44	

(3) 비대가성 양육 지원 특성

(가)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부모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람은 주로 아이의 외할머니, 친할머니와 같은 친인척 집단에 의한 도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할머니의 경우가 49.9%로 24.7%로 보고된 친할머니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을 주로 책임지는 어머니가 친할머니에 비해 외할머니와 더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어 더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62.3%가 친정어머니인 아이의 외할머니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모에 있어서도 48.4%가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로서 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아이의 출생 순위에 따른 비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첫째인 경우 49.2%, 둘째 이상인 경우 50.6%가 아이의 외할머니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인 경우와 둘째 이상인 경우에 있어 각각 31.5%, 18.2%의 가구에 있어서 친할머니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이의 양육에 있어 부모는 물론 그들의 조부모가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아동패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II-4-8〉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친할머니	24.7	22.4	25.0	31.5	18.2
친할아버지	5.2	-	5.8	5.2	5.1
외할머니	49.9	62.3	48.4	49.2	50.6
외할아버지	2.4	-	2.7	1.3	3.5
손위 형제·자매	0.9	-	1.0	-	1.8
기타 친인척	10.4	3.0	11.3	8.3	12.4
친구 또는 이웃	1.7	3.1	1.5	2.4	1.0
가사 도우미	2.1	3.1	2.0	0.7	3.5
기타	2.7	6.2	2.3	1.4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

조부모 세대가 주를 이루는 양육 지원자의 21.4%만이 해당 패널 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9〉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동거	21.4	31.2	20.1	18.2	24.4
비동거	78.6	68.8	79.9	81.8	7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31.2%의 양육 지원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20.1%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양육 지원자와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가 18.2%,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 24.4%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

자녀의 조부모 등과 같은 비대가성 양육 지원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평균 8.98시간의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12.88시간을 지원 받는 것으로 응답해, 평균 8.47시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응답한 비취업모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인 자녀의 경우 평균 8.26시간, 둘째 이상인 자녀의 경우 평균 9.56시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0〉 비대가성 양육 지원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평균	8.98	12.88	8.47	8.26	9.56
표준편차	6.10	5.44	5.99	6.52	5.66
최소값	1	3	1	1	1
최대값	27	27	27	27	20

다) 주 대리양육자

(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패넬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1차년도 조사 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99.1%가 이유로 선택한 것과 같이, 2차년도 조사에 있어서도 93.2%의 대다수가 어머니들이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 일을 하기 위해서'가 98.3%로 대다수의 취업모는 직장을 다니기 위해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도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외에도 '개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22.3%, '대리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 같아서' 15.8%로 비교적 다양한 이유로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넬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어머니 취업여부와 마찬가지로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라는 응답이 첫째와 둘째이상 집단에서 각 96.2%, 90.2%로 동일하게 높게 응답되었다.

〈표 II-4-11〉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직장 일을 하기 위하여	99.1	93.2	98.3	31.4	96.2	90.2
공부를 하기 위하여	0.4	1.2	0.8	6.3	1.0	1.3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기를 돌보는 일이 몸에 무리가 되어서	-	0.8	0.2	7.7	0.4	1.2
개인시간을 갖기 위하여	0.3	1.7	-	22.3	0.6	2.8
대리양육자가 돌보는 것이 아기에게 더 좋은 것 같아서	0.2	1.8	0.6	15.8	0.8	2.7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서	-	0.5	-	6.3	-	0.9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	0.6	0.2	6.3	0.9	0.3
기타	-	0.3	-	4.0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주 대리양육자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의 형태로는 1차년도의 86.7%가 선택한 개인 대리 양육자가 2차년도에서도 가장 많은 60.7%로 나타났으나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차년도 12.6%였던 것에 반해 2차년도에서는 36.3%로 증가하였다.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한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1, 2차에서 각 0.7%, 3.1%로 소수 응답되었다. 즉, 만2세 미만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대리 양육을 보육시설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II-4-1>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개인 대리 양육이나 보육시설 이용 현황은 전반적으로 영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이러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의 형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64.9%의 어머니가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92.1%의 대다수 어머니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 되었다.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 형태는 영아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첫째아의 경우 대다수인 71.2%가 개인 대리양육자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둘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 개인 대리양육자 50.5%, 보육시설 46.0%로 개인 대리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후 개인 대리 양육 이용의 특성과 보육시설 이용의 특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4-12〉 주 대리양육자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개인 대리양육자	86.7	60.7	64.9	4.6	71.2	50.5
보육시설	12.6	36.3	32.0	92.1	26.1	46.0
개인대리 양육자와 보육시설 함께	0.7	3.1	3.1	3.4	2.7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54.70 ^{***}		28.88 ^{***}	

^{***} $p < .001$.

(3) 개인 대리 양육과 보육시설 병행 이유

소수이긴 하지만 보육시설과 대리양육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장시간 있기 힘들까봐' 라는 응답이 68.8%,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라는 응답이 28.2%였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서비스로는 대리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3〉 보육시설과 대리 양육 병행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68.8	65.7	100.0	69.3	68.3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3.0	3.3	-	6.5	-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28.2	31.0	-	24.1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아이의 연령에 따른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특히 비취업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답자 모두 아이의 연령상 장시간 동안 기관에서

의 생활을 하기 힘들 것을 감안하여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도 첫째아와 둘째 이상 가구 집단이 각 69.3%, 68.3%의 과반수 이상으로 아이의 연령에 따른 이유로 개인 대리 양육과 보육시설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대리 양육자의 어려움에 의한 응답도 각 24.1%, 31.7%를 차지했다. 출생 자녀가 첫째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이용 시간 제한을 이유로 선택한 비율도 6.5%에 해당했다.

2) 개인 대리 양육

가) 개인 대리 양육 이용

(1) 대리 양육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현재의 대리양육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패널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대리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는 <표 II-4-14>와 같다.

대리양육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 대해 전체의 51.8%는 '아이가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2.7%가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라고 응답해, 영아의 관점에서 대리양육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4> 대리 양육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아이가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51.8	57.2	49.0	47.6	55.7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42.7	39.2	44.7	47.3	38.5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3.1	2.2	3.6	3.0	3.3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	1.8	1.3	2.1	1.5	2.1
대리 양육자의 태도 잘 모르겠음	0.4	-	0.5	0.4	0.4
	0.1	0.2	0.1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경향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보

호와 더불어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제공되는 것을 취업모에 비해 조금 더 높은 비율인 44.7%가 선택하였다.

출생 순위에 따른 대리 양육 선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으로는, 첫째아인 경우 주요 이유로 선택된 점은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더불어 제공되는 교육적 경험의 이유에서 각기 47.6%, 47.3%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둘째 이상에 있어서는 55.7%의 과반수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38.5%가 교육적 경험을 이유로 선택하여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건강과 안전을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이유

조사 시점 당시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보육시설 대신 개인 대리 양육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라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설보다는 개인 대리 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32.6%로 나타났다.

〈표 II-4-15〉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54.2	54.9	-	59.7	46.6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으므로 비용이 부담되어서	2.9	2.6	-	2.4	3.5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0.8	0.8	-	0.5	1.1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8	2.9	-	0.9	5.5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하여서	0.2	0.2	-	0.4	-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0.6	0.6	-	-	1.4
주변에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4.6	4.7	-	4.2	5.1
시설보다는 개인대리양육이 더 믿음이 가고 안심되어서	0.5	0.5	-	0.2	0.9
기타	32.6	31.9	100.0	31.7	33.9
계	0.9	0.9	-	-	2.1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na		12.13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취업모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이유 이외에도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4.7%)',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2.9%)', '아이의 나이가 어려서 받아주지 않으므로(2.9%)' 등의 기타 이유가 있었다. 소수이기는 하나 비취업모의 경우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대리 양육자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이유가 100%로 나타났다.

대상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인 경우와 둘째 이상인 경우 개인대리 양육을 이용하는 이유가 영아의 어린 연령으로 인한 기관 적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9.7%, 46.6%로 나타났으며, 개인 대리 양육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음으로 주요한 이유로서 각각 31.7%, 33.9%로 응답되었다.

나) 개인 대리 양육자 특성

(1)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

개인 대리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외할머니인 경우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할머니가 돌보아주는 비율은 34.3%, 기타 친인척이 3.9% 순으로 친인척이 개인 대리 양육을 맡아주는 사례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다.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와 같은 비친인척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4.7%였다. 이와 같이 비율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4-16〉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친할머니	34.3	33.8	21.4	32.2	37.1
친할아버지	0.9	0.9	-	-	2.0
외할머니	46.2	46.8	35.7	53.4	36.6
기타 친인척	3.9	4.0	-	3.7	4.1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	13.2	13.1	20.9	9.6	17.9
가사와 육아 통합 도우미	1.5	1.3	22.0	0.9	2.3
기타	0.1	0.1	-	0.2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22		11.87	

즉, 이용 가능한 친인척 자원이 있는 경우, 친인척 대리양육자의 이용을 비친인척 대리자에 의한 양육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대리 양육과 관련된 이후의 분석은 개인 대리 양육자의 친인척 여부로 나누어 친인척 관계와 비친인척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 비친인척 개인 대리 양육자 구인 경로

비친인척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구인 경로는 주변의 소개가 39.3%로 가장 많았으며, 평소에 알던 사람인 경우도 15.7%에 해당되어 55% 정도의 경우는 주변의 인적자원을 우선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오프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 20.8%,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 12.9%,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에 의한 구인 9.6%로 나타나 온라인을 통한 구인보다 오프라인을 통한 구인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4-17〉 개인 대리 양육자 구인 경로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평소 알던 사람임	15.7	16.6	-	12.1	18.5
주변의 소개로	39.3	39.9	48.7	46.5	34.0
온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로	12.9	13.6	-	-	22.5
오프라인상의 구인, 구직 광고로	20.8	19.7	-	28.5	15.2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9.6	8.6	51.3	13.0	7.1
기타	1.6	1.7	-	-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23		5.74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주변 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56.5%였으며, 기타 매체 및 기관을 통한 구인은 41.9%로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주변 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48.7%, 기타 매체 및 기관을 통한 구인은 51.3%를 차지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와 둘째이상의 경우 주변 인력을 활용한 경우가 각 58.6%, 52.5%였으며, 기타 매체 및 기관을 통한 구인은 각 41.5%, 44.8%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보다 비취업모인 경우, 패널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보다 둘째이상의 가구에서는 개인 대리 양육자 구인의 경로가 보다 다양하게 응답되었다.

(3) 개인 대리 양육자 거주지

개인 대리 양육자의 거주지는 아동을 대리양육자의 집에 낮 시간 동안 맡기는 형태가 32.5%로 가장 많았고, 함께 살면서 아동을 돌보아준다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친인척 관계는 개인 대리 양육자의 거주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 대리 양육자가 이용 가구와 친인척인 경우 함께 살고 있거나 아지만 개인 대리 양육자의 가구에 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32.4%, 22.0%로 과반수 이상인 54.4%가 응답하였다. 반면 비친인척의 경우 낮 시간동안 아기를 개인 대리 양육자의 집에 맡기거나, 개인 대리 양육자가 이용 가구의 집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각각 51.1%, 30.7%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18〉 개인 대리 양육자 거주지

구분	단위: %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함께 살고 있음	29.0	32.4	16.3
아지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19.0	22.0	1.9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18.6	15.9	30.7
아기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32.5	28.9	51.1
기타	0.8	0.9	-
계	100.0	100.0	100.0
	χ^2	22.45***	

*** $p < .001$.

(4) 개인 대리 양육자 성별

개인 대리 양육자의 성별은 전체의 99.1%가 여성으로, 개인 대리 양육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여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남성을 개인 대리 양육자로 이용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일 경우 1.1%의 소수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아동의 조부에 의한 대리양육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개인 대리 양육자가 친인척 관계의 경우 98.8%, 비친인척 관계의 경우 100.0%가 여성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19〉 개인 대리 양육자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여자	99.1	98.9	100.0
남자	0.9	1.1	-
계	100.0	100.0	100.0
χ^2		1.92	

(5) 개인 대리 양육자 학력

개인 대리 양육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48.6%, 고졸이 46.8%로 대부분이 고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인척 관계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개인 대리 양육자가 친인척 관계일 경우 56.9%가 중졸 이하로 나타난 반면 비친인척 관계인 경우에는 고졸인 경우가 81.8%로 나타났다.

친인척의 경우 비교적 학력이 낮게 분포된 것은 개인 대리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가 대다수 조부모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II-4-20〉 개인 대리 양육자 학력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중졸 이하	48.6	56.9	8.2
고졸	46.8	39.5	81.8
전문대졸	1.2	0.4	4.7
대졸	3.1	2.8	5.4
대학원 이상	0.4	0.5	-
계	100.0	100.0	100.0
χ^2		41.97***	

*** $p < .001$.

(6) 개인 대리 양육자 결혼상태

개인 대리 양육자의 결혼 상태는 결혼 중인 경우가 83.1%로 대다수였으며, 사별인 경우가 13.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친인척일 경우 82.2%, 비친인척일 경우 97.8%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친인척 관계일 경우에는

미혼 혹은 이혼이 각각 0.5%, 1.1%로 소수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 대리 양육자의 결혼상태는 친인척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4-21〉 개인 대리 양육자 결혼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미혼	1.1	0.5	-
결혼	83.9	82.2	97.8
이혼	0.9	1.1	-
사별	13.4	16.2	2.2
계	100.0	100.0	100.0
χ^2		5.45	

(7) 개인 대리 양육자 국적

개인 대리 양육자의 국적은 한국인인 경우가 98.4%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족과 기타 외국인으로 필리핀인이 각각 1.4%, 0.2%를 차지했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인척 관계이거나 비친인척 관계인 경우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가 각각 99.8%, 90.4%로 90%이상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개인 대리 양육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친인척 관계에서 0.2%가 조선족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비친인척 관계에서는 조선족 8.5%, 필리핀 등의 기타 외국인 1.1%로 9.6%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4-22〉 개인 대리 양육자 국적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한국인	98.4	99.8	90.4
조선족	1.4	0.2	8.5
기타 외국인	0.2	-	1.1
계	100.0	100.0	100.0
χ^2		25.99***	

*** $p < .001$.

(8) 개인 대리 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개인 대리 양육자들의 98.5%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개인 대리 양육자들이 자녀양육을 경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비율은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모두 100%에 근접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친인척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 대리 양육자를 선택할 경우 이전의 자녀양육 경험이 주요한 고려 요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4-23〉 개인 대리 양육자 자녀양육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있음	98.5	98.8	97.6
없음	1.5	1.2	2.4
계	100.0	100.0	100.0
χ^2		2.16	

다)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실제

(1) 개인 대리 양육자 변경 횟수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86.3% 가구는 한번 결정된 대리양육자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 1회 정도의 변경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24〉 개인 대리 양육 바뀐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바뀌지 않음	86.3	83.9	77.6
1회	12.9	16.1	18.0
2회	0.3	-	2.5
3회	0.5	-	1.9
계	100.0	100.0	100.0
χ^2		10.78*	

* $p < .05$.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친인척 관계 여부는 변경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기 결정된 개인 대리 양육자를 유지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일 경우가 83.9%로 비친인척일 경우인 77.6%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응답 되었다.

변경된 횟수에 있어서는 친인척일 경우 1회까지만이 응답된 반면, 비친인척일 경우 1.9%가 최대 3회까지도 변경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개인 대리 양육 이용 기간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조사 시점에 새롭게 대리양육을 시작한 경우인 0개월부터 최대 15개월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리양육을 이용하는 경우의 평균 이용 기간은 5.29개월로 응답되었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일 경우의 평균 이용 기간은 4.88개월로 비친인척 관계일 경우의 5.77개월보다 다소 짧게 응답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4-25〉 개인 대리 양육 이용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평균	5.29	4.88	5.77
표준편차	3.53	3.49	3.51
최소값	0	0	0
최대값	15	15	14
계	100.0	100.0	100.0
<i>t</i>			-1.63

(3) 개인 대리 양육 이용 빈도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 빈도는 주중에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을 포함하여 6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33.9%였다. 일주일에 며칠만 맡긴다는 응답은 3.1%로 소수의 가구에서는 요일이 균일하지 않게 이용하여 2~5일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인척 여부인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인척일 경우 일주일 내내 맡긴다는 응답이 21.3%, 일주일에 며칠만 맡긴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난 반면, 비친인척의 경우 이와 같은 장기 양육 및 불규칙한 이

용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26 참조).

〈표 II-4-26〉 개인 대리 양육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5.5	14.5	21.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3.0	60.5	76.8
일주일 내내	18.4	21.3	1.9
일주일에 며칠만	3.1	3.7	-
계	100.0	100.0	100.0
χ^2		15.37**	

** $p < .001$.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이용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표 II-4-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이용시간은 11.04시간 이었으며 최소 40분 이상 최대 23.97시간으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 거의 24시간을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일 경우 평균 11.09시간, 비친인척 관계일 경우 10.42시간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친인척 관계일 경우 최소 40분에서 최대 23.97시간, 비친인척일 경우 최소 1시간에서 최대 16시간으로 이용 시간의 최소, 최대의 폭이 친인척 관계일 경우 다소간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27〉 개인 대리 양육 이용 시간

단위: %, 시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7시간미만	7.0	7.1	7.4
7시간 이상 9시간미만	7.5	7.1	7.4
9시간 이상 11시간미만	27.4	28.6	25.0
11시간 이상	58.0	57.1	60.2
계	100.0	100.0	100.0
평균	11.04	11.09	10.42
표준편차	3.48	3.50	2.62
최소값	0.40	0.40	1.00
최대값	23.97	23.97	16.00
t		1.44	

(4) 개인 대리 양육 이용비용

(가)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 지불 방식은 전체의 89.4%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93.4%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의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6.2%만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 대리 양육자의 친인척 여부에 따른 이용비용 지불방식의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인척 개인 대리 양육자의 경우 정기적, 비정기적 현금 지불, 비정기적 현금 지불, 숙식만 제공, 지불 안함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비친인척의 경우 100.0%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인척 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7%로 가장 많았으나,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7.6%였으며, 비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한다는 응답도 4.5%, 숙식만 제공하는 경우도 0.5%로 소수 응답되었다.

〈표 II-4-28〉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지불방식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89.4	87.0	100.0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3.7	4.5	-
현물로 지불	0.4	0.4	-
숙식만 제공	0.4	0.5	-
지불 안함	6.2	7.6	-
계	100.0	100.0	100.0

(나)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은 현금과 현물의 구분 없이 살펴본 결과 평균 61만 4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로 지불 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중위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 평균 61만 4천원 가량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61만 5천원, 현물로 지급할 경우 39만 2천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29〉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전체	평균	61.37	57.50	80.38
	표준편차	50.00	28.82	70.00
	중위값	31.10	50.00	36.15
	최소값	1	1.00	9.00
	최대값	180	180.00	160.00
<i>t</i>			-4.68 ^{***}	
현금 지급	평균	61.46	39.19	80.38
	표준편차	50.00	9.99	36.15
	중위값	31.13	30.00	70.00
	최소값	1	30	9
	최대값	180	50	160
<i>t</i>			-4.63 ^{***}	
현물 지급	평균	39.19	39.19	-
	표준편차	30.00	9.99	-
	중위값	9.99	30.00	-
	최소값	30	30	-
	최대값	50	50	-

****p*<.001.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친인척일 경우 평균 57만 5천으로 비친인척일 경우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인 80만 4천원 가량의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친인척 관계의 경우 39만 2천원으로 비친인척 관계인 경우의 80만 4천원가량보다 약 2배를 덜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는 비친인척 관계일 경우 최소 9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친인척 관계일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응답되어 지불 금액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개인 대리 양육자와의 관계가 친인척일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금과 유사한 정도로 평균 39만 2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 개인 대리 양육자 이외 추가 지원 비용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육아도우

미가 퇴근한 후 친정어머니가 저녁시간동안의 양육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경우, 지원에 따른 지불 비용을 물어본 결과 평균 1만 8천원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 지불과 마찬가지로 지원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10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30〉 개인 대리 양육자 이외 추가 지원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평균	1.84	1.18	5.77
표준편차	0.00	8.88	18.59
중위값	10.94	0.00	0.00
최소값	0	0	0
최대값	100	100	100
<i>t</i>			-2.19*

* $p < .05$.

추가 지원 비용에 있어서도 개인 대리 양육자와 아동의 친인척관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개인 대리 양육자가 친인척 관계인 경우 평균 1만 2천원, 비친인척 관계인 경우 평균 5만 8천원 정도를 개인 대리 양육자 이외의 추가 지원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라)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부담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의 부담도를 알아본 결과 적당하다고 여기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도 32.9%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 대리 양육자의 이용비용 부담도는 친인척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인척일 경우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함에도 이와 같이 더 크게 부담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대다수의 개인 대리 양육자가 아동의 조부모로 구성된 것에 생각할 때 어머니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도의 분포를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친인척의 경우 43.3%, 비친인척인 경우 39.4%로 나타났으나,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 또한 친인척 33.8%, 비친인척인 경우 56.0% 가량으로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양 집단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4-31〉 개인 대리 양육자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 점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매우 부담이다	4.5	3.2	11.7
부담되는 편이다	32.9	30.6	44.3
적당하다	43.0	43.3	39.4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15.3	17.5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4.3	5.4	-
계	100.0	100.0	100.0
평균	2.82	2.91	2.37
표준편차	0.90	0.90	0.75
<i>t</i>		3.24 ^{***}	

*** $p < .001$.

(5) 개인 대리 양육 만족도

이용 중인 개인 대리 양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35.3%로 나타나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는 응답자 대다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2〉 개인 대리 양육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친인척	비친인척
매우 불만족	0.9	1.1	-
비교적 불만족	0.2	-	1.5
보통	6.9	6.8	9.3
비교적 만족	56.7	52.7	74.4
매우 만족	35.3	39.4	14.9
계	100.0	100.0	100.0
평균	4.25	4.29	4.03
표준편차	0.67	0.69	0.55
<i>t</i>		39.13 ^{***}	

*** $p < .001$.

전반적인 개인 대리 양육 만족도는 친인척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92.1%로 비친인척 관계의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인 89.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친인척 관계인 경우 매우 불만족한 사례

도 1.1%로 일부 나타났다. 이는 친인척 관계의 개인 대리 양육자를 이용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 등의 이유로 비친인척 관계보다 개인 대리 양육자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친인척 관계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보육시설

가) 보육시설 이용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8%가 개인 대리 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25.3%를 차지해, 개인 대리 양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특성이 육아지원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은 엄마가 어린이집 교사여서 같은 어린이집에 있다거나,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었다.

〈표 II-4-33〉 보육시설 이용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15.0	17.5	5.4	22.1	11.4	15.3	12.0	21.0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31.8	31.0	35.5	35.1	30.0	27.7	41.4	19.4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5.1	5.5	3.5	6.1	4.6	6.6	4.1	4.2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16.2	14.0	23.5	12.2	18.3	19.1	13.3	16.6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5.3	23.8	30.0	18.3	28.9	22.9	25.1	30.6
기타	6.6	8.2	-	6.3	6.8	8.5	4.0	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1.08		3.89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취업모일 경우 개인 대리양육자 구인의 어려움 17.5%, 비용 부담 31.0%, 개인 대

(2) 보육시설 대상별 시설 유형

보육시설 대상별 시설유형은 면접 당시 부모가 기입한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설립유형을 사후 코딩하였다.

〈표 II-4-35〉 보육시설 대상별 시설 유형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반 보육시설	95.9	76.7	74.9	85.1	77.0	76.5	82.3	76.9	65.0
영아 전담	4.1	8.0	8.3	7.0	6.6	8.9	5.7	9.9	9.3
기타	-	15.3	16.8	7.9	16.3	14.6	12.0	13.2	2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na		0.16		na		

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능을 의미함.

조사시점에서 76.7%의 아동들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영아 전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8.0%에 해당하였다. 기타 유형으로는 사후 코딩 시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기관으로 주로 24시, 시간 연장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 일반 보육시설이 95.9%의 대다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점진적으로 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경우 영아 전담, 시간 연장과 같은 보육기관의 특성이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3) 평가인증 여부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는 면접 당시 부모가 기입한 보육시설 이름과 소재지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인증 여부를 사후 코딩하였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차년도 조사 당시 과반수 이상인 64.5%가 미인증 상태였던 반면, 2차년도 조사 시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57%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41.2%가 평가인증 과정 중에 있거나 혹은 받지 않은 시설로 나타났고, 일부 1.7%의 소수 기관에서는 인증 이후 취소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다만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미인증 시설이 50.7%로 인증 시설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4-36〉 보육시설 평가인증 여부

단위: %

구분	1차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미인증	64.5	41.2	42.7	34.9	37.2	43.7	34.4	50.7	37.2
인증	35.5	57.0	56.1	60.6	61.2	54.5	64.6	45.8	62.8
인증 취소	-	1.7	1.2	4.5	1.5	1.9	1.0	3.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보육시설 입지 조건

보육시설의 주변 환경은 일반 아파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71.2%로 가장 많았고, 일반 주택 지역이 21.2%였으며, 그 밖에 소수 응답으로 상가·회사 지역이 6.1%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거주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가구가 거주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회사지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이용과 같은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4-37〉 보육시설 입지 조건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일반주택지역	21.2	22.0	17.7	10.1	27.6	23.1	15.8	27.8
일반아파트지역	71.2	70.6	73.3	82.3	64.7	70.0	75.3	65.4
상가·회사지역	6.1	6.2	5.8	6.4	5.9	5.5	8.9	1.8
공장(단)지역	0.5	-	3.1	-	0.8	1.3	-	-
농·어가지역	1.0	1.2	-	1.2	0.9	-	-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 보육시설 이용 실제

(1) 보육시설 바뀐 횟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다수 처음 선택한 기관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88.0%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 3회까지도 변경하는 경우가 0.2%로 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한번 결정된 보육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취업모의 경우 11.7%, 비취업모의 경우 16.0%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첫째 자녀인 경우 11.2%, 둘째 이상인 12.8%의 유사한 비율로 1회 이상 보육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13.6%로 대도시 11.1%, 읍면지역 10.4%에 비해 상대적으로 1회 이상 보육시설을 변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38〉 보육시설 바뀐 횟수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바뀌지 않음	88.0	88.2	84.0	88.8	87.2	89.0	86.4	89.5
1회	10.8	10.6	14.1	9.9	11.7	10.2	13.6	4.5
2회	1.0	1.1	-	1.3	0.7	0.9	-	4.5
3회	0.2	-	1.9	-	0.4	-	-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보육시설 이용 기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표 II-4-39>와 같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9.64개월로 최소 1개월부터 15개월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취업모의 경우 9.14개월로 비취업모의 12.05개월에 비하여 이용 기간이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머니의 취업 시기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첫째일 경우 9.90개월로 둘째 이상이 9.49개월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다소 짧게 응답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중소도시의 경우 8.87개월, 대도시의 경우 9.63개월, 읍면지역의 경우 11.21개월로 나타났다.

〈표 II-4-39〉 보육시설 이용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평균	9.64	9.14	12.05	9.90	9.49	9.63	8.87	11.21
표준편차	3.68	3.69	2.57	3.64	3.70	3.58	3.96	2.65
최소값	1	1	5	3	1	1	2	3
최대값	15	15	15	15	15	15	15	15
<i>t / F</i>		-4.53 ^{***}		1.09		2.99		

****p*<.001.

(3) 보육시설 이용 빈도

보육시설 이용 빈도는 개인 대리 양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주중 5일간 이용한다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토요일까지 이용한다는 응답도 13.3%였다. 일주일에 불규칙하게 2일에서 5일까지 이용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주 5일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40〉 보육시설 이용 빈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3.3	15.3	3.7	7.3	16.8	8.8	15.8	17.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5.7	83.9	94.1	90.0	83.2	89.6	83.3	82.4
일주일에 며칠만	1.0	0.8	2.2	2.8	-	1.6	0.9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정기적으로 5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99.2%, 비취업모의 경우 97.8%로 응답되었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인 경우가 97.3%, 둘째 이상일 경우가 100.0%가 주 5일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98.4%, 중소도시 99.1%, 읍면도시 100.0%로 나타났다.

(4) 보육시설 이용 시간

평상시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8.76시간으로, 9~11시간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7~9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2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4-41〉 보육시설 이용 시간

단위: %, 시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7시간미만	17.8	13.5	38.6	10.7	21.8	15.7	24.1	11.1
7시간 이상 9시간미만	25.1	22.2	39.4	17.0	29.7	29.9	19.0	21.4
9시간 이상 11시간미만	44.7	49.1	22.0	53.5	39.6	41.9	44.2	59.2
11시간 이상	12.4	15.1	-	18.7	8.8	12.5	12.7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8.76	9.11	7.09	9.29	8.46	8.85	8.54	9.04
표준편차	2.08	1.91	2.12	1.94	2.10	1.81	2.34	1.89
최소값	3.00	3.00	3.00	3.00	3.00	3.17	3.17	3.17
최대값	13.98	13.98	10.00	12.50	13.98	13.12	13.12	13.12
<i>t</i>		6.11 ^{***}		2.07 [*]		1.94		

* $p < .05$. *** $p < .001$.

취업모의 경우 평균 9.11시간으로 비취업모인 경우의 7.09시간에 비하여 비교적 긴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둘째 이상이 8.46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첫째인 경우가 9.29시간으로 비교적 장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기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서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8.54시간, 대도시 8.85시간, 읍면지역 9.04시간으로 응답되었다.

(5)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

보육시설의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8분, 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91분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등하원에 하루 약 20분가량을 소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등원에 평균 9.43분, 하원에 9.74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등원 9.56분, 하원 9.17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자녀의 출생 여부에 따라서는 첫째인 경우 평균 등원에 8.57분, 하원에 8.48분을 소요하는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일 경우 평균 등원에 10.00분, 하원 10.36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첫째 아이에 비해 둘째 아이 이상의 경우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위치하는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등원 9.68분, 하원 9.99분이 소요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등원 9.28분, 하원 9.28분, 읍면지역의 경우 등원 8.69분, 하원 8.9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42〉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

단위: 분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원	평균	9.48	9.43	9.56	8.57	10.00	9.68	9.28	8.69
	표준편차	7.65	7.80	6.96	6.35	8.27	7.24	7.27	5.83
	최소값	1	1	1	1	1	2	0	0
	최대값	45	45	20	30	45	45	30	25
<i>t</i>		-1.00		-1.62		0.24			
하원	평균	9.66	9.74	9.17	8.48	10.36	9.99	9.28	8.97
	표준편차	7.88	8.13	6.58	6.23	8.62	7.32	7.47	6.37
	최소값	1	1	1	1	1	2	0	0
	최대값	45	45	20	30	45	45	30	25
<i>t</i>		0.52		-2.08*		0.29			

* $p < .05$.

(6) 보육시설 이용비용

보육시설 이용비용의 경우 보육비 지원 등의 이유로 지불을 면제받는 경우도 전체의 22.4%에 해당하였으며, 이 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평균 28.85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비용의 지불여부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비용을 면제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용비용이 취업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인 경우 비지불하는 경우가 2.5%인데 반해 둘째 이상의 경우 33.9%가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면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첫째아의 경우 평균 31.68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둘째 이상은 26.42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지역적 규모 차이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의 아동의 경우 33.3%가 비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소도시의 경우 비교적 적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43〉 보육시설 이용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지불여부	비지불	22.4	21.4	27.3	2.5	33.9	22.5	16.7	33.3
	지불	77.6	78.6	72.7	97.5	66.1	77.5	83.3	6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3		17.91***		1.89		
지불비용	평균	28.85	29.53	25.24	31.68	26.42	31.52	25.01	32.07
	표준편차	12.56	12.20	13.91	35.00	27.00	11.29	13.11	11.39
	중위값	31.00	32.00	25.00	10.65	13.73	38.00	25.00	35.00
	최소값	3	3	4	7	3	5	3	4
	최대값	60	60	48	60	58	60	58	50
t			0.84		2.39*		1.89		

* $p < .05$. *** $p < .001$.

(7) 보육시설 이용비용 부담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의 부담 정도를 알아본 결과 부담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에 있어 취업모의 경우 51.7%, 비취업모의 경우 62.5%로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다소 높게 응답되었으며,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첫째 자녀인 경우 60.6%, 둘째 이상인 경우 47.8%로 첫째아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55.3%, 중소도시 50.2%, 읍면지역 58.6%로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이 개인 대리 양육에 비하여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4-44〉 보육시설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매우 부담된다	10.2	8.7	18.4	7.5	12.6	7.9	13.6	7.3
부담되는 편이다	43.5	43.0	44.1	53.1	35.2	47.4	36.6	51.3
적당하다	26.7	29.4	13.7	29.0	24.8	24.8	30.2	22.5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13.3	12.1	20.0	8.5	17.4	10.1	16.4	13.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6.3	6.8	3.8	1.9	10.1	9.9	3.2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2.67	2.65	2.47	2.44	2.77	2.67	2.59	2.59
표준편차	1.14	1.03	1.12	0.83	1.18	1.08	1.02	1.00
t / F		1.42		-1.90		0.71		

(8) 보육비 지원 여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비 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1차년도인 경우 전액 면제가 9.9%, 일부 감면이 56.6%였으나, 2차년도인 경우 전체 아동의 28.4%가 전액 면제, 38.1%가 일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5.0%로 비취업모의 27.9%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둘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약 74.1%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52.6%만이 혜택을 받는 첫째아의 경우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59.5%, 중소도시의 경우 71.7%, 읍면지역 69.3%로 중소도시의 경우 혜택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4-45〉 보육비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전액 면제	9.9	28.4	26.5	37.3	4.4	41.5	28.6	25.2	34.7
일부 감면	56.5	38.1	38.6	34.8	48.2	32.6	30.9	46.5	34.4
아무런 혜택 없음	33.6	33.5	35.0	27.9	47.4	25.9	40.5	28.3	3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98		28.95***		7.87		

*** $p < .001$.

(9) 보육비 지원 이유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사유로는 두 자녀 이상이 34.3% 가장 많았으며, 차등보육료 지원이 33.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외에 기타사유로는 취업여성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다.

〈표 II-4-46〉 보육비 지원 이유(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3.2	13.2	16.6	-	19.2	18.3	5.2	25.1
두 자녀 이상	33.4	34.7	36.7	48.8	29.5	55.4	28.4	14.4
농어업인 자녀	34.3	36.1	35.9	-	49.8	36.8	40.9	23.4
기타	2.5	-	12.9	-	3.6	-	1.1	10.2
계	16.6	20.9	1.2	51.2	4.2	-	24.4	3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모의 경우 두 자녀 이상으로 인한 지원이 36.1%로 가장 많았던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차등 보육료 대상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첫째아동이 지원을 받을 경우 48.8%에 해당하는 아동이 차등보육료 대상이었으며,

둘째 이상의 자녀일 경우 49.8%의 과반수에 근사한 아동이 두 자녀 이상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55.4%가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중소도시에서는 40.9%의 아동이 두 자녀 이상 혜택을, 읍면 지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으로의 지원이 25.1%로 높게 나타났다.

(10)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이용 중인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18.5%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5.6%를 차지하였다.

5점 척도로 환산한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83으로 이는 <표 II-4-32>의 대리양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4.25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육시설보다 개인 대리 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4.9%로 중소도시 69.1%, 읍면지역 7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4-47>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만족	1.2	1.5	-	-	1.9	-	3.0	-
비교적 불만족	4.4	3.4	8.6	4.4	4.3	2.9	7.8	-
보통	18.5	20.0	10.6	27.1	13.8	12.2	20.1	27.3
비교적 만족	61.7	59.7	71.3	60.9	62.1	66.0	59.2	58.4
매우 만족	14.2	15.4	9.5	7.7	17.8	18.9	9.9	1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3	3.84	3.82	3.72	3.90	4.01	3.65	3.87
표준편차	0.77	0.78	0.72	0.67	0.81	0.65	0.87	0.63
<i>t</i>		1.44		-1.13		6.00**		

** $p < .01$.

5)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유형

가)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

개인 대리 양육이나 보육시설 외에 아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4-48>과 같다.

전체 아동의 16.4%가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18.5%로 취업모의 12.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첫째인 경우 25.8%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아동이 정기적인 육아지원 기관 외 프로그램 및 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둘째이상의 경우 7.8%만이 이러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17.2%, 중소도시 18.0%가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읍면지역으로 좁아질 경우 10.8%만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48>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참여프로그램 없음	83.6	88.0	81.5	74.2	92.2	82.8	82.0	89.2
참여프로그램 있음	16.4	12.0	18.5	25.8	7.8	17.2	18.0	1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1.78**		109.77***		11.07**		

** $p < .01$. *** $p < .001$.

(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수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개에서 4개까지 평균 1.2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취업모의 경우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1~4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첫째 아동일 경우 평균 1.28개의 프로그램으로 둘째 이상의 아동인 경우 1.16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약간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1.3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1.26개, 대도시의 경우 1.23개로 지역 규모가 클수록 적은 수의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49〉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1.25	1.25	1.26	1.28	1.16	1.23	1.26	1.31
표준편차	0.55	0.43	0.58	0.55	0.55	0.46	0.65	0.46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4	2	4	4	4	3	4	2
t / F		0.45		2.37*		0.03		

* $p < .05$.

나)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특성

(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

이용 중인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같은 비율로 함께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36.8%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31.8%로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음악 프로그램을 18.8%로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수이지만 한글, 외국어, 과학, 수학 등의 프로그램 또한 이용 중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는 모두 통합 프로그램과 감각·조작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취업모의 경우 한글 6.0%, 외국어 1.7%, 수학 1.4%, 과학 0.6%로 학문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취업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정기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첫째아와 둘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통합 프로그램과 감각·조작 프로그램을 1, 2순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프로그램 내용을 선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한글(3.8%), 외국어(1.1%), 수학(0.7%) 등의 교과과정 프로

그램 내용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읍면지역의 경우 체육(11.1%)과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50〉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내용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한글	2.5	6.0	1.5	2.3	3.3	3.8	1.7	1.0
외국어	1.0	1.7	0.8	0.8	1.6	1.1	1.3	-
미술	4.5	-	2.0	1.7	1.2	0.8	0.4	6.6
음악	18.8	16.2	19.4	18.4	19.9	19.8	17.3	19.4
체육	7.1	9.1	6.5	6.5	9.0	7.5	5.0	11.1
과학	0.1	0.6	-	-	0.6	-	-	1.0
수학	0.3	1.4	-	0.4	-	0.7	-	-
감각·조작	31.8	18.9	35.5	33.0	28.0	33.7	29.8	31.4
통합	36.8	46.0	34.2	36.9	36.4	32.4	44.5	2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방식

정기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은 대부분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16.0%에 해당하였다.

〈표 II-4-51〉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방식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개별로 진행	16.0	28.6	12.4	16.3	15.3	17.8	13.8	17.4
다른 아동들과 함께 진행	84.0	71.4	87.6	83.7	84.7	82.2	86.2	8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취업모의 경우 이와 같은 개별 진행이 28.6%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개별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경우가 해당 아동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행되기에 아동을 데리고 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취업모의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별 진행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각각 14.9%, 15.6%로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각 6.9%, 9.2%로 집보리 등의 사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시청·군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도시의 경우에서 10.3%로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규모에 따라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 및 홍보의 영향력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4)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 시 학습지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83.8%의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16.2%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교과적 성격을 띠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지를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이할 사항은 읍면지역에서 36.4%의 경우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비율로 응답되었는데, 이는 대다수 영유아 관련 프로그램들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교구들이 해당 프로그램 진행 장소에 구비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규모가 작을 경우 이에 대한 자원의 이용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4-53〉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진행 시 학습지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이용함	16.2	17.5	15.8	17.5	11.8	13.0	13.9	36.4
이용하지 않음	83.8	82.5	84.2	82.5	88.2	87.0	86.1	6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횟수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4.98회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비취업모의 경우 5.02회로 취업모에 비하여 약간 많은 회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첫째아의 경우 5.11회로 둘째 이상으로 출생한 아동의 4.58회에 비해 비교적 많은 횟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5.47회로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54〉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4.98	4.87	5.02	5.11	4.58	4.92	4.92	5.47
표준편차	2.40	2.22	2.45	2.49	2.02	2.15	2.30	3.43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16	13	16	16	12	12	16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t</i>		0.11		178.51*		0.04		

* $p < .05$.

(6)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시간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의 회당 참여시간은 평균적으로 48.97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최소 10분에서 최대 200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 프로그램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중위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프로그램은 40분정도로 한시간 안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55〉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시간

단위: 분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48.97	45.58	50.04	50.12	45.48	47.23	50.30	50.91
표준편차	24.25	18.06	25.78	24.29	23.77	19.16	29.45	49.56
중위수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최소값	10	15	10	10	15	15	10	15
최대값	200	100	200	200	160	130	200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t</i>		-0.94		1.97		0.01		

어머니의 취업 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취업모의 경우보다 비취업모인 경우, 둘째 이상으로 출생한 아동보다 첫째 아동일 경우,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으로 지역규모가 작아질 경우 한번에 이용하는 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인다.

(7)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기간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3.99개월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9개월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위수를 살펴본 결과 2개월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취업모의 경우 4.51개월로 비취업모가 3.85개월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다소 장기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통계적 차이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첫째 아이일 경우 4.14개월로 둘째 이상으로 출생한 경우보다 다소 긴 기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이용 기간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의 경우 3.21개월, 중소도시 4.58개월, 읍면지역 5.29개월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56〉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기간

단위: 개월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3.99	4.51	3.85	4.14	3.36	3.21	4.58	5.29
표준편차	3.68	4.43	3.44	3.62	3.85	3.48	3.62	4.01
중위수	2	2	3	3	1	2	3	5
최소값	1	1	1	1	1	1	1	1
최대값	19	15	19	19	15	16	15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t</i>		0.64		1.83		55.54*		

**p*<.05

(8)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정기적으로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월별 이용비용은 무료에 서부터 최대 46만원까지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6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주 1~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회당 이용비용은 1만원 5천원 안팎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4-57〉 육아지원 기관 외 서비스 월별 참여 비용

단위: 만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6.19	6.05	6.22	6.63	4.87	5.58	6.28	8.26
표준편차	6.47	4.99	6.86	6.88	4.77	5.43	5.75	11.00
중위수	4.00	4.00	4.00	4.00	3.00	4.00	4.00	5.00
최소값	0	0	0	0	0	0	0	0
최대값	46	38	46	46	38	41	36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i>t</i>		0.44		1.97		0.53		

비취업모의 경우 6.22만원으로 취업모의 6.05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첫째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 6.63만원을 사용하여 둘째 이상의 출생아의 4.87만원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를 지불하였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도 대도시의 경우 5.58만원을 지불하는데 반해 중소도시 6.28만원, 읍면지역 8.26만원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있어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기관/시설 이용 계획

가) 기관/시설 이용 계획

자녀의 연령이 대다수 2세가 되는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육아지원 기관 및 학원 시설 등의 이용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4-5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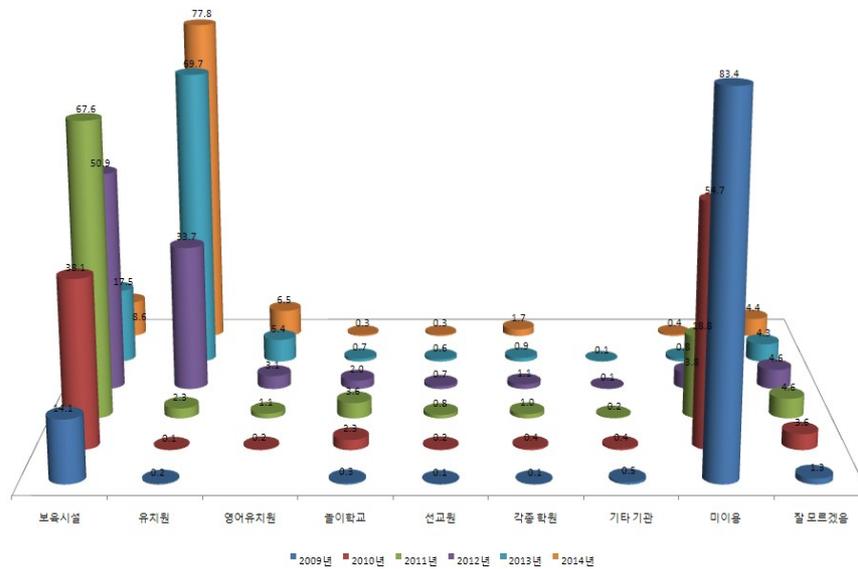
전체의 패널 대다수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개인 대리 양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된 <표 II-4-1>의 결과와 일치하게 2세에서 3세까지는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비율은 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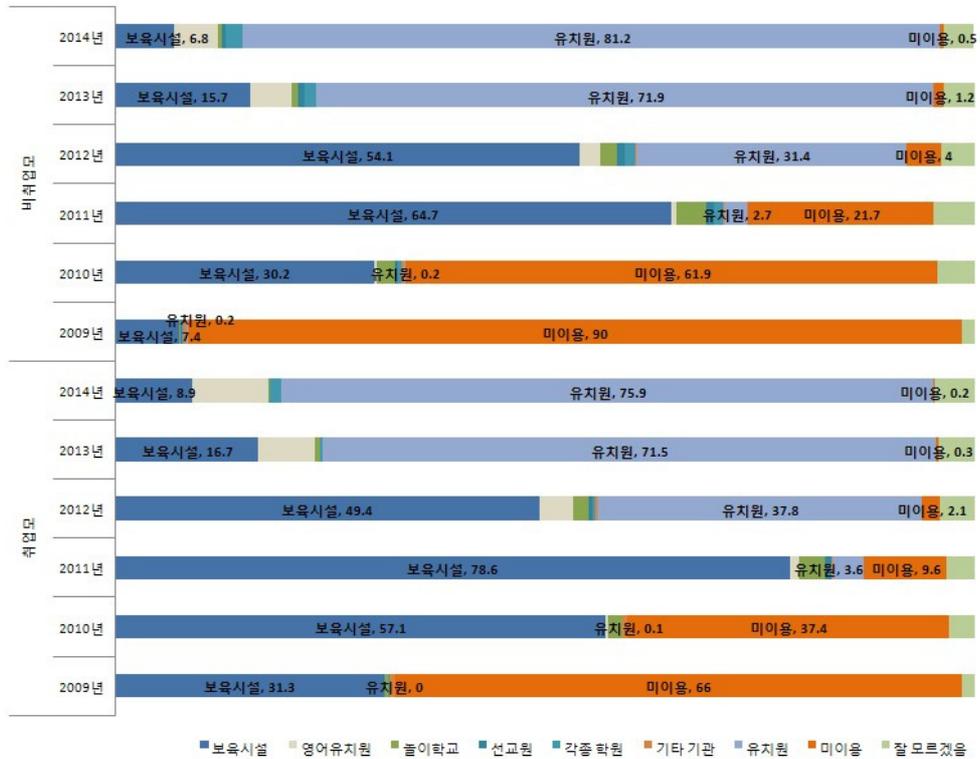
<표 II-4-58> 기관/시설 이용 계획

단위: %

구분	2009년 (2세)	2010년 (3세)	2011년 (4세)	2012년 (5세)	2013년 (6세)	2014년 (7세)
보육시설	14.1	38.1	67.6	50.9	17.5	8.6
유치원	0.2	0.1	2.3	33.7	69.7	77.8
영어유치원	-	0.2	1.1	3.1	5.4	6.5
놀이학교	0.3	2.3	3.6	2.0	0.7	0.3
선교원	0.1	0.2	0.8	0.7	0.6	0.3
각종 학원	0.1	0.4	1.0	1.1	0.9	1.7
기타 기관	0.5	0.4	0.2	0.1	0.1	-
미이용	83.4	54.7	18.8	3.8	0.8	0.4
잘 모르겠음	1.3	3.6	4.6	4.6	4.3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4-4] 기관/시설 이용 계획



[그림 II-4-5] 모취업 여부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아동의 기관/시설 이용 계획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5세를 기점으로 보육시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보육시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취업모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비교적 장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II-4-5 참조)

다) 출생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육아지원 기관/시설 이용 계획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4-6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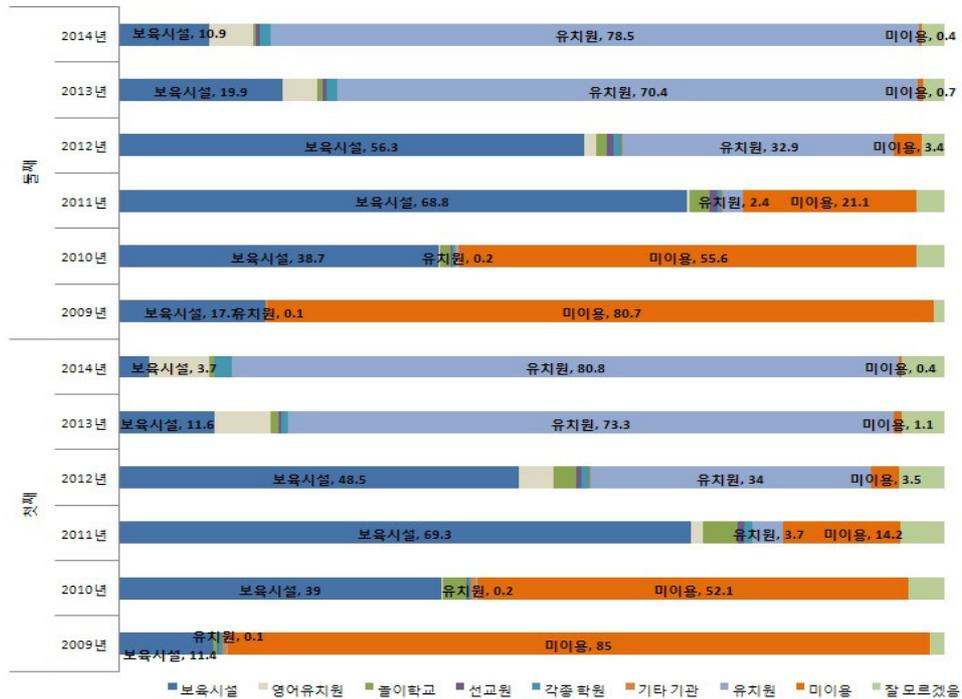
출생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5세를 기점으로 보육시설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유치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4-60〉 출생 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단위: %

구분	2009년(2세)		2010년(3세)		2011년(4세)		2012년(5세)		2013년(6세)		2014년(7세)	
	첫째	둘째										
보육시설	11.4	17.7	39.0	38.7	69.3	68.8	48.5	56.3	11.6	19.9	3.7	10.9
유치원	0.1	0.1	0.2	0.2	3.7	2.4	34.0	32.9	73.3	70.4	80.8	78.5
영어유치원	-	-	0.3	0.2	1.4	0.3	4.1	1.6	6.7	4.1	7.3	5.4
놀이학교	0.5	0.1	2.9	1.3	4.3	2.5	2.8	1.2	1.0	0.6	0.5	0.3
선교원	0.2	-	0.1	0.2	0.8	0.9	0.6	0.8	0.3	0.6	0.1	0.4
각종 학원	0.4	-	0.4	0.3	0.9	0.5	1.0	1.0	0.9	1.2	2.1	1.4
기타 기관	0.6	0.2	0.6	0.2	0.1	0.2	0.1	0.1	0.0	0.0	-	-
미이용	85.0	80.7	52.1	55.6	14.2	21.1	3.5	3.4	1.1	0.7	0.4	0.4
잘 모르겠음	1.8	1.2	4.4	3.3	5.3	3.3	5.4	2.7	5.1	2.5	5.1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II-4-6] 출생 순위에 따른 기관/시설 이용 계획

이러한 경향성은 대상 아동이 첫째인 경우가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증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II-4-60, 그림 II-4-6 참조).

나. 육아 지원 정책 특성

1) 정책의 방향

가)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모성보호 제도와 저렴한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1차년도의 경우 각 23.6%, 36.0%로 응답되었던 것에 반해 2차년도는 전체의 52.8%가 두 가지 모두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61〉 바람직한 육아 지원 정책의 방향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및 확대	23.6	19.6	21.6	18.5	21.6	17.8	19.2	20.5	18.6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36.0	27.6	26.9	28.0	26.3	28.8	27.4	27.2	29.2
두 가지 모두	40.4	52.8	51.4	53.5	52.1	53.4	53.4	52.3	5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44		3.57		2.42		

2)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필요성

(1) 휴가 및 휴직

(가) 출산휴가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여성의 출산 휴가와 남성의 출산 휴가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표 II-4-62>과 같이 여성의 출산휴가에 대해 88.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과반수 이상인 56.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일반적으로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출산휴가 모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출산 휴가의 경우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의 경우 97.0%가 출산 휴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해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다소 낮은 95.6%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취업모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3.4%에 해당하였다.

남성의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여성의 출산휴가에 비해 낮은 비율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 II-4-62〉 출산휴가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여성의 출산휴가	매우 불필요	2.6	1.9	3.1	2.1	3.2	2.3	3.3	2.1
	대체로 불필요	0.3	0.4	0.3	0.2	0.4	0.4	0.2	0.3
	보통	1.1	0.8	1.0	0.7	1.4	0.8	1.2	1.3
	대체로 필요	7.7	5.3	8.7	7.5	7.8	6.5	9.1	7.6
	매우 필요	88.3	91.7	86.9	89.4	87.2	90.0	86.2	8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79	4.85	4.76	4.82	4.76	4.81	4.75	4.80
	표준편차	0.73	0.63	0.77	0.66	0.79	0.69	0.79	0.68
	<i>t / F</i>		2.67*		2.42*		2.29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남성의 출산휴가	매우 불필요	1.9	1.9	1.9	1.3	2.4	2.0	2.2	0.9
	대체로 불필요	2.3	1.4	2.8	2.3	2.4	1.8	2.9	2.3
	보통	10.6	13.0	9.4	9.1	12.0	9.7	11.5	11.0
	대체로 필요	29.2	27.6	29.7	30.0	28.5	31.1	26.4	30.7
	매우 필요	56.0	56.1	56.2	57.4	54.7	55.4	57.1	5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35	4.35	4.36	4.40	4.31	4.36	4.33	4.37
	표준편차	0.90	0.89	0.90	0.84	0.94	0.88	0.94	0.84
<i>t / F</i>		-0.62		2.26*		0.54			

* $p < .05$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출산휴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에 있어서 첫째 아동의 경우 각 96.9%, 87.4%, 둘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95%, 8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에 있어서는 둘째 이상의 경우 각 3.6%, 4.8%가 응답해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과 남성의 출산 휴가에 있어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육아휴직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II-4-63>과 같다.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응답은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응답되었으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74.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육아휴직의 차이를 *t*검증하여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취업모의 경우 76.6%로 취업모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있어서의 차이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출생 아동이 첫째 아동인 경우 96.1%, 둘째 이상의 경우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첫째인 경우 2.6%, 둘째 이상인 경우

3.7%로 이는 기존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규모에 따른 육아휴직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4-63〉 육아휴직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여성의 육아휴직	매우 불필요	2.7	1.9	3.0	2.1	3.1	2.2	3.5	1.8
	대체로 불필요	0.6	0.4	0.7	0.5	0.6	0.5	0.7	0.3
	보통	1.7	1.9	1.4	1.3	2.0	1.2	1.9	2.1
	대체로 필요	14.3	16.0	13.7	14.5	14.2	14.2	13.9	15.7
	매우 필요	80.8	79.8	81.3	81.6	80.0	81.8	79.9	8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70	4.71	4.67	4.73	4.67	4.73	4.66	4.72
	표준편차	0.77	0.70	0.80	0.71	0.82	0.72	0.85	0.70
	t / F		0.85		2.28*		0.93		
남성의 육아휴직	매우 불필요	2.1	2.3	2.0	2.0	2.2	2.5	1.6	2.1
	대체로 불필요	4.7	4.7	4.6	3.8	5.4	4.8	4.6	4.4
	보통	18.7	22.8	16.7	20.1	17.4	19.0	19.4	16.2
	대체로 필요	32.9	31.6	33.3	32.5	33.2	33.3	31.4	35.0
	매우 필요	41.7	38.7	43.3	41.6	41.7	40.3	43.0	4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7	4.00	4.11	4.08	4.07	4.04	4.10	4.11
	표준편차	0.99	1.00	0.98	0.97	1.00	1.01	0.97	0.97
	t / F		-2.08*		0.90		0.28		

* $p < 0.05$.

(2) 보육지원

(가) 직장 보육시설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보육지원 방식 가운데 직장보육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70.2%가 매우 필요, 2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92.2%의 응답자가 직장 보육시설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지역의 규모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 지원의 필요성 인식을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동의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4-64> 직장 보육시설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2.6	2.2	2.8	1.7	3.5	2.2	3.4	1.8
대체로 불필요	0.5	0.1	0.7	0.8	0.3	0.3	0.7	0.7
보통	4.7	6.1	3.9	4.4	5.0	4.7	4.4	5.6
대체로 필요	22.0	20.3	22.9	21.7	22.3	20.4	23.6	22.4
매우 필요	70.2	71.3	69.6	71.5	68.9	72.5	67.8	6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57	4.59	4.56	4.61	4.53	4.61	4.52	4.57
표준편차	0.83	0.79	0.84	0.76	0.89	0.78	0.89	0.78
<i>t</i>		0.77		2.11*		1.96		

**p*<.05.

자녀가 첫째 아동인 경우 93.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2.5%를 차지한 반면 둘째 이상의 출생 아동일 경우 필요하다는 인식은 첫째 아동과 유사한 91.2%에 해당하였으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3.8%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비율이 첫째아이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나) 보육비 지원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보육지원 방식 가운데 보육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는 <표 II-4-65>와 같다.

<표 II-4-65> 보육비 지원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2.7	1.8	3.2	1.8	3.6	2.5	3.5	1.7
대체로 불필요	0.4	0.2	0.5	0.5	0.3	-	0.8	0.6
보통	1.4	2.0	1.0	1.0	1.8	1.0	1.6	1.9
대체로 필요	12.7	11.8	13.0	14.0	11.6	13.0	13.9	9.4
매우 필요	82.7	84.2	82.3	82.6	82.8	83.5	80.2	8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72	4.76	4.71	4.75	4.70	4.75	4.67	4.78
표준편차	0.76	0.67	0.80	0.68	0.83	0.71	0.85	0.67
<i>t</i>		1.50		1.51		2.90		

보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체의 82.7%가 매우 필요, 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95.4%의 응답자가 보육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 II-4-64>와 함께 고려할 때 직장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지역의 규모에 따른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 인식을 검증하여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모성보호

(가) 수유실 설치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방식 중 수유실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8.0%,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3.1%를 차지했다.

<표 II-4-66> 수유실 설치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2.3	1.1	2.9	1.8	2.8	2.2	2.8	1.6
대체로 불필요	1.0	1.0	0.9	0.9	1.1	0.7	1.7	0.4
보통	5.6	8.9	3.9	5.8	5.3	6.5	3.9	7.0
대체로 필요	23.1	27.1	21.3	22.8	23.3	21.0	26.1	21.7
매우 필요	68.0	61.8	71.0	68.7	67.3	69.7	65.6	6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53	4.47	4.57	4.56	4.51	4.55	4.50	4.56
표준편차	0.84	0.79	0.85	0.79	0.88	0.82	0.88	0.78
<i>t</i>		-2.18*		0.79		1.12		

* $p < .05$.

출생순위, 지역규모 등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평점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 = -2.18, p < .05$). 앞서 살펴본 어머니의 휴가 및 휴직,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와는 달리 수유실 설치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휴가 및 휴직과 같이 비취업모들이 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유수유를 실시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들이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더 크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나)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수유실 설치와 더불어 대표적 모성보호 지원방식으로 실시되는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결과는 <표 II-4-67>과 같다.

〈표 II-4-67〉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2.2	1.5	2.5	1.7	2.6	2.1	2.5	1.6
대체로 불필요	2.0	1.6	2.0	1.5	2.4	2.0	2.3	1.1
보통	10.0	14.5	7.7	10.5	9.5	10.9	9.4	8.9
대체로 필요	28.0	24.7	29.7	28.4	27.7	27.2	28.8	28.4
매우 필요	57.9	57.6	58.2	57.9	57.8	57.8	56.9	6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37	4.35	4.39	4.39	4.36	4.37	4.35	4.44
표준편차	0.90	0.89	0.90	0.86	0.94	0.91	0.93	0.82
<i>t</i>		-0.76		1.08		0.4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및 유급 수유시간 제공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8.0%로 수유실 설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한 어머니 취업여부,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가) 시차 출근제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중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제공을 위한 시차 출근제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3.0%,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9.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도시의 경우 85.0%, 중소도시 81.5%, 읍면지역 79.8%로 나타나 지역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68〉 시차 출근제

단위: %, 점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2.1	1.5	2.4	1.7	2.5	1.9	2.7	1.4
대체로 불필요	2.2	2.4	2.1	1.6	2.9	2.1	2.4	2.3
보통	12.9	13.8	12.3	13.3	12.5	11.1	13.4	16.5
대체로 필요	29.8	28.3	30.6	30.7	28.9	31.7	29.2	26.0
매우 필요	53.0	54.1	52.6	52.8	53.2	53.3	52.3	5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29	4.31	4.29	4.31	4.27	4.32	4.26	4.29
표준편차	0.92	0.90	0.93	0.88	0.96	0.89	0.96	0.91
<i>t</i>		0.51		1.06		3.25*		

* $p < .05$.

(나) 대체인력풀 운영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표 II-4-69>와 같다.

대체인력풀 운영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시차 출근제와 마찬가지로 기타 다른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1차년도 조사에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응답자 대다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기타 다른 지원에 비해 대체인력풀 운영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응답의 과반수 이상인 81.2%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여전히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사료된다.

대체인력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출생순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취업 유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비취업모의 경우 80.2%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반해 취업모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은 83.8%가 대체인력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경우 82.8%, 중소도시 80.4%, 읍면지역 79.1%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대체인력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4-69〉 대체인력풀 운영

단위: %, 점

구분	1차 년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매우 불필요	0.5	1.8	1.5	1.9	1.4	2.1	1.6	2.1	1.4
대체로 불필요	1.6	2.2	2.2	2.2	1.4	2.8	1.6	2.9	1.9
보통	9.9	14.8	12.5	15.7	15.5	14.2	13.9	14.7	17.6
대체로 필요	26.6	33.3	32.2	33.9	34.2	32.6	34.3	32.6	32.5
매우 필요	61.3	47.9	51.6	46.3	47.5	48.2	48.5	47.8	4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46	4.23	4.30	4.21	4.25	4.22	4.27	4.21	4.21
표준편차	0.78	0.91	0.88	0.91	0.87	0.94	0.87	0.94	0.89
<i>t</i>			2.15*		0.39		3.21*		

* $p < .05$.

전반적인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및 방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항목간에 다소간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대다수 질문에 있어 응답 비율이 90%를 육박하고 있어 각각의 제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이 높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우선 순위

각각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를 3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중 1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70>과 같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출산휴가가 61.4%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며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필요성'에서 살펴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의 출산휴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사항은 '보육비 지원'과 '유급 수유시간'에 대한 차이로 자녀가 둘째 이상일 경우 '보육비 지원'은 14.6%로 필요한 것으로 손꼽힌 반면, '유급 수유시간'은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

〈표 II-4-70〉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여성의 출산휴가	61.4	60.6	61.9	63.2	59.8	60.7	62.4	61.3
여성의 육아휴직	15.3	15.9	15.0	17.2	13.5	14.7	16.1	14.9
남성의 출산휴가	1.5	0.7	1.7	1.7	1.4	1.0	2.0	1.7
남성의 육아휴직	1.2	0.6	1.5	1.2	1.2	1.0	1.4	1.2
직장 보육시설	6.3	7.5	5.7	6.2	6.5	7.5	5.6	4.9
보육비 지원	11.4	10.9	11.7	7.8	14.6	11.7	10.1	13.4
수유실 설치	0.6	0.6	0.6	0.7	0.4	0.9	0.3	0.5
유급 수유시간	0.1	0.1	0.1	0.3	-	0.2	-	0.2
시차 출근제	2.0	2.8	1.6	1.6	2.4	2.2	2.0	1.8
대체인력풀 운영	0.2	0.3	0.2	0.1	0.3	0.1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0.01		23.06**		10.36		

** $p < .0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우선순위 중 두 번째 순위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71>과 같다.

〈표 II-4-71〉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2순위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여성의 출산휴가	7.6	6.5	8.1	6.9	8.1	8.4	5.8	9.3
여성의 육아휴직	42.2	40.8	42.7	43.3	41.1	41.8	43.7	39.7
남성의 출산휴가	8.2	6.5	9.0	10.2	6.4	7.1	10.2	6.9
남성의 육아휴직	3.9	1.7	4.8	3.2	4.5	5.0	3.2	2.7
직장 보육시설	12.9	17.4	10.9	12.7	13.2	13.2	13.0	12.3
보육비 지원	18.3	19.6	17.8	16.9	19.5	17.4	18.2	20.7
수유실 설치	1.2	0.8	1.4	1.2	1.2	0.9	0.5	3.4
유급 수유시간	0.8	1.3	0.6	0.9	0.7	0.7	1.0	0.8
시차 출근제	4.6	5.3	4.1	4.5	4.6	5.3	4.2	3.5
대체인력풀 운영	0.4	0.3	0.5	0.2	0.6	0.4	0.3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32.17***		9.96		28.28		

*** $p < .001$.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육아 휴직이 42.2%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모의 경우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시차 출근제, 유급 수유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비취업모의 경우 이외의 항목들을 더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의 우선순위 중 마지막으로 선택된 항목은 <표 II-4-72>와 같다.

<표 II-4-72>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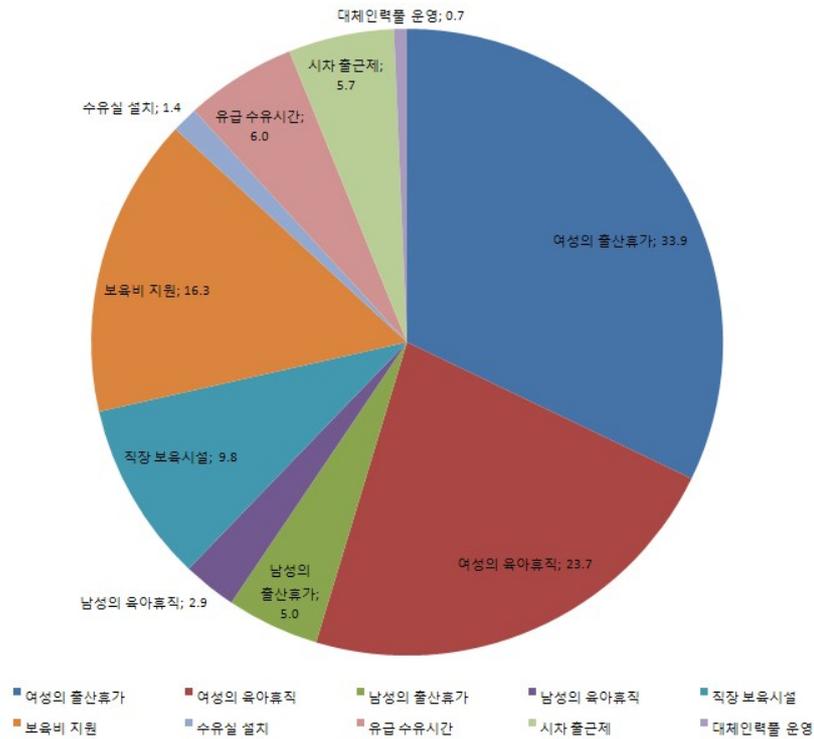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여성의 출산휴가	3.9	2.4	4.5	3.5	4.2	3.3	4.0	5.0
여성의 육아휴직	11.6	12.2	11.3	10.2	12.8	13.1	10.1	10.8
남성의 출산휴가	9.3	8.2	9.6	9.7	8.9	7.8	9.7	12.1
남성의 육아휴직	5.8	4.1	6.7	5.8	5.9	5.2	6.3	6.5
직장 보육시설	14.3	15.9	13.5	14.6	14.1	13.5	15.4	14.0
보육비 지원	27.0	27.5	27.0	28.8	25.4	27.4	28.2	23.5
수유실 설치	4.4	4.3	4.6	5.1	3.8	5.3	2.9	5.7
유급 수유시간	1.9	1.7	2.0	1.7	2.1	1.8	1.9	2.2
시차 출근제	19.1	19.5	18.9	17.6	20.4	19.6	18.6	18.6
대체인력풀 운영	2.8	4.3	2.0	2.9	2.6	3.0	3.0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13.44		6.82		19.11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여성의 보육비 지원이 27.0%, 시차 출근제 19.1%, 직장 보육시설 14.3%, 여성의 육아 휴직 11.6% 등으로 응답되었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세 번째 순위에서는 다소간 편차가 적게 고루 선택되었으나 그 중 보육비 지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필요순위에 대하여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모두 필요성이 높은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도에 있어서 여

성의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시간적 배려를 위한 휴가 및 휴직과 보육비 지원에 대한 대처가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II-47 참조).



[그림 II-4-7]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우선순위

3) 육아 지원 서비스 정책

가) 농어민 가정 육아비 수혜 여부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 정책 가운데 농어민 가정 육아비(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금) 수혜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4%가 수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패널의 약 2.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의 수혜 대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4-73〉 농어민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수혜	2.4	0.9	2.9	1.7	3.2	1.0	1.2	9.3
비수혜	97.6	99.1	97.1	98.3	96.8	99.0	98.8	9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5.28*		9.66**		65.76***		

* $p < .05$. ** $p < .01$. *** $p < .001$.

농어민 가정 육아비 지원 수혜 대상에 있어 취업모는 0.9%, 비취업모는 2.9%로 대상자 중 비취업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패널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1.7%, 둘째 이상인 경우는 3.2%로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대다수로 응답되었다. 수혜 응답 패널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1.0%, 중소도시에 1.2%, 읍면지역은 9.3%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나) 도우미 지원 서비스 수혜 여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 서비스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2.8%가 수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지역의 규모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비취업모보다 취업모가, 첫째보다 둘째 이상일 경우에,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표 II-4-74〉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수혜	2.8	3.7	2.5	2.2	3.4	3.1	2.3	3.1
비수혜	97.2	96.3	97.5	97.8	96.6	96.9	97.7	9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26		0.34		0.64		

4)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가)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시행 여부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475>와 같다.

취업모의 97.9%인 대다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직장도 78.5%에 해당했다.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각 56.9%, 45.2%로 과반수 이상의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외의 제도들에 있어서는 시행하고 있는 직장이 모두 2~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직장이 많아졌으나 아직까지 일부 육아지원을 제외하고는 시행이 활성화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육비 지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원체계가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직종에 따라서는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에서 이와 같은 지원 정책 및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75> 직장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중복응답)

단위: %

구분	1차 년도	전체	지역규모			직종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여성의 출산휴가	96.3	97.9	98.3	100.0	98.1	100.0	100.0	100.0
여성의 육아휴직	72.5	78.5	73.5	87.8	76.2	100.0	84.6	100.0
남성의 출산휴가	44.1	56.9	45.6	71.1	64.3	35.7	79.2	29.0
남성의 육아휴직	32.6	45.2	33.6	60.1	50.7	28.5	52.3	29.0
직장 보육시설	14.7	19.3	18.9	21.7	15.7	45.5	22.5	29.0
보육비 지원	25.2	30.0	30.6	28.7	34.0	22.7	22.5	29.0
수유실 설치	19.6	20.7	17.1	25.0	24.0	4.9	17.6	29.0
유급 수유시간	19.8	16.4	10.7	20.9	27.2	5.7	7.3	29.0
시차 출근제	21.2	21.9	18.9	27.0	19.9	-	16.7	29.0
대체인력풀 운영	18.4	32.9	25.7	42.6	34.9	49.0	22.6	29.0

나)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이용 여부

직장에서 시행 중인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각각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결과, 93.2%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이용하였으며, 대체인력풀을 이용한 경우도 7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제도에 있어서는 대략 50~6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전반적인 이용에 있어 직장 보육시설은 40.7%로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이는 아직까지 아동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외의 대리양육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수유실 및 유급 수유시간의 이용비율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는 대다수 취업모의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이용하여 직장으로의 복귀 이전에 아이의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것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표 II-4-76> 직장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직종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여성의 출산휴가	93.2	98.5	94.8	96.5	98.0	94.6	47.7	100.0	-
여성의 육아휴직	60.9	53.7	47.0	49.0	54.5	46.2	29.2	55.1	-
직장 보육시설	40.7	4.8	12.7	9.5	5.6	11.9	52.4	7.3	-
보육비 지원	60.7	13.1	27.1	18.4	20.3	20.2	23.4	16.1	-
수유실 설치	44.3	12.5	6.3	6.9	12.3	13.7	6.8	7.3	-
유급 수유시간	47.0	8.9	7.3	4.5	11.0	14.8	-	7.3	-
시차 출근제	40.9	8.5	10.7	8.2	11.7	8.3	-	6.4	100.0
대체인력풀 운영	77.6	25.7	28.7	19.4	38.0	25.3	50.3	22.6	100.0

주: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음.

시차 출근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낮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관련된 <표 II-4-68>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장에서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직종에 따라 이를 이용한 빈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판매직의 경우 '시차

출근제'와 '대체인력풀 운영'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원이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다) 직장 육아 지원 제도 이용 만족도

(1) 휴가 및 휴직

(가) 출산휴가

직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 관련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의 만족도는 <표 II-4-77>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만족했다는 응답이 73.7%로 높게 나타났으나,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인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79.2%로 첫째인 경우의 69.4%에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으며, 지역규모의 경우 규모가 큰 대도시의 경우 73.9%, 중소도시의 경우 73.3%, 읍면지역의 경우 73.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출생 순위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4-77> 출산휴가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1.2	0.8	1.8	0.9	2.0	-
대체로 불만족	6.4	7.7	4.7	6.4	6.7	5.7
보통	18.7	22.2	14.3	18.7	18.0	20.6
대체로 만족	52.6	48.7	57.6	60.8	44.4	44.1
매우 만족	21.1	20.7	21.6	13.1	28.9	2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6	3.81	3.93	3.79	3.92	3.98
표준편차	0.86	0.88	0.84	0.78	0.96	0.85
<i>t</i> / <i>F</i>		-0.78		0.32		

(나) 육아휴직

직장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표 II-4-78>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5%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불만족한다는 의견도 5.5%에 해당했다.

〈표 II-4-78〉 육아휴직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1.3	0.5	2.3	0.7	2.4	-
대체로 불만족	4.2	5.7	2.0	5.9	2.4	3.3
보통	11.1	15.0	5.6	14.3	7.6	10.0
대체로 만족	57.0	53.6	61.6	61.6	51.1	57.6
매우 만족	26.5	25.1	28.4	17.5	36.6	2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4.03	3.97	4.12	3.89	4.17	4.13
표준편차	0.81	0.82	0.78	0.78	0.85	0.71
t / F		-1.12		1.91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했다는 응답이 첫째 자녀인 경우 78.7%로 둘째 이상인 경우인 90.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역규모가 큰 대도시의 경우보다 소규모의 읍면지역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출생순위 및 지역규모에 육아휴직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출산 휴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보육지원

(가) 직장 보육시설

직장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 중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의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중이 72.2%를 차지했으며,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6.1%에 해당했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둘째 이상의 출생아인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가 작은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4-79〉 직장 보육시설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	-	-	-	-	-
대체로 불만족	6.1	12.9	3.4	-	16.3	12.8
보통	21.7	32.1	17.5	15.0	11.9	54.3
대체로 만족	59.3	55.0	61.0	82.1	32.9	20.2
매우 만족	12.9	-	18.1	2.8	38.9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79	3.42	3.94	3.88	3.94	3.33
표준편차	0.74	0.71	0.70	0.41	1.08	0.86
t / F		-1.22		0.71		

(나) 보육비 지원

직장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 중 보육비 지원을 이용한 경우의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비중이 55.7%를 차지했으며,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12.1%에 해당했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둘째 이상의 출생아인 경우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4-80〉 보육비 지원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1.2	-	1.9	-	3.1	-
대체로 불만족	10.9	11.8	10.3	3.5	14.6	26.3
보통	32.2	27.8	34.9	36.0	30.8	22.8
대체로 만족	42.0	37.5	44.6	53.2	35.2	21.6
매우 만족	13.7	22.9	8.3	7.2	16.3	2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56	3.71	3.47	3.64	3.47	3.54
표준편차	0.90	0.95	0.86	0.67	1.03	1.17
t / F		0.27		0.71		

보육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기타 다른 지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지원에서 낮게 응답되었다. 이로 보아 보육비 지원은 취업모들에게 있어 필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모성보호

(가) 수유실 설치

직장에서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취업모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61.5%가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에 있어서도 33.6%,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4.9%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출생순위, 지역규모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아의 경우보다 둘째 이상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유실 설치에 대한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에 관한 <표 II-4-66>과 이용 여부에 관련된 <표 II-4-76>을 함께 고려할 때, 둘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이전의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수유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적게 이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유실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4-81> 수유실 설치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1.8	-	6.0	5.1	-	-
대체로 불만족	3.1	4.4	-	-	6.6	-
보통	33.6	43.5	9.8	24.5	36.2	44.2
대체로 만족	48.6	38.4	73.4	62.1	40.3	44.4
매우 만족	12.9	13.8	10.8	8.3	16.9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68	3.62	3.83	3.69	3.68	3.67
표준편차	0.80	0.77	0.85	0.83	0.83	0.67
<i>t / F</i>		0.04		0.15		

(나)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중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불만족을 느낀다는 응답도 3.6%에 해당했다.

〈표 II-4-82〉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3.6	6.1	-	-	7.3	-
대체로 불만족	-	-	-	-	-	-
보통	12.0	20.0	-	9.1	14.4	10.3
대체로 만족	75.7	68.2	87.0	73.2	70.7	89.7
매우 만족	8.6	5.7	13.0	17.7	7.5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6	3.67	4.13	4.09	3.71	3.90
표준편차	0.72	0.83	0.34	0.51	0.89	0.30
t / F		-1.95		0.57		

유급 수유시간에 대한 출생순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해당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유급 수유시간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이용시의 만족도는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대도시 지역이 4.09점으로 중소도시 3.71점, 읍면지역 3.9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출생순위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가) 시차 출근제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중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제공을 위한 시차 출근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76.3%, 보통이라는 응답이 17.8%,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했다.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비교를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해당 자녀가 첫째 아이인 경우

보다 둘째 이상인 경우가 평균 4.10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 4.02, 중소도시 3.84, 읍면지역 3.45로 지역의 규모가 큰 경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83〉 시차 출근제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3.2	6.4	-	-	6.9	-
대체로 불만족	2.6	5.4	-	-	5.8	-
보통	17.8	17.8	17.9	15.7	10.9	54.9
대체로 만족	56.4	58.5	54.5	66.7	49.7	45.1
매우 만족	19.9	11.9	27.7	17.7	26.8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87	3.64	4.10	4.02	3.84	3.45
표준편차	0.87	0.98	0.67	0.58	1.10	0.50
<i>t / F</i>		-1.54		0.69		

(나) 대체인력풀 운영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풀 운영의 경우 이용자의 8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경우도 5.4%에 해당했다.

〈표 II-4-84〉 대체인력풀 운영

단위: %, 점

구분	전체	출생순위		지역규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지역
매우 불만족	2.6	3.3	1.8	1.6	3.8	-
대체로 불만족	2.8	1.8	3.9	-	5.4	-
보통	11.3	21.6	-	11.4	8.3	24.1
대체로 만족	60.3	50.4	71.2	74.9	55.9	36.0
매우 만족	23.0	23.0	23.1	12.0	26.7	3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98	3.88	4.10	3.96	3.96	4.16
표준편차	0.83	0.89	0.74	0.62	0.95	0.78
<i>t / F</i>		-1.54		0.31		

이에 대한 출생 순위 및 지역규모에 있어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으나, 출생순위에 있어 시차 출근제와 마찬가지로 둘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5) 재정 지원 관련 정책

가)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이용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1)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해당 패널 자녀의 출산 이후 어머니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4-8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56.4%의 응답자에게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출산을 고려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산의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12.3%,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1.2%에 해당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 및 지역규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응답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과반수 이상에서 출산의 의향을 나타냈다.

<표 II-4-85> 보육시설 무상 지원 시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전혀 없음	5.8	6.4	5.5	2.9	12.1	6.1	3.2	11.7
거의 없음	6.5	4.2	8.3	5.0	9.7	7.2	5.4	7.3
조금 있음	52.2	59.0	46.3	49.5	58.1	52.3	52.2	52.0
매우 많음	14.2	11.8	16.2	16.8	8.7	14.8	14.6	11.4
잘 모르겠음	21.2	18.5	23.6	25.8	11.4	19.5	24.7	1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3.39	3.32	3.44	3.58	2.98	3.34	3.52	3.16
표준편차	1.07	1.03	1.10	1.02	1.06	1.06	1.02	1.16
t / F		0.87		3.70***		0.31		

*** $p < .001$.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해당 자녀가 첫째인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둘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는 이미 충분한 수

의 자녀를 출산하였기에 이후 자녀 출산계획이 없다는 <표 II-3-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의 자녀 출산 의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육아지원 기관 무상 이용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II-4-86> 양육비용 일부 지원 시 자녀 출산 계획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있음	63.4	64.4	62.0	62.4	65.4	70.4	64.7	38.9
없음	8.5	6.4	10.1	3.7	18.5	9.6	7.1	8.5
잘 모르겠음	28.2	29.2	27.9	33.8	16.2	20.0	28.2	5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0.23		15.21***		4.74		

*** $p < .001$.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3.4%가 양육비용을 지원할 경우 자녀를 출산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와 없다는 응답에 있어서도 각 28.2%, 8.5%를 차지했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출생순위에 있어서, 해당 자녀가 첫 번째 출생아인 경우에 비해 둘째 이상일 경우 5배 가량의 응답자가 출산 의도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나) 양육 비용 보조에 따른 향후 자녀 출산 계획 및 적정 지원 금액

출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30만원 이상이 50.5%로 과반수가 응답하였다.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은 36.9%,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이 12.3%, 10만원 미만이 0.3%로 금액이 높아질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어머니에게서 30만원 이상을 원한다는 비율이 74.2%로 첫째아 39.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에서 69.6%로 대도시 39.2%, 읍면 지역 36.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II-4-87〉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단위: %

구분	전체	모취업		출생순위		지역규모		
		취업모	비 취업모	첫째	둘째 이상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10만원 미만	0.3	-	0.6	0.5	-	-	-	3.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2.3	11.8	13.0	15.4	5.7	14.5	6.3	23.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9	37.0	37.8	44.9	20.2	46.3	24.2	36.3
30만원 이상	50.5	51.3	48.6	39.2	74.2	39.2	69.6	3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p < .05$.

부록

2차년도 기초분석 질문지

1. 어머니대상 질문지
2. 아버지대상 질문지
3. 면접조사용 질문지

ID -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이름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 생일	양력 / 음력 _____년 ____월 ____일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가구면접 ④ e-mail 조사	② 우편조사 ⑤ 기타	③ 전화면접

본 질문지는 지난 해 4월~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기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대상 아기를 주로 돌보시는 주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양육자에는 육아도우미와 같이 대상 아기와 친인척관계가 아닌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06,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 다음은 ○○의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남편은 아기에겐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남편은 아기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남편은 아기에겐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편은 아기와 함께 자주 놀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 ○○의 출산 이후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① 낳겠음
(또는
임신 중)

⇒

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5-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_____

② 낳지
않겠음

⇒

5-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자녀 양육 비용 때문에(아기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 비용 때문에(유치원/보육시설/학교 등의 기관 이용 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 비용 등)
③ 직장/학업 때문에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기타 _____

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 _____ ⇒

5-4.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조금 있음
④ 매우 많음 ⑤ 잘 모르겠음

5-5.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③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④ 30만원 이상

6. 위에서 답한 귀하의 향후 자녀 출산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 출산계획에는 자녀를 더 낳지 않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정부모님 ④ 시부모님
- ⑤ 본인의 형제·자매 ⑥ 남편의 형제·자매 ⑦ 본인의 친인척 ⑧ 남편의 친인척
- ⑨ 친구, 동료 및 이웃 ⑩ 부부 ⑪ 다른 자녀 ⑫ 없음
- ⑬ 기타 _____

7.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7-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분 없이
- ② 딸·아들 구분해서(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 ③ 딸·아들 구분없이 동성으로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 _____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8.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10.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② 독립심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⑤ 상상력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⑧ 결단력과 끈기 ⑨ 종교적 신념
- ⑩ 이타심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11. 다음은 ○○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우리 ○○는 장래에.....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1) 돈을 잘 번다.	①	②	③	④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①	②	③	④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2.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것 (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 2)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 등)에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귀하께서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②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③ 두 가지 모두

13.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휴가 및 휴직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보육지원	5) 직장 보육시설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모성보호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것
- ※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3세까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13-1. 위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14. 부모의 취업으로 취학전 자녀를 부모 외의 사람이 대리양육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집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 ②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 ③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 ④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 ⑤ 잘 모르겠음
- ⑥ 기타 _____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 ① 마심
- ② 평소에 마시나 임신, 수유 등으로 마시지 않음 ⇒ 18번 문항으로
- ② 마시지 않음 ⇒ 18번 문항으로

16. 그럼,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회~4회
- ④ 거의 매일

17.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량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1잔~2잔
- ② 3잔~4잔
- ③ 5잔~6잔
- ④ 7잔~9잔
-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8.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피움
- ② 피우지 않음 ⇒ 25번 문항으로

19.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5분 이내
- ② 6~30분 이내
- ③ 31~60분 이내
- ④ 한 시간 이후

20.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1.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 ① 기상 후 첫 담배
- ② 그 외의 담배

22.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 ① 10개비 미만
- ② 11~20개비
- ③ 21~30개비
- ④ 31개비 이상

23.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4.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다음은 ○○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6. 다음은 ○○에 대한 귀하의 양육 스타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음은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 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대상 아기가 아닌 일반적인 아기들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아이들은 말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줘도 얼마 동안은 종종 틀린 말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①	②	③
2)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①	②	③
3)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①	②	③
4)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은 그 아이의 지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5) 아기가 아주 어린 경우,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은 아기로부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①	②	③
6)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밤에 오줌을 싸거나 손가락을 빨기도 한다.	①	②	③
7)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결국에는 확대받거나 방치되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다. * 미숙아는 체중이 2.5kg이 못 된 채 태어난 아기와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를 통칭함.	①	②	③
8) 건강한 아기가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대개 그 음식을 뱉어내기도 한다.	①	②	③

문항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9)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10) 부모가 아기에게 생후 첫 몇 개월 동안 반응하는 방식은 이후 아기가 행복하고 잘 적응된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울하고 부적응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①	②	③
11) 아이들의 모든 언어는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함으로써 습득된다.	①	②	③
12) 소음이 심하거나 불거리가 너무 많으면 아기는 자기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3)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28.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 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2) 병원비(임신·출산관련 비용 포함)나 치과비 등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3)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4)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5) 자동차 또는 인테리어 개조 등 값비싼 물품 구입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였다.	
6)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7)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8) 식구 중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다.	
9) 식구 중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10) 식구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1) 식구 중 일(주부로서의 일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12) 식구 중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13) 나 또는 배우자가 해외나 지방(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15) 식구 중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책임이 커진 사람이 있었다.	
16)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29.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 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내 자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2)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3)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4) 신체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는 식구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5)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직접 돌보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커졌다.	
6) 배우자가 사망했다.	
7) 자녀가 사망했다.	
8) 친정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9) 식구 중 벌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10) 가정폭력이 있었다.	
11) 식구 중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	

30.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상 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뭔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3.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조사 대상 아기(이하 ○○)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다음은 ○○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다음은 ○○의 생활 중 수면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보통 8-9시경에 잠이 들어 10-12시간가량 밤에 잠을 잔다. 가끔 낮잠을 안잔 날은 저녁식사 때 잠이 들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다(책 읽어주기, 자장가 불러주기 등, 단, 업어주거나 안아주는 등 어른이 아이를 재우기 위해 하는 행동은 해당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3) 잠자기 전 찾는 인형이나 이불, 책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6. 다음은 ○○의 생활 중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식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음식을 입에 물고 있거나,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한다. 그러나 하루 중 점심 정도는 비교적 잘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배가 고플 때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면 혼자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컵을 잘 사용한다. 컵을 들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신 후 다시 내려놓거나 한 손으로 컵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음은 ○○의 생활 중 배변/씻기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비록 비누나 목욕타월을 가지고 노는 수준이기는 하나 혼자 씻어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옷을 입힐 때 팔을 끼우거나 양발을 신길 때 발을 드는 등 옷을 입힐 때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기저귀나 옷에 대소변을 보면 어른들에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는 못하나 (대소변 시간이 일정해지는 등)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8-1. 있다면 사고 또는 중독은 몇 번 발생했습니까? _____ 번

39. ○○는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9-1. 입원한 적이 있다면 몇 번입니까? _____ 번

39-2. 1년 중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이면 총 입원일 수를 말씀해주시시오. _____ 개월 _____ 일

40. ○○는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___ 번

41. ○○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장애아는 장애 등급을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보기 중 해당하는 장애의 번호에 ✓표시하신 후 장애 등급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 41-1. ○○의 장애는 어떤 유형이며, 판정받은 등급은 몇 급입니까?

① 지체장애 (___급) ③ 시각장애 (___급) ⑤ 언어장애 (___급) ⑦ 신장장애 (___급) ⑨ 간장애 (___급) ⑪ 장루, 요루장애 (___급) ⑬ 지적장애 (___급) ⑮ 자폐성 장애 (___급)	② 뇌병변 장애 (___급) ④ 청각장애 (___급) ⑥ 안면장애 (___급) ⑧ 심장장애 (___급) ⑩ 호흡기장애 (___급) ⑫ 간질장애 (___급) ⑭ 정신장애 (___급)
-------------------------------------------------------------------------------------------------------------------------------------------	------------------------------------------------------------------------------------------------------------------------

42. ○○는 지금까지 다음의 각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월 때입니까?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 환 명	의사진단여부	진단 시 개월수
1) 선천성 심장질환	질 환 명	진단 시 개월수
2) 간질	1) 선천성 심장질환	진단 시 개월수
3) 당뇨	2) 간질	진단 시 개월수
4) 천식	3) 당뇨	진단 시 개월수
5) 주의력 결핍 장애	4) 천식	진단 시 개월수
6) 아토피 피부염	5)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 시 개월수
7) 만성 부비동염	6) 아토피 피부염	진단 시 개월수
8) 만성 중이염	7) 만성 부비동염	진단 시 개월수
9) 만성 요로감염	8) 만성 중이염	진단 시 개월수

43. ○○의 **12개월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 12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44. ○○의 **12개월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12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45. ○○의 **12개월 현재** 머리둘레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12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46. 다음의 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입니다. 아래 표에서 표시된 표준예방접종 중 ○○에게 접종을 하신 백신의 접종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2개월 정기검진을 마친 가정만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대상 전염병(백신종류)	횟수	대상 전염병(백신종류)	횟수
1) 결핵(BCG)		2)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3) B형 간염(HepB)		4) 소아마비(폴리오)	
5) 홍역, 볼거리, 풍진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 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47. 귀하가 현재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48.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4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의 놀이터 없이 4세(만 3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50.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51.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5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5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 ② 비교적 위험 ③ 보통 ④ 비교적 안전 ⑤ 매우 안전

ID - 

아버지대상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이름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 생일	양력 / 음력 _____년 ____월 ____일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__월 _____일		
조사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가구면접 ④ e-mail 조사	② 우편조사 ⑤ 기타	③ 전화면접

본 질문지는 지난 해 4월~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기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기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단,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없는 경우 본 질문지 대신 어머니용 질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아버지께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육아정책개발센터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06, Fax 02) 730-3317,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5-1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나타내는 견해를 진술한 것입니다. 귀하는 둘 중 어디에 더 동의하십니까?

- 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 ②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다음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자질과 특성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5가지만 골라 주십시오(우선순위 없이 선택).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 ① 예의바른 생활습관
- ② 독립심
- ③ 근면함
- ④ 책임감
- ⑤ 상상력
- ⑥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 ⑦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기
- ⑧ 결단력과 끈기
- ⑨ 종교적 신념
- ⑩ 이타심
- ⑪ 어른 말씀 잘 듣기

4.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4-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 ① 딸·아들 구분 없이
- ② 딸·아들 구분해서(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 ③ 딸·아들 구분없이 동성으로
- ④ 잘 모르겠음
- ⑤ 기타 _____

5. 다음은 조사 대상 아가(이하 ○○)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우리 ○○는 장래에.....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1) 돈을 잘 번다.	①	②	③	④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①	②	③	④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귀 부부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6.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3) 귀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4) 귀하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7.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
2) 아내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3) 아내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4) 아내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8. 귀하는 평소에 술을 마십니까?
 ① 마심 ② 마시지 않음 ⇨ 11번 문항으로
9. 그럼,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회~4회 ④ 거의 매일
10.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술의 종류에 상관없이 주량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잔~2잔 ② 3잔~4잔 ③ 5잔~6잔
 ④ 7잔~9잔 ⑤ 10잔 또는 그 이상
11.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피움 ② 피우지 않음 ⇨ 18번 문항으로
12.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5분 이내 ② 6~30분 이내 ③ 31~60분 이내 ④ 한 시간 이후
13.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하루 중 담배가 가장 맛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① 기상 후 첫 담배 ② 그 외의 담배
15.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① 10개비 미만 ② 11~20개비 ③ 21~30개비 ④ 31개비 이상
16.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① 예 ⇨

18-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귀화하셨습니다? ① 예 ⇨ 18-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18-2. 귀화 전 국적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① 일본 ② 중국 ③ 미국 ④ 북한 ⑤ 베트남 ⑥ 대만 ⑦ 캐나다 ⑧ 영국 ⑨ 기타 다른 나라()

 ② 아니오 (국적:)

19. 귀하는 평소에 가족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19-1.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지역(해외 포함)에 근무 중	② 학업관계
③ 군복무	④ 장기입원, 요양 중
⑤ 별거	⑥ 가출
⑦ 기타 _____	

20. 귀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0-1. 있다면, 어느 종교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개신교)
③ 기독교(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증산교(대순진리회, 증산도)
⑦ 천도교	⑧ 대종교
⑨ 기타 _____	

21.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분류가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21-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예: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
읍면동사무소까지

직장(사업체)명: _____

21-2.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예: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21-3.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예: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기능직/노무직인 경우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과목명
주로 하는 일: _____

21-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예: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
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22.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기타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ID - 

면접조사용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이름		응답자 이름	
아동 생일	양력/음력 ___월 ___일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 출생순위	___째	출생순위 변동 시 변동사유	① 손위형제 사망 ② 손위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 변동 ④ 기타 _____
응답자 생년월일	양력/음력 ___년 ___월 ___일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오빠, 언니·누나 ④ 조부·친조모 ⑤ 외조부·외조모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 _____		
응답자 전화번호	집: _____	휴대폰: _____	배우자 휴대폰: _____
현주소	_____시·도 _____군·구 _____동·읍·면 _____		
현주소 이사 날짜	_____년 ___월 ___일	1차년도 조사 날짜	_____년 ___월 ___일
조사 횟수	조사 일시		조사 결과
1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2	___월 ___일 ___시 ___분~ ___시 _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② 미완료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 어머니인 경우만 1번, 아버지인 경우는 32번, 그 외의 응답자는 37번 문항부터 질문 시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다음은 귀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미혼
- ② 유배우-초혼 ⇨
- ③ 유배우-재혼 ⇨
- ④ 사별 ⇨
- ⑤ 이혼 ⇨
- ⑥ 별거 ⇨

1-1. 현재의 결혼 상태는 언제부터입니까? **유배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최근의 결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사별 또는 이혼**은 그와 관련한 날짜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십시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취업 중 ⇨ **3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 ⇨ **15번 문항으로**
- ③ 미취업/미취학 ⇨ **22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취업 중인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3.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③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십시오.

① 휴직 중 ⇨

4. ○○가 몇 개월이 될 때 직장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생후 _____개월 ⇨ **10-1번 문항으로**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 **9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10-1번 문항으로**

② 출산 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 ⇨

5. ○○가 몇 개월이 되었을 때 직장에 복귀/신규 취업하셨습니까? 생후 _____개월

③ 출산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 ⇨

6. 귀하는 평소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근무하십니까?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_____시간
 7. 귀하는 평소 근무지까지 출퇴근하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소모하십니까? 주당 _____시간
 8. 앞으로의 취업계획은 어떠하십니까?
 ①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계획임 ⇨ **10-1번 문항으로**
 ② 이직할 계획임 ⇨ **9번 문항으로**
 ③ 일을 그만둘 계획임 ⇨ **9번 문항으로**
 ④ 기타 _____ ⇨ **10번 문항으로**

9. 현재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이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십시오.

- ① 아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 ④ 직장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⑥ 가족이 원해서
-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 ⑧ 기타 _____

10. 귀하의 현재 직업은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직장 또는 직위의 변동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분류가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아니오(변동없음) ⇒ 11번 문항으로
- ② 예(직장 또는 직위가 바뀜) ⇒ 10-1번 문항으로

10-1. 귀하가 현재 일하시는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지점이나 공장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예: 일반 회사인 경우 회사명과 지점명까지, 교사인 경우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공무원인 경우 중앙부처/시군구명/읍면동 사무소까지
 직장(사업체)명: _____

10-2.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예: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요망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10-3.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예: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과목명
 주로 하는 일: _____

10-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예: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11.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정규직/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비정규직 중 임시직(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 ③ 비정규직 중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 ④ 고용주/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⑦ 기타 _____

12. 귀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과 ②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되는 오른쪽 문항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주시시오.

		보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임금 근로자	⇒ 12-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12-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12-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12-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12-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12-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2-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12-8. 인사고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12-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② 비임금 근로자	⇒ 13-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13-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13-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13-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13-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13-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3-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13. 그렇다면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4.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시차출근제 등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귀하가 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표해주시시오. 또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만족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를 골라주시시오. 단, 귀하께서 프리랜서이거나 무급으로 가족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취업 중임에도 본 문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해당 ⇒ 14-1번 문항으로 ② 비 해당 ⇒ 27번 문항으로

구 분	세부 정책	시행 여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휴가 및 휴직	14-1. 여성의 출산휴가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4-2. 여성의 육아휴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4-3. 남성의 출산휴가	① 예	② 아니오							
	14-4. 남성의 육아휴직	① 예	② 아니오							
보육지원	14-5. 직장 보육시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4-6. 보육비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모성보호	14-7. 수유실 설치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4-8. 유급수유시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14-9. 시차 출근제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14-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74조의 산전후휴가)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것
 육아휴직: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는 만3세까지)를 가진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 27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15. 현재 학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① 재학 중	⇒	16. ○○가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신규 입학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 17. 귀하는 평소 학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총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학업에 총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 등학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당 _____시간 18. 귀하는 평소 등하교하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소모하십니까? 주당 _____시간 ⇒ 27번 문항으로
② 휴학 중	⇒	19. 언제 휴학하셨습니다? ① ○○ 임신 전 ② ○○ 임신 중 (임신 _____개월) ③ ○○ 출산 후 (생후 _____개월) 20. ○○가 몇 개월이 될 때 학업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생각임 ⇒ 21번 문항으로 ② 생후 _____개월 ⇒ 27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27번 문항으로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단, 이혼, 사별 등으로 남편 또는 동거자가 없는 경우, 37번 문항으로 기입시오.

30. 귀하의 남편(또는 동거자)은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예 ⇒ 3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2번 문항으로
31. 현재 귀하의 남편(또는 동거자)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육아휴직,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취업 중 ⇒ 32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 ⇒ 33번 문항으로
 ③ 미취업/미취학 ⇒ 34번 문항으로
32. 귀하의 남편(또는 동거자)은 평소 일주일에 근무 또는 학업에 총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출퇴근** 혹은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말씀해주시시오. 주당 _____시간
33. 귀하의 남편(또는 동거자)은 평소 근무지 또는 학교까지 통근 또는 통학하는데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을 소모하십니까? 주당 _____시간

다음은 ○○를 돌보는 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34. ○○가 태어난 후 지난달까지 ○○를 **낮 시간 동안 주로 돌보아준 대리양육자**를 개인 대리양육자인지 보육시설인지를 구분하여 월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에는 ○○를 돌보아준 대리양육자가 있었나요? 올해에는 ○○를 돌보아준 대리양육자가 있었나요? 월 중에 대리양육자가 바뀐 경우는 해당 달에 가장 많은 일수를 차지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부모님이 직접 ○○를 돌보신 경우는 미이용에 응답해주시시오. (중복응답 가능)
- ※ 대리양육자는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보다 아기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도우미와 같은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등의 기관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보육시설과 같은 **기관의 경우는** 주중에 해당하는 3일 동안 만나질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08년	2009년
1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2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3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4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5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6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7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8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9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10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11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12월	① 개인 대리양육자 ② 보육시설 ③ 기타____ ④ 미이용	

35. 이달 현재 **낮 시간 동안** ○○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달 중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 바뀐 경우는 응답일을 기준으로 이달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를 돌본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① 어머니 ⇒ 35-1번 문항으로 ② 아버지 ⇒ 35-1번 문항으로
 ③ 부모 외의 대리양육자(보육시설 포함) ⇒ 36번 문항으로

38-2.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힘들어서
- ② 개인 대리양육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 ③ 개인 대리양육자를 믿을 수 없어서
-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 ⑤ 아이에게 보육시설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⑥ 남들이 보내니까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엄마의 근무지와 동일해서
- ⑨ 기타 _____

⇒ 48번 문항으로

38-3.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 모두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보육시설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보육시설에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서
- ⑤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⑥ 개인 대리양육자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해서
- ⑦ 기타 _____

⇒ 39번 문항으로

다음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친인척이나 도우미를 포함한 개인 대리양육자가 대상 아기를 돌보는 가구(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39.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 동안 ○○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친할머니 ⇒ 41번 문항으로 ② 친할아버지 ⇒ 41번 문항으로
- ③ 외할머니 ⇒ 41번 문항으로 ④ 외할아버지 ⇒ 41번 문항으로
- ⑤ 기타 친인척 (아동과의 관계: _____) ⇒ 41번 문항으로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비혈연 도우미
- ⑦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 ⑧ 기타 _____

40. 이분은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되었습니까?

- ※ 온라인 상으로 업체를 검색한 후 해당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③번이 아니라, ⑥번에 해당함.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주변의 소개로
- ③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구인구직 사이트,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 ④ 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지역신문, 아파트 전단지 등)
- ⑤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⑥ 기타 _____

41. 이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아지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③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④ 아기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⑤ 기타 _____

42. 이분에게 ○○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43. 현재 이분은 ○○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봐줍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일주일 내내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44. 평상시 이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를 돌보십니까? 함께 살면서 대리양육자가 **전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를 응답**해주시시오. (*수면시간 제외)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45.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45-1번 문항으로
- ②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45-1번 문항으로
- ③ 현물로 지불 ⇒ 45-2번 문항으로
- ④ 숙식만 제공 ⇒ 46번 문항으로
- ⑤ 지불 안함 ⇒ 46번 문항으로
- ⑥ 기타 _____

45-1.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자가 귀택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하여 답해주시시오.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 대리양육자가 아기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으로 답해주시시오.
 월평균 _____만원 ⇒ 45-3번 문항으로

45-2.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45-3. 이 분 외에 ○○을 돌보는데 다른 개인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예를 들어 육아도우미가 퇴근한 이후 친정어머니가 저녁시간에 ○○를 돌보는 경우 등) 다른 분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월평균 _____만원

45-4. 귀 택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의 개인 대리양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46.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47.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특성	보기
47-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7-2. 학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⑥ 잘 모름
47-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잘 모름
47-4. 국적	① 한국인 ② 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47-5. 자녀양육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 38번 ①번 응답자는 60번 문항으로, ②번 응답자는 48번 문항으로

다음은 아기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보육시설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도 응답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문항 63번으로 기입시오.

48. ○○가 다니는 보육시설의 이름과 주소는?

보육시설 이름 _____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다음은 ○○가 이용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입니다.

60. 지난 조사 이후 ○○가 **주거적으로 다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이나 기타 아기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단, 보육시설 등과 같이 대리양육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① 참여프로그램 없음 ② 참여프로그램 있음 ⇨ _____개

문항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월별 참여횟수	회별 참여시간	월별 비용	참여기간
보기		① 한글 ② 외국어 ③ 미술 ④ 음악 ⑤ 체육 ⑥ 과학 ⑦ 수학 ⑧ 감각·조작 ⑨ 통합 ⑩ 기타	① 우리 아기만 개별로 진행 ② 다른 아기들과 함께 진행	① 집(자택 외 다른 아기들의 집 포함) ② 시청·군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③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④ 기타 비영리 기관 (도서관,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⑤ 백화점/마트 등의 사설 문화센터 ⑥ 사설 학원(집보리 등) ⑦ 종교단체, 사회단체 ⑧ 어린이집 ⑨ 유치원 ⑩ 기타_____	① 이용함 ② 이용하지 않음	_____ 번	_____ 분	_____ 만원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1									
2									
3									
4									

※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퍼즐, 블록, 끼우기, 레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61. ○○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중 반나절 이상을 주당 3일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보육시설, 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기타 미술 또는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 앞으로 이용할 기관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올해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 3세가 되는 2010년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7세까지 반복하여 질문) 두 기관 이상을 계획 중이신 경우는 1순위로 고려하시는 기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② 유치원: 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응답 불가임.
④ 놀이학교 : 워즈아일랜드, 하바 등으로 보통 3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상가 또는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함. 일반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고가임.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 집보리 등 각종 사설기관은 대부분 기타 학원에 해당함.
⑦ 기타 : YMCA 아가스포즈단 등. 단,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지 이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⑧ 미이용 : 기관에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

2009년(2세)	
5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6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7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8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8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9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0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1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2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2013년(6세)	
1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2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3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4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5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6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7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8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9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0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1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2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2014년(7세)	
1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2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3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4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5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6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7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8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9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0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1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12월	① 보육시설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기관 _____ ⑧ 미이용 ⑨ 잘모르겠음

다음은 귀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62.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가구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70.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 없음
71. 귀 가구는 ○○에 대한 농어민 가정 육아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를 받고 있습니까? 단, 해당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해당 아동의 경우 0세 134,000원을 지원 받음
72. 귀하는 ○○를 양육하면서 다음의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음은 귀 가구 거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73.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소유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보증부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 ⑥ 기타 _____
74. 현재 살고계신 주택 외에 가구원 소유의 집이 따로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5. 현재 귀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③ 연립주택(빌라 포함)
 ④ 다세대주택(다가구 주택) ⑤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상가 또는 사무실 안쪽)
 ⑥ 오피스텔 ⑦ 임시막사 ⑧ 기타 _____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76. ○○는 귀 택에서 귀하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취업, 건강 등의 이유로 다른 집(조부모 등 친인척의 가구)에서 주로 살고 있다
 ※ 주중에 다른 집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부모님과 지내는 등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며 서로 방문하는 경우도 ②에 포함됨.
- 76-1. 지난 조사 때 ○○를 맡겼던 가구와 동일한 가구입니까?
 ①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한 가구임
 ② 지난 조사 때와 다른 가구임
 ③ 지난 조사 때에는 ○○를 맡기지 않았음.
77. 다음은 가구원, 즉 식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귀 택에서 **○○를 제외한 가구원**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가구원	비가구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학생 등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78. 다음은 위탁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가구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아기를 돌보아주시는 택에서 **○**를 제외한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가구원	비가구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79. 다음은 귀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를 제외한 모든 식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79-1. ○○와의 관계	79-2. 가구원 변동여부	79-3. 가구원 변동 사유	79-4. 생년 월일	79-5. 양력/ 음력	79-6 성별	79-7 최종학력	79-8. 1,2급 장애 유무	79-9 회귀 난치성 유전병	79-10 소득활동여부
보기	① 부모 ② 형/오빠·누나/언니 ③ 동생 ④ 친조부·친조모 ⑤ 외조부·외조모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⑦ 형제자매의 자녀 ⑧ 고모·삼촌 ⑨ 고모부·숙모 ⑩ 고중사촌·친사촌 ⑪ 이모·외삼촌 ⑫ 이모부·외숙모 ⑬ 이중사촌·외사촌 ⑭ 기타_____	① 동일 가구원 ② 새로 들어옴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예) 19750211	① 양력 ② 음력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보육시설이용 ③ 미취학-유치원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초등학교재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전문대 (3년제 이하 기 능대학) ⑩ 대학교 (4년제 이상) ⑪ 대학원 석사 ⑫ 대학원 박사 ⑬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③ 전업주부임 (집안일, 가사) ④ 무직임 ⑤ 미취학 ⑥ 기타 _____
응답자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가구원7										
가구원8										
가구원9										

※ 소득활동의 경우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시오.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소득활동에** 해당됩니다. 단,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82-11.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학년 ② 중학교 _____학년 ③ 고등학교 _____학년 ④ 전문대 _____학년
⑤ 대학교 _____학년 ⑥ 대학원 석사 _____학기 ⑦ 대학원 박사 _____학기

☞ 79번 문항에서 ①번 응답자는 조사 종료

80. 다음은 위탁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를 제외한 모든 식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80-1. ○○와의 관계	80-2. 가구원 변동여부	80-3. 가구원 변동 사유	80-4. 생년월	80-6 성별	80-7 최종학력	80-8. 1,2급 장애 유무	80-9 회귀 난치성 유전병	80-10 소득활동여부
보기	① 형/오빠·누나/언니 ② 동생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의 자녀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_____	① 동일 가구원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예) 19750211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보육시설이용 ③ 미취학-유치원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초등학교재학 ⑥ 초등학교 ⑦ 중학교 ⑧ 고등학교 ⑨ 전문대 (3년제 이하 기 능대학) ⑩ 대학교 (4년제 이상) ⑪ 대학원 석사 ⑫ 대학원 박사 ⑬ 모름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③ 전업주부임 (집안일, 가사) ④ 무직임 ⑤ 미취학 ⑥ 기타 _____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가구원7									
가구원8									
가구원9									

※ **소득활동**의 경우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시고, 시간제로 일을 하거나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소득활동**에 해당됩니다. 단,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고.

83-11. 학생인 경우 다음 중 어느 과정에 해당됩니까?

- ① 초등학교 _____ 학년 ② 중학교 _____ 학년 ③ 고등학교 _____ 학년 ④ 전문대 _____ 학년
 ⑤ 대학교 _____ 학년 ⑥ 대학원 석사 _____ 학기 ⑦ 대학원 박사 _____ 학기

다음은 위탁가구가 위치한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81. 위탁가구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_____

82. 위탁가구에서 현재 ○○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은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83. ○○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84.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보육시설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85.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5세(만 3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허바 등이 있음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86.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87.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88.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89.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함 ② 비교적 위험함 ③ 보통임
 ④ 비교적 안전함 ⑤ 매우 안전함
90.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함 ② 비교적 위험함 ③ 보통임
 ④ 비교적 안전함 ⑤ 매우 안전함
91.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연구보고 2010-08

한국아동패널 2009 기초분석보고서

발행일 2010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62-2 93330